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8-07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김규륜
김영윤 안혜영 윤여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대전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66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 이금순 ... [등지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05-08-07)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05-1

342.158-KDC4
323.623-DDC21 CIP2005002794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

본 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개 국책연구기관과 3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요 약

# Ⅰ.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총론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왔으며 구체적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직업능력 개발 및 지역단위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나, 실제 프로그램의 진행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세부집단별로 적응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성화된 적응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실제 적용가능 한 적응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자와 현장실무자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왔다.

본 연구는 1차년도(2003)와 2차년도(2004)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를 가족단위 적응지원, 청소년 적응지원, 취업(자활)지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즉 민간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적응프로그램들을 목표 및 실행과정상 어려움,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취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상태에 대한 기존의 조사와 연구는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용 및 경제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경제 및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제안과 고용 및 경제활동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단위의 프로그램 집행에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Ⅱ. 사안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현황 및 평가

## 1.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기관 현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소속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재 60여개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착지원, 지역복지, 아동·청소년, 해외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박람회, 심리상담 등 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차원의 북한이탈주민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 여성, 청소년, 특성화사업이라는 범주 하에 민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 13개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서울, (강남, 강서, 노원, 송파, 양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부천, 성남)가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협의회의 지역복지분과는 대부분 지역사회복지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회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사례관리에서부터 특성화된 가족, 여성, 청소년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 2. 사안별 주요 프로그램의 현황

### 가. 가족

초기 단신입국자들과 비교하여 가족단위 입국자들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어려움은 덜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응상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실제 가족단위의 입국자들에게서도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북한에서의 가족관계 및 탈북과정에서의 경험 등으로 인해 초기 정착과정에서 가족구성원간의 역할설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족단위의 정착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

기 위한 적응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간단체들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가족단위 지원프로그램은 주요목표에 따라 가족갈등 치유 프로그램,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남한가족과의 결연사업 및 가족모임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관계 습득 및 가족단위 지지자 확보 지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탈북 및 정착초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심리적 갈등을 덜어주기 위한 가정문제 예방치료사업(공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 정립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해체가정지원사업, 가족 간의 융화를 위한 프로그램(가족상담, 가족사진촬영, 가족명절지원, 가족영화관람, 가족문화공연관람, 가족행사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족단위로 지역주민가족들과의 결연을 통해 우리사회를 이해하고, 가족 단위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가족결연사업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한빛종합복지관 등 상당수의 사회복지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가족결연사업은 가족단위의 접촉 및 정보제공, 가족캠프, 문화체험 및 주말농장, 생일잔치, 추석명절나누기, 개별가족교류사업, 송년가족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개별 및 집단상담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우리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체험과 송년행사 및 다양한 집단활동 프로그램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참여하면서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 가족 안정성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원구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은 북한이탈여성들의 사회적응상 어려움을 동료상담방식을 통해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다. 방화6종합복지관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남북한 여성들 간의 모임을 통해 북한이탈여성들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시도하였다.

## 나. 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초기 사회적응과정에서 일반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 등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응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학업능력 부진으로 인해 국내입국이후 본인들의 연령에 준하여 취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북한의 교육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내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학업공백으로 인한 학력저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주로 부진한 학습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한 또래집단과의 동화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왔다.

북한이탈청소년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들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돕기 위해 학습쉼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생활공동체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 학습쉼터는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생활공동체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늘푸른청소년상담교육원, 다리공동체, 마자젤로센터, 하늘꿈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열린사회시민연합은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멘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남북문화통합교육원은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한겨레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회복지관들은 주로 학습쉼터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빛종합사회복지관도 학습쉼터 하누리교실을 개설하여 양천구지역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업지도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문화통합교육원은 양천구에서 방과후 공부방인 한누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학습을 지도하는 공부방 역할뿐만 아니라, 또래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담교실로 기능하고 있다. 북

한인권시민연합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개별학습지도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한겨레계절학교를 방학동안 개설하여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종교계에서 지원하는 대안교육도 있으며, 정부는 2004년 7월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다. 자활/취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취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기반정착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협력체계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공공영역의 경우도 통일부를 비롯한 중앙의 역할과 시군구중심의 지방의 역할 구분과 연계가 필요하며, 민간영역의 경우도 지역 내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지역정신보건센터, 민간단체, 고용안정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자치단체(구, 동) 등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가구여건 등 사업시행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로 인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단위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아직은 미비하며, 지역편차도 큰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서비스는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되어진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관, 굿피플 대학, 선경직업전문학교 등을 들 수 있다.

취업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대표적 단체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1년이 지나면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2005년도 자활사업안내'에 따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240여개 자활후견기관중 3곳(송파, 수원우만, 동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다.

### 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소,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에서 수용 생활을 경험했거나, 탈북 및 송환과정에서 중국과 북한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적·신체적 증상들을 표출하여 적정한 지원 서비스가 요구되는 인원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적응 조사 자료는 매우 미비되어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또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체계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지 못한 측면도 반영하고 있다.

의료복지 네트워크 아름다운 생명은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목표로 최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단체는 대표적인 북한이탈주민 밀집 주거지역인 서울 노원구 소재 공릉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 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내 북한인권피해자 상담지원팀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PTSD 문제에 대한 지원과 해결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사업을 위해서 구성되었으며, 심리 전문인력과 사회복지사, 북한이탈주민 연구자, 북한인권피해 연구자들이 협동으로 인권피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PTSD라는 특성화된 전문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3. 해외사례

이탈주민의 서독 사회에의 동화를 위해 서독 정부는 현지주민과 이

탈주민이 파트너라는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마련에 치중했다. 연방 및 주정치교육센터(Bundes-und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와 동화대책 담당 단체들은 이탈주민들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주말 세미나 같은 것을 마련했다. 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동화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해 직접 마련·실시되지 않고,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자문, 세미나 및 기타 동화프로그램을 마련·운용하되, 국가는 이들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취했다. 동화프로그램을 운용한 민간단체로는 카리타스(Karitas Vand), 신교교회(Diakonisches Werk), 근로자 복지단체, 신교 교회청, 독일 캐돌릭 난민협의회 및 아커만협회(Ackermann-Gemeinde) 등이 있었다.

통일전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대책과 직업교육훈련은 서독의 일반 주민에 대한 대책과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루어졌다. 독일국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구소련 지역을 포함한 동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독일로 귀환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독일인이지만 오랜 동안 타지에 살았기 때문에 독일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정착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가자당 45분 수업으로 6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 600시간은 언어교습, 30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교습은 기초과정 300시간, 중급과정 300시간으로 되어 있다. 언어과정 이수자는 충분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독일어 능력이 검증되는 사람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탈주민에 대한 서독 정부의 정책은 이탈주민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서독 주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탈주민들에게는 차별화된 이주동기, 체제의 상이성, 이탈주민의 적응력을 비롯하여 서독주민의 동독 주민 이주에 대한 차별적 반응 등에 따라 서독사회에 정착하는데 겪는 일반적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독 정부의 이탈주민에 대한 제반정책은 그와 같은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합법 이주민이나 탈출 이주민에 관계없이 모두 독일 국민으로 간주하여 수용했던 정책

은 이들의 서독 사회적응력에 크게 기여했으며, 서독의 사회보장제도 또한 이들에게 서독주민과 다름없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줌으로써 서독 사회에의 적응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서독의 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생존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책추진은 바로 이탈주민에 적용하는 법·제도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연스러운 정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 Ⅲ.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체계

## 1.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실태 분석

###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경제활동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현실 적합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2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통계청과 국제노동기구의 경제활동조사 기준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활동인구 조사표를 작성하였고 이것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경제활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분석범위와 방법

본 조사는 경제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 중 15세 이상의 노동 가능인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은 조사기간과 방법을 고려하여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는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성을 갖도록 선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적사항(가구주와 관계, 성별, 생년, 교육정도, 혼인상태)과 경제활동 확인항목(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 구직여부, 4주간 구직여부), 취업자항목(취업시간, 주36시간 미만 일한 이유, 전직희망여부, 전직 탐색여부, 취업시기, 고용계약 및 계속근무가능여부), 실업자항목(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취업제의 여부, 미취업사유), 비경제활동인구항목(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여부, 비구직 이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최근 구직시기), 기타항목(전직 유무 및 이직 시기, 이직이유, 산업분류, 직업, 종사자 규모, 종사상의 지위)등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항목과 본인 및 가족의 수입과 생활비 그리고 저축 및 부채에 관한 사항, 주거형태 및 주택과 자동차 소유여부와 종류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징(탈북시기,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률을 기본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상황을 제시하였다.

### 다. 정책제언

본 조사에서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실태와 고용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기존 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일반 국민 조사결과와 비교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과 고용동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은 매우 위축되어 있으며, 고용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일반 주민들과 비교할 경우 경제활동과 고용동향은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9.5%이지만 일반 주민들은 62.5%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자 비율은 북한이탈주민 85.3%, 일반국민 96.4%

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과 취업상황이 매우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취업률만이 아니라 고용조건에서도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 일용직 비율은 50%를 넘었으며, 특히 여성들의 취업률과 고용조건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과 경제활동이 낮은 것은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와 사회적응 교육 기간의 필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심신장애와 허약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심신장애 내지 허약을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의 취업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문제는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PTSD)과 같은 심리적 질환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원과 거주지역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주민들과 고용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식전환 프로그램의 실행이 요구된다. 방송 및 언론매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는 상호 역할분담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생산적 기여자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초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취업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그리고 정부 지원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고용안정센터와 민간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민

간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과 축적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계청 월간 고용동향 보고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활동과 고용동향에 대한 보고서가 분기별 또는 반 년간 형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2. 취업지원 모형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궁극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대상별(3단계)로 분류하여 취업내용을 결정지을 필요가 있으며 취업영역별 구분과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사례관리형태의 취업관리가 필요하다. 적절한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유지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자본요소들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취업적응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상황에 따른 대상별 취업유형을 적절히 배합시키고 체계적으로 적용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공통 요소로는 취업의지, 직업능력의 확보, 직업적응 및 사후관리 확보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상별 취업관리는 1단계에서 우선 초기 입국자~2년 경과 대상자 중심으로 혹은 입국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사회에서 하위보호계층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에서 공동작업장 및 공공근로 등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보하여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초기 입국자가 2년 정도 지난 후 차상위 계층이상 정도의 일정수준 생활적응이 가능하게 되면 2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주로 입국 2년차~4년 경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거나, 입국기간과 상관없이 차상위 혹은 중하위 생활을 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자활후견기관 및 선경직업학교등을 통한 자활공동체 및 업그레이드 자활 등을 통한 창업 및 파견기회를 확보하여 취업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3단계에서는 주로 입국 4년 이상 경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재교육 및 신기술 전문직업 교육을 실시하되 4년이 안되었어도 학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전문직업기술 습득을 통한 취업기회확보가 가능한 대상을 중

심으로 실제적, 전문적,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이로서 일반적으로 초기 입국하여 위의 3단계를 거쳐 5년 이상이 경과되면  궁극적으로 남한사회에서 중산층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요 목표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전달체계의 구성형태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달체계의 구성은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자활지원종합센터의 전달체계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각 단계별로 보면, 1단계는 직업훈련 기초단계로 적성파악 및 진로 교육과 직업기초능력의 확보, 직무수행능력확보의 내용을 갖추게 된다. 직업훈련기초단계의 적성 파악 및 진로 교육은 우선 자기분석으로 본인의 적성과 가지고 있는 능력 및 발휘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 등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가지게 될 직장과 관련하여 직장의 성격 방향등의 파악과 더불어 본인이 하게 될 직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적성파악 및 진로교육이후 직업기초능력 확보단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언어 및 용어사용, 구인구직 정보프로그램의 활용방안 등을 잘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1단계의 마지막으로는 직무수행 능력확보로 전 단계에서 파악된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직장, 직업적응을 위한 기초인턴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업훈련의 기초단계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다.

2단계는 직업능력 확보 단계실무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직업취득을 위한 훈련은 실제 갖고자 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하는 교육 훈련을 받게 되며, 이후 취업 실습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직접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단계가 직업적응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취업 및 창업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훈련 되어질 수 있다. 취업하고자하는 영역에서(즉 자본주의 사장구조 내에서)는 파견 및 인턴의 형태로 직무습득을 위한 직업전문기술을 익히게 되는 기간이며, 창업(혹은 자유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자활공동체나 선경직업학교, 좋은사람들단체 등에서 창업관련 현장기술교육을 습득하게 된다. 여기서는 직접 시장구조에서 취업하는 조건하에서 일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

로 훈련받게 함으로써 실제 취업 혹은 창업했을 때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적응해 나갈 수 있게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직업적응 및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단계로 직업을 갖은 후 개인별 여건에 따른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직장생활에서 갖을 수 있는 어려움과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조언과 자원을 지원해나가게 된다. 여기서 멘토링 시스템 등을 도입함으로써 긴밀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환경 및 기술변화에 따라가고 선도할 수 있는 보수교육체계를 특별히 구조화하여 직업유지가 장기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내용의 흐름 및 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 기초단계인 1단계는 하나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진입까지 약 2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직업능력 확보단계인 2단계는 지역사회내에서부터 준비하여 취업시장에 진입한 이후의 기간까지 걸쳐 진행되어지고 이기간도 약 2년의 시간이 예상되어진다. 직업적응 및 사후관리 단계인 3단계에서의 사례관리 및 보수교육은 직업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진다. 대체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진입 후 약 4~5년 이후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자활할 수 있는 취업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 Ⅳ.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

## 1.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

프로그램(program)은 일상적 용어이지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의 활동을 안내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사전의 활동 계획표 즉 앞으로 진행시킬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활동 계획표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은 하나의 활동이다. 둘째, 프로그램은 일정한 순서와 계속성을 갖는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은 한 개 이상의 아이템이나 사건으로 구성된다. 넷째, 프로그램의 모든 아이템과 사건들은 일정한 목표를 갖는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념은 체제(system), 기획(planning), 계획(plan), 문서(document), 수행(performance)이나 활동(activity)의 다섯 가지 형태를 갖는다. 즉 프로그램은 일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환경과 대상을 분석하고 자원을 동원하여 실행가능한 실천계획과 실행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 지원 시스템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주된 적용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이며, 프로그램의 목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주체는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 특히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단체들이다. 또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램 개발의 일반적 단계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표 설정, 문제분석, 욕구사정, 전략선택 및 목표수준 조절, 프로그램 설계,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수립 및 확보,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평가,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사업의 목적, 속성, 변화의 영역, 활동수준, 소요 기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정책적 환경, 그리고 이들의 욕구분석을 통해서 정책 대상자의 욕구와 사회정책적 욕구를 충족 또는 조절시켜줄 수 있는 적실성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어야 할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사업의 운영주체와 시설, 사업 대상자가 폐쇄된 형태가 아닌 개방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혼합적 프로그램으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적 대책의 성격과 함께 전문적 영역에 대한 적용 프로그램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셋째,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교육기관의 목적에 합당한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학습자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수 과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활동 중심의 지역사회 수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이들이 정착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의 성격과 정착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수준 프로그램의 성격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첫째, 민관 및 중앙과 지방 협동의 원칙, 둘째, 실행가능성 제고의 원칙, 셋째, 실용성과 전문성 제고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관 및 중앙과 지방 협동의 원칙이다. 2002년 입국자 규모가 년 1,000명을 넘어 선 이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체계에 대한 재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조정과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주도 지방정부보조형 모델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대부분 행정사무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는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보다는 남북 이질화의 극복과 사회통합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는 재정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역정부차원의 지원체계와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 등 각종 관련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민간차원의 관련 사업기금의 조성을 통해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행가능성 제고의 원칙이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자원동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진행이 요구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정부와 연구자, 그리고 관련 전문인력의 공동 작업으로 설계되고,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주로 집행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실용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설계와 집행과정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 2.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고려사항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서 지원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구체적 지원내용은 이들의 물질적 욕구의 충족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주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심리적 불안, 죄의식과 외로움, 경쟁력 부족, 정보부족 등으로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신변보장, 심리적 서비스, 제반 생활서비스 제공 그리고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제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 수단 등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경제적, 물질적 도움과 함께 남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적응 프로그램은 이주 초기 남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반드시 적응을 제고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방적인 지원은 오히려 적응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혜자는 원조자와는 다른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체계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실천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실행기관 결정과 그 유형의 결정은 실행의 효율성 보장, 전문인력의 확보, 비용확보 문제의 해결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적정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행 유형이 필요하다. 적응 프

로그램의 실행유형은 정부와 민간의 참여수준에 따라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그리고 그 혼합형인 민관협동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유형의 장단점과 남한사회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연구를 지역사회복지관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복지관이 위치한 임대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 접근성이 높고, 자체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즉각적·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개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정착과정을 관찰하고,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를 가진 개별 사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주요관심 분야인 '취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관련 서비스를 집중지원 하면서 기타 보완되어야 하는 서비스 '정서지원/가족·대인관계성'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련 실무자간에 정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실태, 즉 정착과정에서의 소요산정(Needs Assessment)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로 이주하여 왔을 초기에, 이들을 지역주민으로 환영하면서 이들의 정착기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거주지 안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형성과 관심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 지역복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행정기관 관계자, 교육기관, 종교기관, 각 직능단체장 등 지역유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 적응과정에서 갖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들

의 정착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은 실제 지원과정에서 매우 포괄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개별적인 상황이나 욕구가 자원봉사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긴밀한 인간관계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나 북한이탈주민 모두 심리적인 부담과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인적 지원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민간단체들이 직접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운용해 나가면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목 차

Ⅰ. 서론 ····· 1

Ⅱ. 사안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현황 및 평가 ····· 7

1.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기관 현황 ····· 9
2. 사안별 주요 프로그램 현황 ····· 13
3. 해외사례 ····· 104

Ⅲ. 사안별 사회적응 프로그램 분석 ····· 131

1. 가족결연사업 ····· 133
2. 청소년 학습쉼터 ····· 146
3. 자활/취업 ····· 163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 168

Ⅳ.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체계 ····· 191

1.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실태 분석 ····· 193
2. 취업지원 모형 ····· 242

Ⅴ.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 ····· 263

1.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 ····· 265
2.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고려사항 ····· 272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 279

참고문헌 ····· 28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93

# 표 목 차


<표 Ⅱ-1>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민간단체사업 현황 ····· 10
<표 Ⅱ-2>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 지역분과명단 ···· 12
<표 Ⅱ-3> 북한이탈청소년의 거주지역별 분포 ····· 37
<표 Ⅱ-4>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민간단체 현황 ····· 40
<표 Ⅱ-5> 동독 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역 ····· 108
<표 Ⅱ-6>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 116
<표 Ⅱ-7> 직업교육훈련의 이원화 ····· 117
<표 Ⅵ-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주거현황 ····· 197
<표 Ⅵ-2> 표본의 수와 비율(연령대) ····· 197
<표 Ⅵ-3> 표본의 성별 분포 ····· 198
<표 Ⅵ-4> 항목분류와 조사항목 ····· 200
<표 Ⅵ-5>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 201
<표 Ⅵ-6> 조사대상자의 입국연도 ····· 202
<표 Ⅵ-7> 조사대상자의 혼인 상태 ····· 203
<표 Ⅵ-8> 조사대상자의 가족수 ····· 203
<표 Ⅵ-9> 가구주와의 관계 ····· 204
<표 Ⅵ-10> 가구주와의 관계(성별) ····· 205
<표 Ⅵ-11> 조사대상자의 북한에서의 학력 ····· 206
<표 Ⅵ-12> 조사대상자의 한국에서의 학력 ····· 206
<표 Ⅵ-13> 조사대상자의 남녀별 경제활동 참가 ····· 208
<표 Ⅵ-14> 취업자의 업종별 현황 ····· 209
<표 Ⅵ-15> 종사상의 지위 ····· 210
<표 Ⅵ-16>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 211
<표 Ⅵ-17>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취업 제의가 있었지만) ··· 212
<표 Ⅵ-18>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직장형태 ····· 213
<표 Ⅵ-19> 구직을 하지 않은 이유 ····· 214
<표 Ⅵ-20>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현황 ····· 214

<표 Ⅵ-21> 연령별 취업자 ····· 215
<표 Ⅵ-22> 취업자의 부업 유무 ····· 216
<표 Ⅵ-23> 신분이 취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부 ····· 216
<표 Ⅵ-24> 취업자 직업별 분포 ····· 217
<표 Ⅵ-25> 취업자의 근로시간 ····· 218
<표 Ⅵ-26>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평소) ····· 218
<표 Ⅵ-27>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지난주) ····· 219
<표 Ⅵ-28> 근로계약 상태 ····· 220
<표 Ⅵ-29> 본인 잘못이 없을시 계속 근무 가능 여부 ····· 220
<표 Ⅵ-30> 직장 규모 ····· 221
<표 Ⅵ-31> 직업선택의 기준 ····· 222
<표 Ⅵ-32> 직업의 만족도 ····· 223
<표 Ⅵ-33> 현 직장의 불만 사항 ····· 224
<표 Ⅵ-34> 근무조건 및 직업변경 의지 ····· 224
<표 Ⅵ-35>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곤란 여부 ····· 225
<표 Ⅵ-36> 여성 취업이 어려운 이유 ····· 226
<표 Ⅵ-37> 여성 취업이 어려운 이유(연령대) ····· 227
<표 Ⅵ-38> 본인의 근로소득 ····· 228
<표 Ⅵ-39> 가족전체 총 소득 ····· 228
<표 Ⅵ-40> 본인과 가족의 저축 여부 ····· 229
<표 Ⅵ-41> 저축을 하는 이유(2개 선택) ····· 230
<표 Ⅵ-42> 본인의 월 저축액 ····· 231
<표 Ⅵ-43> 가족전체 월 저축액 ····· 231
<표 Ⅵ-44> 본인과 가족의 부채 여부 ····· 232
<표 Ⅵ-45> 본인과 가족의 부채이유(2개 선택) ····· 233
<표 Ⅵ-46> 본인과 가족의 부채 규모 ····· 234
<표 Ⅵ-47> 가족 월 생활비 ····· 234
<표 Ⅵ-48> 주거형태 ····· 235
<표 Ⅵ-49> 본인 소득에 대한 만족도 ····· 236
<표 Ⅵ-50> 자동차 보유 현황 ····· 237

<표 Ⅵ-51> 자동차의 용도 ····· 237
<표 Ⅵ-52>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여부 ····· 238
<표 Ⅵ-53>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개수 ····· 238
<표 Ⅵ-54> 정착보조금 중 가산금 수혜여부 ····· 239
<표 Ⅵ-55> 가산금 액수 ····· 239
<표 Ⅵ-56> 고용지원금 수혜여부 ····· 240

# 그림목차

<그림 Ⅱ-1> 독일의 교육제도 ····· 110
<그림 Ⅱ-2> 독일 직업교육훈련 이원화 제도의 구조 ····· 117
<그림 Ⅳ-1> 경제인구의 분류 ····· 207
<그림 Ⅳ-2> 북한이탈주민 대상별 취업관리 틀 ····· 246
<그림 Ⅳ-3> 전달체계 흐름도 ····· 252
<그림 Ⅳ-4> 취업지원 내용 흐름도 ····· 256

# I

# 서 론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체계 구축이 우리사회의 주요과제로 제기되면서, 이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정부는 오랜 기간 상이한 체제에서 생활하다가, 우리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정착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교육도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직업 및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2003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초기정착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착기반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취업, 사회적 편견, 건강, 학업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어려움과 함께, 계층별·세대별·성별 정착욕구의 차이로 인해 적응과정상 특수한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 집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이 갖고 있는 특정 집단별 수요에 적합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적응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모니터링하여 적응과정상의 욕구를 감안한 지속적 관리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총론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문제에 접근하여 왔으며 구체적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

직 초기 단계에 있다. 직업능력 개발 및 지역단위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의 진행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부집단별로 적응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성화된 적응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실제 적용가능한 적응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자와 현장실무자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나, 이러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왔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관련한 3차년도의 연구로서, 1차년도의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와 2차년도의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토대로 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교육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거주지 정착단계에서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가 정착지에서의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본 연구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지역단위의 사회적응 지원전달체계 구조를 재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세부집단별(일반성인, 청소년, 노인, 여성) 적응상 어려움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한 특별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주기별 공통 적응목표 성취에 필요한 세부 영역별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각 개인에 따라 적응과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입국과정상 어려움을 개인별로 장기추적하면서 실제 적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를 가족단위 적응지원, 청소년 적응지원, 취

업(자활)지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즉 민간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적응프로그램들을 목표 및 실행과정상 어려움,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네 분야에서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실제 현장에서 집행과정과 결과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단위 프로그램 실행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공릉종합사회복지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및 민간단체(북한인권정보센터), 자활후견기관(송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집단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일차적으로 집단별 적응상 어려움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현행 프로그램 평가를 토대로 협력대상 프로그램 협력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집행자와 연구자들 간의 공동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취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상태에 대한 기존의 조사와 연구는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용 및 경제활동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경제 및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제안과 고용 및 경제활동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단위의 프로그램 집행에 유

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간단체들의 역량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II

# 사안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현황 및 평가

## 1.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기관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정부의 사회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원은 입국 초기 3개월 동안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절차를 통해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나원은 심리안정 및 정서순화, 한국사회의 이해 및 이질감해소, 현장학습, 직업 및 진로탐색, 정착지원제도의 이해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착지에서의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방식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소속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60여개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착지원, 지역복지, 아동·청소년, 해외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박람회, 심리상담 등 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차원의 북한이탈주민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하여 왔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경제적 자립, 여성, 청소년, 특성화사업이라는 범주 하에 민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 13개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서울(강남, 강서, 노원, 송파, 양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부천, 성남) 가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의 지역복지분과는 대부분 지역사회복지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회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사례관리에서부터 특성화된 가족, 여성, 청소년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표 Ⅱ-1>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민간단체사업 현황

| 주제 | 단 체 명 | 사 업 명 | 소 재 지 |
|---|---|---|---|
| 경제자립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 북한이탈주민 취업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열기' | 부산 동구 |
| | 상리종합사회복지관 | 멘토링 기법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부산 영도구 |
| | 새롭고하나된조국을 위한모임 | 북한이탈주민 취업프로그램 | 서울 종로구 |
| | 몰운대종합사회 복지관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 | 부산 사하구 |
| 탈북여성 | 좋은씨앗 (구 그루터기) | 여성북한이탈주민 사회·문화 적응 및 체험프로그램 | 서울 송파구 |
| | 하나로교육복지 연구원 | 북한이탈여성 동료 상담교육 | 서울 서대문구 |
| | 서울 YWCA | 탈북여성 직업체험 프로그램 | 서울 중구 |
| | 대구종합사회복지관 | 탈북여성 정서지지 및 취업적응 프로그램 | 대구 동구 |
| | 평화종합사회복지관 | 탈북여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 서울 노원구 |
| 탈북청소년 | 열린사회시민연합 |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멘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 서울 강서구 |
| | 남북문화통합교육원 | 아동 놀이치료 및 상담교육을 위한 '한누리학교' 운영<br>탈북아동 방과후 공부방 운영<br>가족상담 프로그램 | 서울 양천구 |
| | 북한인권시민연합 | 방학중 학업증진 프로그램 '한겨레계절학교' | 서울 종로구 |
| | 가양7종합사회 복지관 | 탈북청소년 학습쉼터운영 | 서울시 강서구 |
|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 탈북청소년 학습쉼터운영 | 서울시 노원구 |
| | 한빛종합사회복지관 | 탈북청소년 학습쉼터운영 | 서울시 양천구 |
| | 지구촌고등학교 | 무연고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운영 | 부산시 연제구 |
| | 하늘꿈학교 | 무연고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운영 | 충남 천안시 |
| | 한꿈학교 | 무연고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운영 | 경기 남양주시 |
| | 다리공동체 | 무연고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운영 | 경기 안산시 |
| | 마자렐로센터 | 무연고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운영 | 서울시 영등포구 |
| | 목산침례교회 | 무연고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운영 | 서울시 양천구 |

| 주제 | 단 체 명 | 사 업 명 | 소 재 지 |
|---|---|---|---|
| 특성화사업 | 목산침례교회 | 하나원 교육생 효친사상, 봉사활동 프로그램 | 서울 양천구 |
| | 북한인권정보센터 | 인권피해자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극복 지원 서비스 | 서울 종로구 |
| | 한국자유총연맹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랑나눔'과 '북한문화체험마당' | 서울 중구 |
|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 | 서울 강서구 |
|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주말농장활동을 통한 남북한 가족 만들기 | 서울 강남구 |
| |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시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그루터기' | 부산 사하구 |
| | 자원봉사능력개발원 | 대구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사업 | 대구 서구 |
| | 좋은벗들 | 남북한 주민 '좋은 이웃되기' | 서울 서초구 |

출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민간지원사업현황(2003년-2005년)참고 재정리

<표 Ⅱ-2>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 지역분과명단

| | 단 체 명 | 연 락 처 | 소 재 지 |
|---|---|---|---|
| 1 | 가양7종합<br>사회복지관 | T) 02-2668-8600<br>F) 02-2668-8596 | 서울 강서구 가양3동 1486 |
| 2 | 공릉종합<br>사회복지관 | T) 02-948-0520-2<br>F) 02-948-0523 | 서울 노원구 공릉3동 708 |
| 3 | 평화종합<br>사회복지관 | T) 02-949-0123<br>F) 02-949-0125 | 서울 노원구 중계3동 514-3 |
| 4 | 태화기독교<br>사회복지관 | T) 02-2040-1662<br>F) 02-445-3177 | 서울 강남구 수서동 741 |
| 5 | 한빛종합<br>사회복지관 | T) 02-2690-8762<br>F) 02-2694-1335 | 서울 양천구 신월4동 540-1 |
| 6 | 방화6종합<br>사회복지관 | T) 02-2666-6181<br>F) 02-2666-6184 |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16번지<br>도시개발아파트6단지내 |
| 7 | 마들<br>사회복지관 | T) 02-971-8387<br>F) 02-986-4970 | 서울시 노원구 중계3동<br>515-3번지중계주공1단지내 |
| 8 | 부산종합<br>사회복지관 | T) 051-465-0990<br>F) 051-463-7354 | 부산시 동구 수정4동 1169-3 |
| 9 | 몰운대종합<br>사회복지관 | T) 051-264-9033<br>F) 051-264-9032 |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1548-12 |
| 10 | 상리종합<br>사회복지관 | T) 051-404-5061<br>H)017-****-**** | 부산시 영도구 동삼3동 1123번지 |
| 11 | 대구북한이주민<br>지원센터 | T) 053-356-0464<br>~5 | 대구시 서구 비산1동 1095-2 2층 |
| 12 | 대구종합<br>사회복지관 | T) 053-964-3335<br>F) 053-964-3343 | 대구시 동구 서호동 89-1 |
| 13 | 울산화정종합<br>사회복지관 | T) 052-236-3139<br>F) 052-236-3022 | 울산 동구 화정동 862-2 |
| 14 | 인천삼산종합<br>사회복지관 | T) 032-529-8607<br>F) 032-525-4097 | 인천 부평구 삼산동 157 |
| 15 | 중탑종합<br>사회복지관 | T) 031-706-0167<br>F) 031-706-455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65<br>목련마을1단지내 |
| 16 | 한솔종합<br>사회복지관 | T) 031-716-4215<br>F) 031-717-199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br>101번지 |
| 17 | 명륜종합<br>사회복지관 | T) 033-762-8131<br>H) 010-****-**** | 원주시 명륜2동 705 명륜2차A내 |
| 18 | 법동종합<br>사회복지관 | T) 042-633-114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2동 188번지 |

## 2. 사안별 주요 프로그램의 현황

### 가. 가족

#### (1) 필요성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하면서 전체 입국자 중 여성과 노인의 비율이 급증하게 되었다. 초기 단신입국자들이 적응상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여 가족단위 입국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덜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응상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실제 가족단위의 입국자들에게서도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북한에서의 가족관계 및 탈북과정에서의 경험 등으로 인해 초기 정착과정에서 가족구성원간의 역할설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사회에서의 부부, 부모와 자녀간의 역할 및 관계가 북한사회와 다르다는 점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응속도 및 인식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가족의 입국의 경우에는 노년기 부모들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단위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가족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왔다. 이를 통해 탈북과정 및 국내 입국과정에서 초래된 가족 간의 심리적 상처들을 치유하고, 우리사회 정착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2) 가족 프로그램 현황

이와 같이 가족단위의 정착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간단체들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가족단위 지원프로그램은 주요목표에 따라 가족갈등 치유 프로그램,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남한가족과의 결연사업 및 가족모임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관계 습득 및 가족단위 지지자 확보 지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가) 갈등 치유 프로그램

탈북 및 정착초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심리적 갈등을 덜어주기 위한 가정문제 예방치료사업(공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 정립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해체가정지원사업, 가족 간의 융화를 위한 프로그램(가족상담, 가족사진촬영, 가족명절지원, 가족영화관람, 가족문화공연관람, 가족행사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가정문제 예방치료사업>[1]**

**1) 목적**

가정문제 예방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가족의 응집력을 높이고 가족기능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을 통하여 남한사회 적응의 근간을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가족의 이러한 변화를 위한 핵심의 축으로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을 선정하였으며 여성(부인, 엄마)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며, 가족구성원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북한이탈가족의 남한사회적응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의 2002년 사업내용이다.

### 2) 구성 및 대상

동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가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2개를 구성하였다.

여름과 겨울에 2회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가족의 응집력향상을 위한 가족여름캠프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족구성원 간에 지나온 한해를 마감하고 감사하며 다음해를 계획할 수 있고 가족장기자랑을 통하여 가족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송년가족의 밤을 준비하였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270여 명 중 초기 정착자를 제외한 200여 명의 대상자들 중에는 나름대로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아직은 낯선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를 경험하면서 생활을 개척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들과 어우러짐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고충을 해소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동 행사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노원구 내 북한이탈주민 150여명(75%)이 행사에 참여하여 초기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의 응집력을 높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3) 세부 추진내용

| 사업목표(계획) | 사업수행실적(프로그램, 횟수 등) |
|---|---|
| 가족원간의 융화 및 타가족들과의 관계성 증진(1회) | • 프로그램명 : 가족캠프<br>• 프로그램내용<br>: 노원구 거주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위원·보호담당관 연합Camp(태화체험학습센터)<br>: 수상교육, 전통무예(택견), 레크레이션, 한지공예, 서울종합영화촬영소 관람<br>• 실적 : 총 67명 참석<br>(북한이탈주민 34명, 직원 및 자원봉사자 14명, 지역협의회 9명,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대한적십자사 10명)<br>• 기대효과 : 지역협의회 및 외부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참석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생소한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음. 또한 가족전체가 참여함을 통하여 가족간에 애정과 관심을 깊게 할 수 있었음 |
| 1. 그 동안의 남한사회생활을 돌아보고 참석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새로운 힘을 제공<br>2.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노원구라는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건전한 공동체의식 형성<br>3. 행사를 통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즐겁게 어우러질 수 있는 위로의 장 | • 프로그램명 : 송년가족모임<br>• 프로그램내용 :<br>– 개회식(모임취지설명, 축사, 인사말)<br>– 1부 : 공연관람(자유이주민연합회 중창단공연·직원공연·너나들이청소년공연·체험수기발표)<br>– 식사(출장부페)<br>– 2부 : 가족장기자랑·노래자랑·레크레이션·덕담나누기 및 03년 신년인사·선물제공<br>• 실적 : 총150여명 참석(1회)<br>공릉복지관(10명), 통일부(2명), 북한이탈주민후원회(2명), 민간단체(2명), 지역협의회(15명), 북한이탈주민(110명), 자원봉사자(9명)<br>• 추진세부사항 : 외부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었음.(노원구 지역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
| 1. 가족원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가족기능 강화<br>2. 부부관계 증진 가족애 회복<br>3. 참여가족 : 5가족(10명) | • 프로그램명 : 부부관계성 증진프로그램<br>• 프로그램내용 : 영화관람(12월 7일) 및 식사, 영화관람 소감 나누기<br>• 실적 : 1가족(체인징 레인스) |
| | • 프로그램명 : 부부관계성 증진프로그램<br>• 프로그램내용 : 영화관람(12월 24일) 및 식사<br>• 실적 : 2가족(반지의 제왕) |
| | • 프로그램명 : 부부관계성 증진프로그램<br>• 프로그램내용 : 영화관람(12월 25일)<br>• 실적 : 2가족(광복절 특사) |

#### 4) 평가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그리고 외부기관들과 연계하여 자원(인적, 물적-현금 및 장소, 장비 등)들을 확보하는 부분, 프로그램의 내용성 확보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과 자원 동원 등을 구분하여 살펴볼 때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본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는 여성능력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가진 내적인 문제(심리적 위축, 두려움, 소극적 삶의 패턴) 및 생활상의 어려움(질병과 일상의 다양한 일정과의 중복됨 등)과 프로그램 진행방식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어려움(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룹으로 실시되는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들이 없음 등)으로 인하여 여성능력강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족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가족송년의 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자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 안에 있는 능력들을 확인함으로써 높아진 자존감을 통해 가족 안에서 중심이 되어 가족원들이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사회 속에서 가족응집력과 가족결속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년가족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본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소그룹으로 하여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류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또한 대상집단(여성, 남성, 아동, 청소년, 노인층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 (나) 남한가족과의 결연사업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족단위로 지역주민가족들과의 결연을 통해 우리사회를 이해하고, 가족 단위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가족결

연사업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한빛종합복지관 등 상당수의 사회복지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가족결연사업은 가족단위의 접촉 및 정보제공, 가족캠프, 문화체험 및 주말농장, 생일잔치, 추석명절나누기, 개별가족교류사업, 송년가족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개별 및 집단상담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우리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체험과 송년행사 및 다양한 집단활동 프로그램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참여하면서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결연사업>[2]**

**1) 목적 및 목표**

가) 목적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과의 결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나) 목표

목표 1.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자기보호능력을 강화시킨다.

세부목표 1 남한사회 이해를 돕기 위한 정착가이드 자체제작

세부목표 2 고용안정센타 및 기타 취·부업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취·부업 알선

세부목표 3 결연가정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

목표 2.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이질

[2] 한빛종합복지관의 사업내용이다.

감을 감소시킨다.

세부목표 1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실시

세부목표 2 남한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탐방 분기별 1회 실시

세부목표 3 남한 및 북한이탈주민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가족캠프 연 1회 실시

세부목표 4 결연가정이 함께 하는 송년행사 연1회 실시

목표 3. 상호방문, 전화상담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1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결연가정을 분기별 6가정씩 결연

세부목표 2 결연가정 교육 분기 1회 실시

세부목표 3 가족기능강화 및 생활적응을 위한 상호가정방문 실시

### 2) 대상

| 집단구분 | 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 | 단위수(명) |
|---|---|---|
| 일반집단 | 북한이탈주민(2004년 12월 기준) | 6,300명 |
| 위험집단 | 양천구내 북한이탈주민(2004년 12월 기준) | 466세대 664명 |
| 표적집단 | 본관 북한이탈주민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주민 | 50세대 140명 |
| 클라이언트 수 | 본인 신청 및 본관에서 결연가정 대상으로 선정한 주민 | 24세대 |

### 3) 계획 및 현황

가) 개입목표 별 실시내용

| 목표 및 세부목표 | | 프로그램 실시내용 |
|---|---|---|
| 목표 | 세부목표 | |
|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자기보호능력을 강화시킨다. | 남한사회 이해를 돕기 위한 정착가이드 자체제작 | 남한생활 적응에 필요한 각종 생활·문화적인 정보를 취합하여 지역사회안내지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함 |
| | 고용안정센타 및 기타 취·부업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취·부업 알선 | 고용안정센타 및 취업관련기관과 연계를 통한 경제생활보완을 위한 각종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
| | 결연가정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 | 청소년들의 진학, 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 |
| 집단지도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감소시킨다.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실시 |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위주로 실시 |
| | 남한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탐방 분기별 1회 실시 | 남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 봄으로서, 남한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 놀이문화, 관광문화 등의 6회의 문화체험 실시 |
| | 남한 및 북한이탈주민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가족캠프 연 1회 실시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가정의 결연가정 등과함께 실시하며, 또래놀이 및 집단활동 등의 친교프로그램과 물놀이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남한사람들의 관계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적응 능력을 향상 |
| | 결연가정이 함께 하는 송년행사 연1회 실시 | 결연가정이 한해를 정리하면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소외감해소 및 적응능력 강화 |
| 상호방문, 전화상담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킨다. |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결연가정을 분기별 6가정씩 결연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홍보를 통해 모집단 대상 가정을 24가정 연결 |
| | 결연가정교육 분기1회 실시 | 결연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교재 및 강사를 통해 정기교육을 연3회의 교육을 실시 |
| | 가정생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일 가정생활 주1회 체험 | 서로 다른체제의 가정생활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생활체험을 주1회 실시 |

나) 진행일정

| 세부 사업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취·부업 알선 | | | | | | | | | | | | | |
| 진로지도 | | | | | | | | | | | | | |
| 결연가정 조직 | | | | | | | | | | | | | |
| 결연가정 교육 | | | | | | | | | | | | | |
| 상호가정 방문 | | | | | | | | | | | | | |
| 개별상담 | | | | | | | | | | | | | |
| 문화탐방 프로그램 | | | | | | | | | | | | | |
| 가족캠프 | | | | | | | | | | | | | |
| 연말행사 | | | | | | | | | | | | | |
| 사례 발표회 | | | | | | | | | | | | | |

### 4) 결과 및 평가

가) 결과

| 세부사업명 | 공정표 | | 목표 대비 달성률 | 목표 | 평가방법 |
|---|---|---|---|---|---|
| | 수행시기 | 실적 | | | |
| 취·부업알선 | 3월 1일~12월 31일 | 17 | 85 | 20 | 목표달성척도 지속성 |
| 진로지도 | 4월 1일~12월 31일 | 20 | 100 | 20 | 목표달성척도 |
| 결연가정조직 | 1월 1일~12월 31일 | 24 | 100 | 24 | 목표달성척도 지속성 |
| 결연가정교육 | 5월 1일~12월 31일 | 62 | 258 | 24 | 목표달성척도 만족도 |
| 상호가정방문 | 3월 3일~12월 31일 | 784 | 70 | 1,116 | 목표달성척도 지속성 |
| 개별상담 | 3월 1일~12월 31일 | 73 | 365 | 20 | 목표달성척도 |
| 문화탐방 프로그램 | 3, 5, 9, 11월 | 151 | 94 | 160 | 실시횟수 및 참여율 |
| 가족캠프 | 7월 25일~7월 27일 | 75 | 125 | 60 | 실시횟수 만족도 |
| 연말행사 | 12월 6일 | 122 | 122 | 100 | 참여율 |
| 사례관리 | 4월~12월 | 12 | 100 | 12 | 사례집제작 |

나) 과정 평가

① 취·부업알선

취·부업알선의 경우 2002년 북한이탈주민 욕구조사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취·부업 알선을 위해 본 사업시작 이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실시했으며 취업관련 부서인 지역복지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특히 취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과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업시 필요한 기초소양교육 등을 프로그램 진행 전에 실시했으며, 직업훈련을 위한 취업

능력향상프로그램, 채용박람회 참여 결과 유통업체, 경비관련업체 등에 17건의 취업알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중 지속적인 취업활동은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편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취업알선과 함께 취업의 이해를 위한 소양교육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② 진로지도

진로지도에서 있어서 학업이 중단된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즉 탈북이후 제 3국 체류기간동안 학습이 중단된 아동·청소년들이기에 실제 나이에 비해 학력이 낮거나 환경과 언어로 인해 따돌림받는 현상 등으로 인해 학교편입과 검정고시의 갈림길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습중단의 시간적인 만회를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대학진학시 자신의 적성보다는 탈북과정에서 체류하면서 익힌 언어 특히, 중국어 관련 진학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지원체계상 35세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검정고시는 사교육으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진로지도는 이러한 특성을 전제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집단교육의 형태로, 학교편입 청소년들은 방문을 통한 개별지도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진로지도는 진학과 관련하여 학과 선택이나 이후 사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총 20건이 진행되었다.

③ 결연가정 조직

기존 지역주민(남한가정) 11가정과 신규 전입주민(북한이탈주민가정) 12가정이 참여하였으며 기존 지역주민 중 한가정이 신규 전입주민 두 가정에 연결되어 총 24가정이 참여하여 가정 대 가정의 결연이 이루어졌다. 결연가정 조직은 먼저 참여 희망의사가 있는 지역주민과 신규 전입주민들을 발굴하였고, 이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여 서로 알게 하는 방법과 지역주민이 신규 전입주민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의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의식적인 결연가정의 의미부여보다는 서로 새로운 주민과 만남에 더 큰 의

미를 부여하여 상호욕구를 토대로 부담없는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④ 결연가정 교육

결연가정 교육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첫 번째로는 남한가정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라는 주제로 삼육대 박윤숙 교수의 사례중심 강의가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북한가정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대학 박영희 교수의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적응관련 토론을 겸한 교육이 있었다. 세 번째로 일반 북한이탈주민과 결연가정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즐거운학교 손희정 선생이 한국역사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남한가정을 대상으로 교육 후 체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평가내용(11월 체험결과보고)를 살펴보면 역사적 현장에 대한 교육 및 체험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만족도가 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⑤ 상호 가정방문

실제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 결연가정 연결초기에는 기존 지역주민(남한가정)이 신규 전입주민(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후 연결된 가족원들이 서로의 가정을 상호방문 하거나 전화통화의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남북한가정이 함께 하는 문화탐방 및 가족캠프, 송년행사 참여 등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남자보다는 주부들 입장에서 상호교환이 잘 이루어졌으며 음식 및 교육 등에 대한 교류가 많았고, 아동·청소년들이 가정방문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었으며, 16가정은 상호 가정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중 10가정 정도는 2004년도에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⑥ 문화탐방

유적지방문, 영화관람, 축구관람 등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강화도 문화탐방시 서로의 느낌들에 반응 및 평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유는 3월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온 상호 가정방문과

더불어 결연가정 교육,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 실시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되면서 신뢰와 관심의 정도가 컸던 것이 긍정적인 답변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북한 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북한이탈주민가정은 남한가정에서, 남한가정은 북한이탈주민가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자리였었다는 데에서 만족도가 컸던 것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⑦ 가족캠프

가족캠프는 남한의 여름 휴가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방안으로 7월말 주말을 포함한 2박 3일의 일정으로 충남 안면도 소재 장꽁농원에서 실시되었다. 참여인원은 남북한가정 포함하여 48명이 참여하였고 남북한가정의 참여비율은 33:77%정도였고, 이중 일반 대상자와 직원, 봉사자 등 포함하여 총 67명이 캠프에 참여했다. 만족도 평가시 캠프장 선호도에 있어서는 87%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프로그램 측면에 있어서는 물놀이, 가족놀이한마당Ⅰ,Ⅱ 등의 선호도가 각각 38%, 15% 순으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평가했으며 기타 또래놀이Ⅰ, Ⅱ, Ⅲ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결연가정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 남한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차기 진행시 북한이탈주민들의 프로그램기획과정 참여와 진행희망 등의 적극적인 반응도 나타났다.

⑧ 연말행사(송년가족모임)

대상자 중심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진행과 효과적인 역할분담 및 공연 등으로 인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결연가정이 함께 하는 자리인 만큼 서로간의 한해를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⑨ 사례관리

대상주민의 대부분의 참여대상들이 만족도 및 모범적인 활동 등이 많았다고 판단되어진다. 특히 4월초 연결되었던 조00가정과 10월에 연결되었던 김00가정의 경우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던 사례로, 특히 조00가정의 경우 상호 가정방문시 내렸던 평가

중 주부들의 음식문화 및 생활문화의 공유가 가장 잘 이루어진 사례였으며 두 번째 사례인 김00가정의 경우 정보제공을 통해 목표설정을 매우 원활하게 해준 사례 중 하나였다. 이외 남한가정의 한 가정이 북한이탈주민 두 가정을 결연하여 활동한 경우와 의사와 약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결연가정 사업에 참여한 것 등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다) 효과평가

①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자기보호능력을 강화시킨다.

프로그램관련 리플렛 제작과 지역사회 안내지 제작을 통해 정보제공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자기보호능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특히 인근 학원과 연계한 개별적인 컴퓨터교육을 통해 정보습득 능력향상과 더불어 초기 상담시 제기되었던 두려움의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실질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보지 제공과 정보화 교육이 자기보호능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생활패턴으로 변화된 결과는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②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감소시킨다.

2002년 욕구조사시 사회·문화적 이질감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험, 가족캠프, 송년가족모임 등의 집단프로그램과 더불어 개별·집단상담 등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을 실시하였다. 특히 남한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체험과 송년행사 및 다양한 집단활동 프로그램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참여하면서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효과성이 매우 높았음이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80%이상

의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문화적 이질감에 대한 문제가 최초 시작 시보다 70%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참여대상자의 상담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상호방문, 전화상담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킨다.

결연가정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기존 지역주민(남한가정)과의 교류를 통해 지난해보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이해하는데 원활함을 느낀다고 대답한 가정이 12가정중 75%인 9가정이 응답했다. 즉,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정보가 이들이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었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 자립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다)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가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관계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응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북한출신 여성들은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북한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왔던 가부장적인 가족관계 및 역할, 즉 가장중심의 가족관계에 대해 혼돈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우리사회의 남녀관계의 모습과 사고방식들에 여전히 가부장적인 요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북한출신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배우자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부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새로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경제적으로도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찾기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여성은 가족 내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관계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인 원조 역할도 담당하면서 가족원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 가족 안정성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원구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은 북한이탈여성들의 사회적응상 어려움을 동료상담방식을 통해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다. 방화6종합복지관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남북한 여성들 간의 모임을 통해 북한이탈여성들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시도하였다.[3]

### <북한이탈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프로그램>[4]

#### 1) 목적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급증하고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가족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북한이탈가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며, 가족구성원의 관계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북한이탈가족의 남한사회적응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가족은 북한에서 갖고있던 가족문화와 생활습관을 그대로

---

[3] 송경곤, "2003년 정착지원분과 활동의 회고와 전망,"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 『2003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의 회고와 전망』~(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 동계심포지움, 2003), pp. 67~70.

[4]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이다.

간직한 채 남한의 낯선 생활모습과 문화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이 적응하며 생활하는 사회적응의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었던 기존의 사업들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은 일부 존재하지만, 가족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관점에서 가족구성원의 역할정립과 관계형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북한이탈가족의 사회적응문제는 북한이탈가족 당사자들의 복지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주민의 사회통합의 예비과정으로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서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의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가족원의 생계유지를 위해 고된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감내하며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해왔던 존재들이다. 그러나 남한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북한에서 경험하였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가장 중심의 수직적·위계적인 가족관계유형과 달리, 양성평등한 남한 남녀의 모습과 사고방식, 수평적인 가족의 생활모습을 접하게 되고, 가족 안에서 여성 자신의 존재가치와 역할에 관한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혼동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와 여성의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가족의 내부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자녀양육과 가족관계 지원자로서의 고정된 성역할과 제한된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남한사회적응에 소극적인 존재로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사회에 대해 잘 모르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며, 자녀들 세대에 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며, 사회로부터 단절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북한이탈여성은 가족 내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관계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인 원조 역할도 담당하면서 가족원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여성을 역량강화(empowerment)하고 여성을 통해 가족의 관계향상과 적응을 돕는 내용의 프로그램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미비한 상황이며, 더구나 가족과 여성을 위한 관점의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가족의 가족안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본 프로그램은 가족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위치를 재검토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여성들에게 남한사회의 문화와 가족원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북한이탈가족의 남한사회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 2) 추진방법

가) 대상자 선정기준

현재 본 복지관이 위치한 노원구 지역은 양천구와 더불어 서울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2002년 3월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104세대 164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분포를 보면 노원구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남녀 성별비율은 2:1로, 전체 중에서 여성은 32.9%(54명)에 해당한다.

본 사업의 주 선정 대상은 북한이탈가족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20~60대의 북한이탈여성이다.[5] 이들은 노원구 거주 전체 여성 중에서 77.8%(42명)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여성은 가족 내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관계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5]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교양강좌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의 프로그램은 노원구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경제적인 원조 역할도 담당하면서 가족원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여성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며, 가족원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가족의 안정성과 강화시키고 사회적응을 돕는 중요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사업의 주체

| 이름 | 부서, 직위 | 학과 및 경력(년) | 담당자 역할 | 자격증 | 기타 |
|---|---|---|---|---|---|
| ○○○ | 관 장 | 사회복지 경력 20년 사회복지학 석사 | - 사업 전체 지도감독 | 복지사 1급 | |
| ○○○ | 사회복지과 과장 | 복지관 경력 8년 사회복지학 석사 | - 사업 디렉터(기획 및 평가)<br>- 행정지원, 예산집행<br>- 수행인력 수퍼비젼<br>- 인생설계(비전세우기)/ 현장체험학습 | 사회복지사 1급 | |
| ○○○ | 재가·지역 복지팀 주임 | 정신보건센터 3년 사회복지관 2년 | - 행정적 업무<br>- 분노조절프로그램 진행<br>- 자원봉사활동 교육 및 장애인시설 자원봉사 활동 지도 | 복지사 1급 레크레이션 지도자2급 | |
| ○○○ | 사회복지사 | 복지관 경력 1년 사회복지학 석사 | - 전체 프로그램 담당<br>- 인간관계훈련, 감정공pg 진행<br>- 가족캠프, 야유회 및 교육 강좌 준비<br>- 가족 사례관리 | 사회복지사 1급 | |
| ○○○ | | | -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진행 | | 외래 강사 |
| ○○○ | | | - 자아존중감 형성 프로그램 진행 | | 외래 강사 |

### 3) 기대효과

본 '북한이탈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은

북한이탈가족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에게 자신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자신을 긍정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이 남편과 자녀 등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여성에게 자아상 회복과 가족관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남한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의 사회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가족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족의 사회적응을 돕는 전체적인 안목의 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의 접근방식은 남한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가족에게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과 '사람의 통일, 삶의 통일'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해 일관성과 실효성 없이 제공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들에 새로운 관점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여성과 그가 속한 가족을 전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의 밀접한 부분에서 발견되는 '다름'을 발견하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이들이 남한사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러

한 목적의 본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사회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각종 민간단체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4) 세부 추진내용

가) 전체 일정 및 주요내용

| 일 정 | 주 요 내 용 | 세 부 추 진 내 용 |
|---|---|---|
| 6월 | 전체 프로그램 준비<br>대상자 발굴 및 상담 | |
| 7월 | 2-(1) 부부관계성 증진 프로그램 |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br>감정공유하기 |
| 8월 | 2-(2) 가족구성원 융화 프로그램 | 가족캠프 |
| 9월<br>10월<br>11월 | 1-(1) 심리영역 : 자기 이해하기 | 심리검사<br>자아존중감 형성 프로그램<br>분노조절 프로그램 |
| | 1-(2) 사회생활영역 : 사회 이해하기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br>인간관계훈련<br>교육강좌 |
| 12월 | 전체 마무리 및 평가 | 가족모임 실시<br>전체 프로그램 마무리 및 평가 |

나) 세부 사업내용

○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 대상 : 30~40대 여성(8명~10명) → 심리영역, 사회영역을 모두 참가함.

＊ 진행과정(시간표)

| 구분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 1교시 | OT | 심리검사 | 자아존중감 형성pg - 1 | 자아존중감 형성pg - 2 | 자아존중감 형성pg - 3 |
| 2교시 | | | 자원봉사활동1 | 인간관계훈련 | 자원봉사활동2 |
| 구분 | 6회차 | 7회차 | 8회차 | 9회차 | 10회차 |
| 1교시 | 교육 강좌 | 분노조절pg 1 | 분노조절pg 2 | 분노조절pg 3 | 평가회 |
| 2교시 | | 자원봉사활동3 | 인간관계훈련 | 자원봉사활동4 | |

① 심리영역 : 자기이해하기

| 프로그램명 | 일정 | 목표 | 담당자 | 진행내용 |
|---|---|---|---|---|
| 심리검사 | 3시간 | 자신의 성격유형 확인을 통한 자기이해 | 외부 기관 의뢰 | • 내용<br>: 성격선호도 검사 (MBTI검사, 설명)<br>- 개인의 성격유형을 인지(자기이해도 증진)<br>- 장단점과 개발을 위한 방법을 설명 (소그룹활동 : 그룹리더 사회복지사) |
| 자아존중감 형성 프로그램 | 2시간*3회 = 6시간 | 낮은 자존감 회복과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 | 외부 강사 | • 내용<br>- 1회 : 자기이해 (인생곡선, 타인이 바라본 나의 모습 이해, 장단점 확인)<br>- 2회 : 가치관확인 (가치관 경매 등)<br>- 3회 : 자아존중감정도 확인, 칭찬하기, 자기개발하기<br>• 방법 : 3단계로 실시 도구활용(질문지, 기록 sheet) |
| 분노조절 프로그램 | 2시간*3회 = 6시간 |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관계성 형성 | 사회 복지사 | • 내용<br>: stress상태검사, 분노표출, 대인불안검사<br>: 생활 속에서의 분노조절을 위한 훈련<br>• 방법 : 단계별로 3회 실시/질문지, 기록 sheet |

② 사회생활영역: 사회이해하기(자녀교육문제,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망 등)

| 프로그램명 | 일정 | 목표 | 담당자 | 진행내용 |
|---|---|---|---|---|
|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 8시간 (2시간*4회) | 자활을 위한 자신감 형성 및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해 | 사회 복지사 | • 내용<br>: 장애인 관련 비디오 상영<br>– 장애인이해를 위한 교육비디오<br>– 장애인 인생극복 관련 체험비디오<br>: 지역사회복지관내 치매노인 및 장애아동교육 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 |
| 인간관계 훈련 | 4시간*1회 = 4시간 |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형성 및 타인 이해하기 | 전문 강사 & 사회 복지사 | • 내용<br>: 관계성 증진 및 자기표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역동적인 프로그램<br>: 등산, 견학, 연극·연화관람 중 선택 |
| 교육강좌 | 1회 |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 증진 | 전문 강사 | • 내용<br>: 자녀교육문제, 한국사회 이해 및 경제패턴, 여성의 자기개발 등<br>• 방법 : 각 영역의 전문강사에 진행<br>• 방법 : 대상자 선정시 노원구 이외의 지역의 대상자들 및 기타 북한이탈 주민들의 자생적인 단체에 홍보 |

○ 가족체계지원 프로그램

① 부부관계성 증진프로그램

* 대상 : 기혼가족부부 (5가족 : 10명)

| 프로그램명 | 일정 | 목표 | 담당자 | 진행내용 |
|---|---|---|---|---|
|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 2시간*2회 = 4시간 | 가족원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가족기능 강화 | 외부 강사 | • 내용<br>– 1회 : 가족 구성원 관계·역할분담 분석(부부, 부모 자녀간) 및 가족소개<br>: 소집단으로 나누어 진행<br>– 2회 :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교육<br>• 방법 : 단계별로 2회 실시 도구활용(질문지, 기록sheet) |
| 감정공유 하기 | 2회 | 부부관계 증진 가족애 회복 | 사회 복지사 | • 내용 : 가족을 주제로 연극, 영화, 비디오시청, 소감발표 및 가족 소모임 진행 |

② 가족구성원 융화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일정 | 목표 | 담당자 | 진행내용 |
|---|---|---|---|---|
| 가족캠프 | 1회 | 가족원 간의 융화 및 타가족들과의 관계성 증진 | 사회복지사 및 외부 강사 | • 내용<br>- 노원구내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연령층 및 다양한 세대원들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여름 휴가를 위한 가족캠프(1박2일)<br>- 레크레이션, 가족장기자랑, 관광<br>- 노원구 지역협의회 회원 및 기타 유관단체직원들과 함께 행사 기획 및 참여<br>• 방법 : 단계별로 2회 실시<br>도구활용(질문지, 기록sheet) |

## 나. 청소년

### (1) 필요성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초기 사회적응과정에서 일반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 등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응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학업능력 부진으로 인해 국내입국이후 본인들의 연령에 준하여 취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북한의 교육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내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학업공백으로 인한 학력저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주로 부진한 학습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한 또래집단과의 동화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왔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대부분 수도권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모여 사는 이유는 물론 부모들이 서울을 선호하는 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는 것이 북한사회에서 평양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심을 가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가중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즉, 남한사회에서도 지방의 발달상황이 수도권보다 더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북한사회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훨씬 더 경쟁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 Ⅱ-3> 북한이탈청소년의 거주지역별 분포(2003. 5)

(기준 단위: %)

| 지역 | 강원 | 경기 | 경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인천 | 울산 | 서울 | 전라 | 충청 | 제주 | 계 |
|---|---|---|---|---|---|---|---|---|---|---|---|---|---|---|
| 인원 | 12 | 58 | 23 | 11 | 11 | 20 | 21 | 15 | 2 | 287 | 16 | 37 | 8 | 511 |
| % | 2.3 | 11.1 | 4.4 | 2.1 | 2.1 | 3.8 | 4.0 | 2.9 | 0.4 | 55.1 | 3.0 | 7.1 | 1.5 | 100 |

출처 : 고경빈 외,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서울: 우양, 2005), p. 145.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점을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6]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은 학업능력의 부진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능력 부진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대부분 중국지역에서 유랑생활을 하는동안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과 남북한의 학제차이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에서 중요시되는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에 살고 있을 당시 또는 북한이탈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남한의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생각의 복잡성을 가지게 된다. 이 결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의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반면, 같은 북한이탈청소년들과 지나칠 만

[6]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234~246.

큼 동류의식을 느끼게 되므로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에 입국하기 전의 삶의 방식에 의거해서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동시에 반대의견을 제시할 때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성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중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바,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탈북과정에서 왜곡된 성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과 남한사회에 진입한 이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를 이성으로 선택한 경우에 긴밀한 성지도가 불비한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숨어사는 기간동안 억압받았던 기억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주와 흡연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에서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7] 우선적으로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체제가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이 불안정한 가족구조하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많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탈북과정에서 가족해체를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어려움은 남북한 교육체계의 차이와 탈북과정에서의 생존적 생활경험이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서 가중되고 있다.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집단 중에서 남한사회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령층이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들 중 비교적 나이가 많은 10대 후반층과 10대중반 이하의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의 기회를 같이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성인층과 비교할 때 남한사회가 제공하는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적응력이 비교적 높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

[7] 위의 책, pp. 247~250.

진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도록 하기 위한 남한정부 및 사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될 것인가 하는데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교육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들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돕기 위해 학습쉼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생활공동체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 학습쉼터는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생활공동체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늘푸른청소년상담교육원, 다리공동체, 마자젤로센터, 하늘꿈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열린사회시민연합은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멘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남북문화통합교육원은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한겨레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회복지관들은 주로 학습쉼터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빛종합사회복지관도 학습쉼터 하누리교실을 개설하여 양천구지역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업지도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문화통합교육원은 양천구에서 방과후 공부방인 한누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학습을 지도하는 공부방 역할뿐만 아니라, 또래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담교실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개별학습지도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한겨레계절학교를 방학동안 개설하여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종교계에서 지원하는 대안교육도 있으며, 정부는 2004년 7월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북한이탈청소년 대

안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남한의 학교와 사회에 부적응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시키고 학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학교에의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8]

<표 Ⅱ-4>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민간단체 현황 (2004. 9)

| 교육기관(단체) | 소재지 | 운영형태 | 교육내용 | 인원 |
|---|---|---|---|---|
| 늘푸른청소년 상담교육원 | 충남 천안 | 보호시설 | 숙식, 정규중고재학 | 4 |
| 다리공동체 | 경기 안산 | 보호시설 | 숙식, 정규중고재학 | 12 |
| 대구YWCA 달서구 청소년 쉼터 | 대구 달서 | 보호시설 | 숙식, 검정고시 | 4 |
| 돈보스꼬 청소년센터 | 서울 영등포 | 보호시설 | 숙식, 검정고시 | 2 |
| 마자렐로 센터 | 서울 영등포 | 보호시설 | 숙식, 검정고시 | 6 |
| 목산침례교회 | 서울 양천 | 보호시설 | 숙식, 검정고시 | 6 |
| 사랑의집 | 서울 관악 | 보호시설 | 숙식, 검정고시 | 2 |
| 지구촌고등학교 | 부산 연제 | 자체 대안교육 | 숙식, 학력인정 | 3 |
| 하늘꿈학교 | 충남 천안 | 자체 대안교육 | 숙식, 검정고시 | 21 |
| 한꿈학교 | 경기 남양주 | 자체 대안교육 | 숙식, 검정고시 | 11 |
| 경동교회 대안학교 똘배학교 | 서울 중구 |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 | 비숙식, 검정고시 | 14 |
| 여럿이함께만드는 학교 | 경기 광주 |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 | 숙식, 검정고시 | 6 |
| 여명학교 | 서울 서초 |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 | 비숙식, 검정고시 | 30 |
| 셋넷학교 | 서울 종로 |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 | 비숙식, 검정고시 | 11 |
|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 서울 강서 | 방과후 공부방 | 공부방 | 20 |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 서울 노원 | 방과후 공부방 | 공부방 | 25 |
| 한누리학교 | 서울 양천 | 방과후 공부방 | 공부방 | 15 |
| 한빛종합사회복지관 | 서울 양천 | 방과후 공부방 | 공부방 | 20 |
| 한겨레계절학교 | 서울 종로 | 방학중 보충수업 | 3주 합숙훈련 프로그램 | 23 |
| 계 | | | | 235 |

[8] 고경빈 외,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서울: 우양, 2005), p. 221.

### (2) 청소년 프로그램 현황

#### (가)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한겨레 계절학교>[9]**

**1) 개요**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월과 8월 방학기간을 이용한 3주 동안 현직교사와 자원봉사자가 기초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전국의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북한이탈청소년들과 합숙하며 이들의 기초과목 지도와 특별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왔다. 한겨레 계절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사회적응을 위한 학습능력 향상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심성계발, 학교 생활이해,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증진, 판단력 제고 및 진로 및 진학지도 등을 실시하여 왔다.

**2) 운영 대상 및 기간**

○ 운영 대상 : 국내에 정착한 만14~20세의 북한이탈청소년
○ 기간 : 2001년 8월~2005년 1월까지 총 8회 실시함.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에 실시하고 있음)

**3) 실행목표의 설정**

가) 학습지도
○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학원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초·중·고 과정 및 중입·고입·대입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기본과목 운영
① 국어
○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내용 전반을 익히기
○ 학습한 내용을 학습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

[9]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 실천보고서⑧』(서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5)

② 영어

A. 회화반 : 영어에 대한 기초다지기, 기본적인 회화 표현 익히기

B. 문법반 : 기초적인 문법적 지식을 활용해 영어를 이해하고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학습

- ㅇ 알파벳 및 영어 발음 원리 학습
- ㅇ 단수형 문장 만들기
- ㅇ 복수형 문장 만들기
- ㅇ 대명사와 해당 be동사 학습
- ㅇ 의문사를 활용한 의문문 만들기 학습

③ 수학

A. 낮은반 : 분수와 소수의 사칙연산을 익히고, 자연수의 진법과 집합의 개념을 이해

B. 높은반 :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학실력을 갖추기

④ 과학

A. 낮은반 : 기초 탐구 기능을 통하여 과학적인 사고력을 함양함으로써 부족한 기초실력을 극복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B. 높은반

- ㅇ 여러 가지의 운동을 통하여 힘의 개념을 알고 물리학적인 법칙을 이해
- ㅇ 물질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하여 밀도를 구할 수 있고, 어는점과 끓는 점, 용해도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고 또 구별
- ㅇ 지구의 크기를 구하고 태양계의 구성을 알며 행성의 운동 학습

⑤ 사회

- ㅇ 중학교 사회과의 기본적인 학습 방법과 각종 개념을 이해

⑥ 역사

- ㅇ 한국사에 대한 흐름 이해
- ㅇ 분단 전후의 현대사를 통해 통일의 길을 생각해보기

⑦ 컴퓨터

ㅇ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주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학습

⑧ 민주시민교육

ㅇ 생각 나눔과 토론을 통해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덕목을 스스로 찾고 지키려는 의지를 키우기

나) 생활 및 진로지도

– 학생 자치 활동

① 목적 : 학생들이 생활을 능동적이고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학생 자치회를 조직, 운영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주 시민의 소양을 갖게 함.

② 활동 내용

ㅇ 자치회 임원(회장, 부회장, 방장)을 선출

ㅇ 생활의 반성과 개선 논의

ㅇ 자율적인 생활 규율 마련

ㅇ 친교활동 : 생일 파티, 사은회, 학예발표회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ㅇ 자치회 주관으로 일인일역을 정하여 환경미화 실시

– 개인 상담과 특강을 통한 진로 지도

ㅇ 상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ㅇ 자아 발견 및 일의 세계에 대한 탐색을 도와줌.

ㅇ 일의 태도와 가치관의 확립으로 건전한 직업관 및 직업윤리를 실현함.

다) 심성지도

ㅇ 자아발견 :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기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

ㅇ 타인이해 :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독자적인 존재임을 수용하게 함

ㅇ 관계개선 :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의사소통 및 집단의 형성과 발전 등에 관심을 갖게 함.

ㅇ 행동변화 : 사회성이 발달하여 친숙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협동정신 키움.

라) 현장학습

① 가평예절교육원(2005년 1월 8회 한겨레 계절학교 중 실시한 내용)

ㅇ 목적 :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며, 자아실현 의지와 창의력을 지닌 미래 지향의 청소년을 기른다.

ㅇ 활동 내용 : 카프라 쌓기, 전통예절 배우기, FOLK DANCE

② 중랑청소년수련관 / 광주 '한사랑 마을'
(2005년 1월 8회 한겨레 계절학교 중 실시한 내용)

ㅇ 목적 : 탈북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적응 지원
남북 청소년들의 문화적 이질감 극복 및 결연 유도

ㅇ 활동 내용 : 문화체험교실(마술배우기), 천연비누 만들기, 시각·지체장애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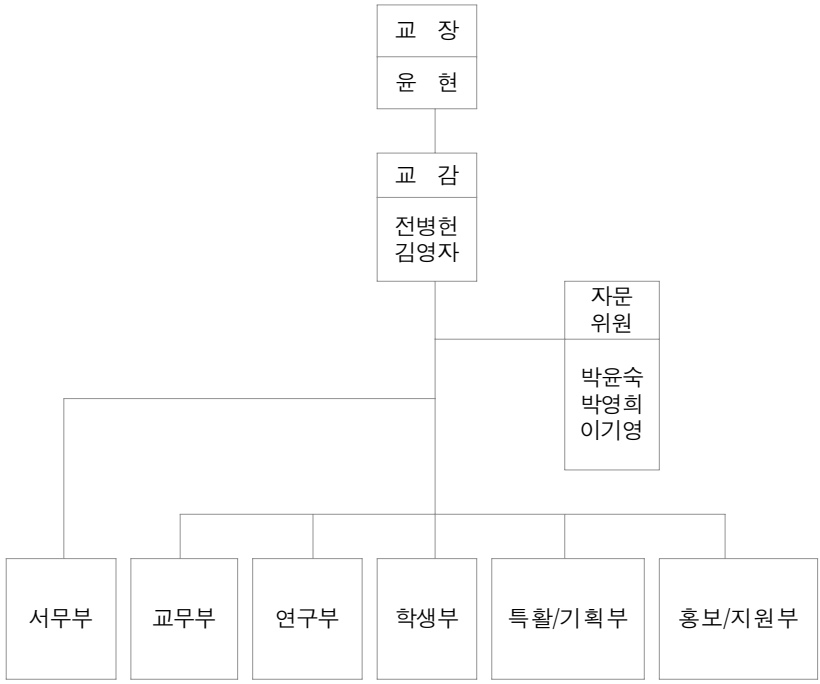
③ 뮤지컬 공연 '펑키펑키' 관람
(2005년 1월 8회 한겨레 계절학교 중 실시한 내용)

ㅇ 목적 : 신세대 문화예술공연 관람을 문화적 이질감 극복
스트레소 해소 및 심성 순화

ㅇ 활동 내용 : 청소년 뮤지컬 '펑키펑키' 관람

### 4) 운영의 조직

<한겨레 계절학교 조직도>



### 5) 추진 내용 및 일정 (2005년 1월 8회 한겨레 계절학교 중 실시한 내용)

| 일 정 | 주요내용 | 세부추진내용 |
|---|---|---|
| 2004년 10월 | 한겨레 계절학교 준비팀 구성 | - 준비팀 실무자 선정<br>- 계절학교 기획<br>- 계절학교 장소 및 정교사(현직교사) 섭외 |
| | 한겨레 계절학교 준비회의 I | - 계절학교 장소 선정<br>- 계절학교 참가 현직교사 섭외, 접수 및 선정<br>- 계절학교 프로그램 논의 |
| 11월 | 한겨레 계절학교 준비회의 II | - 세부 프로그램 논의 |
| | 계절학교 홍보 | - 인터넷 홍보 : 유관단체 및 관련학과에 게시<br>- 본회 홈페이지 및 기존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
| | 교사 모집 | - 정교사 모집(인터넷 이용)<br>- 보조교사(대학(원)생 자원봉사자) 모집(인터넷 이용) |
| | 제1차 현장답사 | - 계절학교 실무/담당자 현장답사 |
| | 학생모집 | - 학생모집 및 대상자 학생 가정방문 |
| 12월 | 한겨레 계절학교 준비회의 III,IV | - 계절학교 프로그램 최종확정<br>- 계절학교 학습부분에 대한 평가방안 논의 |
| | 교사 모집 | - 정교사 모집 및 선정<br>- 보조교사 모집 및 선정 |
| | 정교사 워크숍 | - 계절학교 진행보고<br>- 반편성 및 시간표 조정<br>- 교재 제작 방향 논의 |
| | 보조교사 워크숍 | - 한겨레 계절학교 소개 및 진행사항 보고<br>- 국내입국한 탈북 청소년 현황 및 특성 교육<br>- 역할분담 및 주의사항 전달 |

| 일 정 | 주요내용 | 세부추진내용 |
|---|---|---|
| 2005년 1월 | 전체 워크숍 | - 계절학교 실무자, 보조교사 상견례<br>- 시민연합 소개<br>- 계절학교 목표 및 북한이탈주민/탈북청소년 현황 교육<br>- 계절학교 전체 프로그램 교육 및 숙지<br>- 교사 역할분담 및 숙지 |
| | 한겨레 계절학교 실시 | - 사전 설문조사(학생) - 기초학력 테스트(학생)<br>-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컴퓨터 정규 교과 수업<br>- 민주시민교육 - 특별활동<br>- 자치회 활동 - 진로/진학지도<br>- 현장학습 - 중간/기말 평가(학생)<br>- 사후 설문조사(학생, 정교사, 보조교사) |
| 2005년 1월 | 슈퍼비전 | - 계절학교 관리자·보조교사 대상 슈퍼비전<br>- 다과 |
| | 평가회 | - 실무자, 정교사, 보조교사 활동보고<br>- 평가<br>- 다과 |
| 2월 | 종합평가 | - 수퍼비전, 평가회, 사전/사후 설문조사<br>- 사후조사 결과 종합<br>- 평가 |
| | 보고서 제작 | - 계절학교 종합보고서 제작(~3월) |
| | 만족도 조사 분석 | - SPSS를 이용한 사후 설문조사 분석 (학생, 정교사, 보조교사) |
| | 사후조사 | - 사후 설문조사(학부모) |
| | 앨범제작 | - 제8회 한겨레 계절학교 졸업앨범 제작 |
| 3월 | 사후조사 분석 | - SPSS를 이용한 사후 설문조사(학부모) 분석 |
| | 보고서 제작 | - 계절학교 종합보고서 제작 |

가) 전체 일정표(2005년 1월 8회 한겨레 계절학교 중 실시한 내용)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 | 4<br>입학식 | 5<br>수업<br>특강 | 6<br>수업<br>특별활동 | 7<br>수업<br>특별활동 | 8<br>체험활동<br>(1박2일) |
| 9<br>체험활동 | 10<br>수업<br>특별활동 | 11<br>수업<br>특별활동 | 12<br>수업<br>특강 | 13<br>수업<br>특별활동 | 14<br>수업<br>특별활동 | 15<br>봉사활동 |
| 16<br>뮤지컬<br>관람 | 17<br>수업<br>특별활동 | 18<br>수업<br>특별활동 | 19<br>수업<br>특강 | 20<br>수업<br>특별활동 | 21<br>컴퓨터<br>시험<br>학예/사은회 | 22<br>수료식 |

◎ 특강목차
- 특강 Ⅰ : 남한사회의 이해 및 탈북청소년의 역할
- 특강 Ⅱ : 탈북선배와의 대화시간
- 특강 Ⅲ : 진로지도 및 직업소개

◎ 현장체험학습 : 가평예절교육원(경기도 가평)
◎ 봉사활동 : 장애인시설 '한사랑마을'(경기도 광주, 중랑청소년수련관 연계)
◎ 뮤지컬관람 : 명동 '펑키하우스'(뮤지컬 공연단 '펑키펑키' 협찬)

나) 일일 시간표(2005년 1월 8회 한겨레 계절학교 중 실시한 내용)

| 시 간 | 내 용 | 장 소 |
|---|---|---|
| 07:00~07:30 | 아침운동 | 운동장 |
| 07:30~08:00 | 세 면 | 생활관 |
| 08:00~08:40 | 아침식사 | 후생관 |
| 08:40~08:50 | 조 회 (정영호 담임선생님)<br>※ 월요일(08:30) : 윤현 교장선생님 | |
| 08:50~09:35 | 1교시 | 각 교실 |
| 09:45~10:30 | 2교시 | 〃 |
| 10:40~11:25 | 3교시 | 〃 |
| 11:35~12:20 | 4교시 | 〃 |
| 12:20~13:00 | 점심식사 | 후생관 |
| 13:00~13:45 | 5교시 | 각 교실 |
| 13:55~14:40 | 6교시 | 〃 |
| 14:50~15:35 | 7교시 | 〃 |
| 15:35~16:00 | 휴 식 | |
| 16:00~17:30 | 자유특별활동<br>- 노 래 반<br>- 미 술 반<br>- 연 극 반<br>- 영어놀이반<br>- 태 권 도 반 | 운동장<br>각 교실 |
| 17:30~19:00 | 저녁식사 | 식당 |
| 19:00~20:25 | 자율학습 ① | 소강당 |
| 20:25~20:45 | 휴 식 | 〃 |
| 20:45~22:00 | 자율학습 ② | 〃 |
| 22:00~23:00 | 취침준비 | 숙소 |

### 6) 운영의 원칙

① 제8회 한겨레 계절학교의 입교 대상자는 남한학교사회 초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계절학교의 목표에 따라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으로 한다.

② 한겨레 계절학교의 장소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울 또는 근교로 한다.

③ 입교생의 학업수준과 능력을 고려해 과목에 따라 2개 반으로 분반하여 교육하며, 개별지도를 요하는 학생은 수준별 맞춤수업을 진행한다.

**<하누리 교실>[10]**

| 분류 | 세부추진내용 | 담당 인력 | 평가방법 |
|---|---|---|---|
| 하누리교실 | • 목표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의 학습적응력향상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학습/정서지도실시<br>• 수행의 필요성 : 교육체계의 상이점과 체류기간으로 인한 학습공백 등에 따라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짐<br>• 수행방법<br>– 쉼터를 통한 집단지도와 개별가정방문을 통한 방문지도 병행.<br>– 문화체험, 여가지도 등의 정서지도 실시<br>• 진행프로그램 : 학습지도, 집단활동<br>• 목표량<br>– 대상자모집 30명, 학습지도실시 600건, 집단활동 30건, 쉼터이용 600건 |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 ·모집인원<br>·학습지도참여 대상자<br>·봉사자활용도<br>·학습향상능력 (만족도평가)<br>·실시횟수, 참여 인원 |

[10]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이다

**<무지개학교>[11]**

### 1) 목적

첫째, 북한이탈아동의 학습수준을 파악하여 수준별 학습 및 학교교과 진도별 학습을 실시하고, 월별 주제를 설정하여 어휘, 시청각, 요리, 예능영역으로 구분하여 탐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전문화·체계화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탈북아동의 학습흥미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또래관계성증진 프로그램 및 심리정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원만하게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의 가정에서의 멘토와 1:1개별학습을 실시하여 개별화·전문화된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습흥미 및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적응을 돕고자 한다. 또한 영역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남한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이탈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본 복지관, 학교가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연결되어 아동청소년의 학업적응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여 이들이 남한사회에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 2) 대상 및 (지역)선정기준

| 사업구분 | 선정대상 |
|---|---|
| 북한이탈아동 학습쉼터<br>“무지개학교 I ” | 노원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초등학교 재학생 15명 |
| 북한이탈청소년 학습멘토링<br>“무지개학교 II” | 노원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준비 중인 청소년 10명 |

[11]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의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습쉼터인 무지개학교 사업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 3) 운영 세부사항

| 구분 | 아동 | 청소년 |
|---|---|---|
| 운영 일시 | - 학기중 : 주5일 (월~금/오후 3시~6시)<br>- 방학중 : 주5일 (월~금/오후 1시~6시)<br>*요일별 시간표-별첨 1 참고 | - 주 1~3회, 개인별 요일선정/2시간 단위 |
| 운영 장소 | - 무지개학교 (별도 학습쉼터) | - 개별 세대 (공릉@/목화@/사슴@) |
| 운영 프로그램 | • 학습효율성증진 프로그램<br>- 눈높이학습<br>: 언어, 수리영역 지도<br>: 수준TEST 실시 결과 반영/분기별 수준 TEST를 통해 단계 up-grade<br>: 3단계 구분(초급-중급-응용)<br>- 학년별 교과학습<br>: 국어, 수학 교과목 진도 맞춤학습<br>- 주제탐구활동<br>: 월별 주제탐구 영역 테마설정<br>: 테마별 심화영역별 교육지도<br>: 영역구분 어휘놀이 - 시청각교육 - 요리<br>실습-예능교실(미술/음악)<br>• 또래 관계성향상 프로그램<br>- 독서활동/창의력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매개로 또래 상호작용 증진<br>- 문제성향(충동성·공격성) 개입을 위한 그룹활동 및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br>- 테마 문화기행<br>• 심화 정서상담지원 프로그램<br>: 아동 개별사례관리 실시(사례교육 상담 파일 별도관리)<br>: 아동&가족체계 개입(가정방문/ 부모상담)<br>: 부모간담회 상·하반기 실시 | • 개별 맞춤학습<br>: 학습지도자-탈북청소년 1:1 개별 연계<br>: 효과적인 학습방법 공유, 각종 시험 준비 및 학습 정보제공<br>• 멘토링 프로그램<br>: 멘토링 활동영역별 체험(3영역/6가지)<br>【1영역】 여가생활 나눔<br>- 책나눔(대형서점 탐방)<br>- 스포츠(인라인/자전거/볼링)<br>【2영역】 문화체험 공유<br>- 공연관람(영화/뮤지컬 등)<br>- 이색체험(보드까페/맛집탐방 등)<br>【3영역】 정서상담 제공<br>- 성격검사 및 진로탐색검사<br>- life-story 나눔<br>- 개별사례관리<br>: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가족·학교체계 전문개입 |

* 청소년 학습멘토링 무지개학교 Ⅱ

| 영역구분 | | 일 정 | 주요내용 | 세부추진내용 |
|---|---|---|---|---|
| 대상자 모집 및 관리 | | 3월, 9월<br><br>3월, 9월 수시 | 연 2회 대상자 모집<br><br>봉사자 활동일지 관리 및 수시상담 제공 | • 학습지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탈북청소년 모집(우편발송 및 전화 홍보를 통한 참여 유도)<br>• 학습지도 봉사자 및 멘터의 활동내역을 '활동일지'로 보고받아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수시 개입함.<br>• 정기적인 사례관리(주1회 전화상담/월1회 가정방문 원칙, 위기개입대상 집중관리), 별도 개별상담파일에 전문상담기록 보관 |
| 세부운영프로그램 | 개별맞춤 학습 | 주 1~3회 1일 2시간 | 학습지도 자원봉사자와 북한이탈청소년과의 1:1 개별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지도 제공 | 학습지도 자원봉사자가 탈북청소년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제공하며, 아울러 효과적인 학습방법 공유, 각종 시험준비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습정보를 제공함. |
| | 멘토링 프로그램 | 격월 1회의 야외활동을 통한 멘토링 관계형성 지원 | 북한이탈청소년(멘터)과 자원봉사자(멘터)가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함께 체험하는 멘토링 관계를 통하여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함 | • 3영역 내 6가지 체험활동 실시<br>【1영역】 정서상담 제공<br>① 책나눔 : 대형서점을 탐방하여 청소년 권장도서를 구입하여 함께 읽고 소감나눔<br>② 스포츠 : 인라인,자전거,볼링 등 다양한 스포츠 중 선호활동을 선택하여 즐기기<br>【2영역】 여가생활 나눔<br>① 공연관람 : 영화, 콘서트, 연극 등 각종 공연 관람을 통해 문화시설이용 안내 및 남한의 다양한 문화코드에 대한 교감 나눔<br>② 이색체험 : 맛집탐방, 찜질방, 보드카페 등 최근 유행하는 다양한 곳들을 함께 가봄으로써 새로운 남한문화를 경험<br>【3영역】 문화체험 공유<br>① Life-Story 나눔 : 서로의 Life-Story를 나눔으로써 상대방 및 남·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br>② 성격검사 및 진로탐색검사 실시 : MBTI 성격검사 및 STRONG 진로탐색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을 잘 이해하고 향후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 |

#### 4) 기대효과

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아동에게 학습 효율성 증진 및 또래 관계성 증진 프로그램과 심화 정서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아동이 자신의 수준과 학교의 진도에 맞는 교과내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영역의 배경지식을 재미있게 습득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중·고등학교 재학(혹은 검정고시 준비)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1:1 개별 맞춤학습 및 영역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청소년이 부족한 교과목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남한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다.

셋째, 정기적인 방문/전화상담을 통하여 북한이탈아동·청소년의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아동청소년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 사회적응을 성공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나) 남한 또래 집단과의 동화 프로그램

#### <어우르기 교실>[12]

#### 1) 필요성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난과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의 악화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도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인원이 입국하였으나, 2003년에는 1,281명이 입국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정착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질적인 체제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과 생활기반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 낮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

[12]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적응문제에 대한 원인은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에서 오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혼란과 이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아동의 경우, 발달 특성상 부모의 각별한 양육이 요구되는 시기에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부모의 돌봄을 받을 기회가 매우 적고, 이와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남한 아동에 비해 사회적응 및 언어적응과 같은 더 많은 적응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 이러한 부적응의 문제는 향후 사회적인 일탈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남한사회적응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학교 적응의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아동의 경우 중국이나 제3국의 체류기간이 최소 2~5년 정도 되거나 탈북당시 학력이 입국 후에 그대로 인정되어 실제 나이에 비해 학년이 낮아 학교편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많을 뿐 더러 설사 학교에 편입을 하더라도 기초학력의 부족과 남북한의 학교 운영체제의 이질감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초는 남·북한아동들간의 이질감을 없애고 통합교육을 통해 남한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리고 비교적 남한사회에 잘 적응함으로 이들에 대한 학습지도와 정서적 지원은 성인에 비해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이에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6년간 사업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북한이탈아동의 남한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 효과도 매우 크다.

2004년 7월 13일 현재 본 기관에서 관리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45세대이며 대상자만 120명이고 18세 미만의 북한이탈아동은 25명이며 강서구 전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북한이탈아동들을 대상으로 초기 심리적인 평가 및 학습능력진단검사, 지능검사를 통해 아동의 현 심리상태와 학습능력 정도를 파악하여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예상해 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살핌을 통해 아동의

남한사회적응력을 향상하고자 북한이탈아동들을 남한사회 통합을 위한 '어우르기 교실'을 운영하고자 한다.

### 2) 목적 및 목표

가) 목 적

지역 내 북한이탈아동들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적 개입을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며, 북한이탈아동들이 학교 또는 타 교육 훈련 기관 등의 정규체계 내에 소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건강한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목 표

목 표 1. 북한이탈아동의 지속적인 관리와 남한사회의 부적응 요소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세부목표 1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 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2 북한이탈아동과 상담심리전문가와의 지속적인 1:1개별상담을 통해 남한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목 표 2. 북한이탈아동들의 남한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교육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

세부목표 1 학습능력향상을 위해 학습능력진단검사 및 지능검사를 실시한 후 학습클리닉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제시한다.

세부목표 2 학습클리닉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찾아내고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세부목표 3 학습성적향상을 위해 멘터를 육성하여 단순히 학습자 원봉사에서 한단계 up-grade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4 대학 탐방을 통해 대학생활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세부목표 5 아동욕구에 맞는 특기적성별 동아리를 조직하여 많은 아동들이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요일별로 특별활동을 실시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목 표 3. 북한이탈아동들에게 남한사회 체험활동을 통해 문화적·사회적 이질감을 경감시킨다.

세부목표 1 야외문화활동을 실시한다.

남북한 아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경기, 연극, 음악회, 영화 관람 등을 실시한다.

세부목표 2 가족중심의 남한사회 체험을 실시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목 표 4. 북한이탈아동과 남한 아동들 간의 통합교육과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의 이질감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유도할 뿐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유도한다.

세부목표 1 북한이탈아동과 본관 방과 후 교실 아동들을 그룹화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남한아동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세부목표 2 남한사회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남한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3) 세부 사업내용

| 사업명 | | 일정 | 목표 | 사업진행내용 |
|---|---|---|---|---|
| 사업 준비 단계 | 대상자 선정 및 홍보 | 1월 | - 프로그램 참여 아동에 대한사정<br>-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해 통합의 중요성을 홍보함 | - 프로그램 참여아동을 선정하여 사정한다.<br>- 참여아동 가정 및 참여 학교에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
| 개별 사례 관리 |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1월 ~ 3월 | - 북한이탈아동의 심리상태 사정<br>- 심리검사 : 25명×2회 = 50명<br>- 심리치료 : 2명×10회 = 20명 | -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 |
| | 개별상담 | 1월 ~ 12월 | - 개별상담 및 가족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br>25명 × 24회 = 600회 | -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을 통해 아동 및 가족의 갈등요소 및 부적응적 요소를 해소시킨다. |
| 학습 지도 및 특기 적성 교육 | 학습 진단검사 | 3월 | - 학습방법진단검사 및 지능검사 실시<br>- 25명×2회 = 50회(지능검사 1회, 학습방법진단검사 1회) | - 지능검사 및 학습방법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학습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
| | 학습클리닉 | 3월 ~ 4월 | - 학습클리닉을 통해 올바른 학습 방법제시<br>- 10회×25명 = 250명 | - 학습클리닉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 | 학습지도 | 1월 ~ 12월 | - 개별화한 학습지도로 학습능력 향상<br>25명×5회 = 1,250회<br>- 영어, 수학교실<br>25명×5회 = 1,250회 | - 개별지도 : 월-금 14:00-18:00<br>- 영어교실 : 화, 목<br>- 수학교실 : 월, 수, 금 |
| | 대학탐방 (항공대) | 5월 | - 항공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함 | - 대학생활을 선 체험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 한다. |
| | 특기적성 교육 | 1월 ~ 12월 | - 동아리조직을 통한 다양한 특기적성개발 교육<br>25명×5회 = 1,250회 | - 북한이탈아동들의 잠재된 능력개발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장점을 살린다. |

| 사업명 | | 일정 | 목표 | 사업진행 내용 |
|---|---|---|---|---|
|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 교육 | 특별활동 실시 | 1월 ~ 12월 | - 요일별로 아동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 실시한다. | -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br>월요일: 풍선아트<br>화요일: 축구<br>수요일: 종이접기<br>목요일: 동화구연<br>금요일: 미술활동 |
| 남한사회 체험 활동 | 야외문화 활동체험 | 1월 ~ 12월 | -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문화행사 실시를 함<br>- 총 4회 실시 | - 남북한아동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함<br>- 가족과 함께하는 남한사회 체험실시 |
| 집단 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개발 | 2개월 1회 | - 또래 남한아이들과의 대인관계 증진<br>- 6회 실시 | - 공동체의식의 중요성과 사회질서를 배운다. |
| | 심성개발 | 2개월 1회 | - 올바른 자아가치관 확립을 돕는다.<br>- 6회 실시 | -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 | 남한사회 이해하기 | 4월 9월 | -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실시<br>- 총2회실시<br>(경제교육, 정신교육) | -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
| 평가회 | 중간평가 | 6월 | -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br>-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정 | - 평가보고서 작성<br>- 다과시간을 마련하여 소감을 나누고 활동내용을 돌아본다. |
| | 종결평가 | 12월 | | |

#### 4) 평가방법

가) 양적 방법

①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실 인원 25명, 연 인원 2,500명을 목표인원으로 설정한다.

② 프로그램 실시 횟수

프로그램 시행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③ 학습 성적 향상정도 측정( 중간, 기말고사 성적을 측정함)

나) 질적 방법

① 프로그램 일지 분석

매회 프로그램실시 후 일지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② 심리검사를 통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다.

③ 학습능력검사 (지능검사 포함) 및 학습클리닉을 통한 질적 분석을 실시함

④ 개별 만족도 조사

종결 시 구성원의 소감내용 작성 및 기록·평가를 통해 목표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감문의 내용은 모임에서 느낀 점 및 소감, 프로그램별 활동에서 느낀 점 및 소감, 평가 및 제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자활/취업

### (1)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취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기반정착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협력체계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공공영역의 경우도 통일부를 비롯한 중앙의 역할과 시군구중심의 지방의 역할 구분과 연계가 필요하며, 민간영역의 경우도 지역 내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지역정신보건센터, 민간단체, 고용안정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자치단체(구, 동) 등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가구여건 등 사업시행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로 인정되었다.[13] 국가가 경제적 측면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체계로 전환되어지면서 자유, 탈 규제, 민영화, 유연화, 개방화의 성격을 강조하게 되고, 중앙정부 책임의 감소 경향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복지정책에 대한 시장 구조적 영향을 강화시키게 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적 책임은 약화되고 자활, 자조, 자립의 특성을 갖는 축소 지향적 복지정책 방향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실제로 국가 간 혹은 한 국가 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특히 국내적으로는 복지 대상자의 증가와 복지 확대의 욕구가 지속되는 상반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 영역은 과거의 소비적 제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데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는 2000년도에 도입된 공적부조의 영역의 자활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상태에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훈련, 능력에 맞는 각종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돕는 사업을 지칭한다. 또한 차상위 빈곤계층 중 장기실업상태에 있거나 심각한 고용불안 상태에 있어 훈련이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칭한다. 현재적 시점에서 한국의 빈곤정책은 노동 중심적인 복지개혁으로 빈곤층의 복지 의존적인 일방적 수급형태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자립자로서의 탈바꿈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대다수

[13] 조건제시유예자로는 5~6급 장애인, 도서벽지거주수급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자, 시험준비생, 직업훈련, 학원수강생 등이 있다.

빈곤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예외없이 적용되어진다. 이러한 자활사업의 체계들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체계 내에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또는 민간위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단위 정착을 위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자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단위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아직은 미비하며, 지역편차도 큰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원, 각 지자체의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기금재원 조성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 내 사회복지차원에서 생활보호수급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기본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연계하는 것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단독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한사회가 제공하는 지원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비로는 부족하지만은 않지만 이것이 사회진출 후 3년~5년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실직상태가 장기화되거나 낭비적인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정착금을 단시간에 소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비지원이 무상지원형태이거나 일시적이어서는 안되며, 자립할 수 있는 노동력 제공의 의무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하고 이는 남한생활의 장기적 적응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부분이라 할

[14] 지역 자활공동체 설립지원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전세점포사업(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 확보가 긴요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공동체, 사업단, 개인을 대상으로 기금에서 전세점포임대지원, 관할 시군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자활후견기관에 대여(2,000~10,000만원 범위 내) 전세권 설정) 등이 있다.

수 있다.

### (2) 자활/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을 제고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취업과 직접 연관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안정적인 취업이 사회적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의 프로그램 소개이다.

#### (가) 북한이탈주민 민간 취업지원사업 현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서비스는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되어진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관, 굿피플 대학, 선경직업전문학교 등을 들 수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취업프로그램들을 개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단체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괄적 소개를 하고자 한다.

**〈선경직업전문학교 도배반〉[15]**

선경직업전문학교는 2001년 9월 1일부터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2002년 12월 12일 영등포에 소재한 남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2005년 9월 현재 각종 컴퓨터 과정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 전문취업과정인 도배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

[15] 김화순, "북한이탈주민 도배훈련과정 학습자 분석" (미간행논문, 2005)에서 발췌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음.

### 1) 목적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진로지도, 취업창업 지원센터,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원스탑(total one-stop) 직업안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정착기관'을 지향한다.

### 2) 운영방법과 현황

가) 사업의 개요

① 사 업 명 : 선경직업전문학교 '도배기술교육'
② 설 립 일 : 1989년 11월
③ 직　　원 : 관리직 1명, 행정직 1명, 교사 5명, 계 7명
④ 작업장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4동 547-10

나) 교육일정 및 수료후 진로

2005년 9월 현재까지 이루어진 1, 2차(각각 오전, 오후반) 도배기술교육의 교육일정과 수료후 진로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시기 | 교육생 수 | 수료 후 진로 ('05. 7. 15 현재) |
|---|---|---|---|
| 1차<br>(오전반:<br>09:00~12:50) | 2004.11.29~4.29<br>(5개월간) | 17명 | 자격증 취득: 3명<br>취업: 3명 |
| 2차<br>(오후반:<br>14:00~18:50) | 2005.2.11~7.11<br>(5개월간) | 11명 | 자격증 취득: 2명<br>취업: 5명(도배: 4명, 타업종: 1명)<br>훈련: 2명(이상 타업종으로 재훈련) |

### 3) 평 가

선경직업전문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1, 2차 도배교육 평가 내용이다.

| 구 분 | 내 용 |
|---|---|
| 취업 전망 | • 남한 사람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현장 실무 종사자가 현저히 부족하여 주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br>(도배분야/레바리분야 → 개인사업지향/SOHO 창업 가능) |
| 협력 업체 | 대전합지, (주)삼중산업, (주)엔비켐, (주)미래착콜, (주)대동벽지 |
| 평 가 | • 초기 1, 2반 모집당시 3D 업종 근무 기피로 인하여 지원자가 미미하였으나 6월 현재 1반 수료후 취업결과 및 소문을 통하여 도배 신청자가 30명을 넘고 있음.<br>• 지원자 대부분이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노원, 송파, 강남, 인천, 부천, 안산, 군포 등) 거주자로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기 위한 허수가 아닌, 정착의지가 강한 실교육자<br>• 수료후 전원 도배 건설 시장 투입이 가능함. |

### (나) 취업관련 사업

#### <굿피플대학>[16]

1999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정서적 지원사업을 실시해오던 선한사람들은 2002년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 1) 설립목적

가)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 대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

나)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졸업생들을 통하여 급증하고 있는 자유이주민들의 건전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

[16] 굿피플대학에 대한 내용은 선한사람들 홈페이지의 굿피플대학 소개란 <http://www.goodpeople.or.kr/good2/good2_d.htm>과 김화순, 「북한 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 3년간의 직업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다) 자유이주민들의 남한사회적응과 자립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통일 시대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효과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 2) 교육내용

굿피플대학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해 인성교육, 생활상식을 포함한 지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 등 전인적 종합교육을 실시한다.

| 구 분 | 내 용 |
|---|---|
| 한국사회 기초 이론 | • 남북한의 정치·사회·인간·경제·역사관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 이해 심화 |
| 자기관리 능력 배양 | • 자립적 의지 강화와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대화기법과 대인관계 훈련, 자녀교육과 부부관계 회복 등 자기관리 및 대인관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 인성교육 | • 개인의 사고와 감정 속에 있는 죄책감, 수치심, 상실감, 슬픔,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아픈 기억에 대한 치유를 도모함으로써 전인적인 회복 돕기 |
| 경제교육 | • 자본주의 경제생활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은행, 부동산, 증권, 신용카드, 재테크 등 생활경제 전반에 대해 교육 |
| 취업전반 | • 이력서 작성법, 면접요령, 구직을 위한 자세 및 방법, 직장생활을 위한 의식교육 |
| 창업이론과 현장탐방을 통한 자립교육 | • 창업전반, 성공사례 강의, 현장탐방, 창업시뮬레이션, 현장실습 등 창업교육[17]을 통해 자립 능력 배양 |

[17] 굿피플대학은 자체의 특화교육으로 창업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이주민들을 위한 창업이론 교육과 현장탐방 및 창업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창업교육”을 실시, 교육과정을 특화하였다고 한다.

### 3) 운영방법과 과정

가) 사업의 개요

① 사 업 명 : 선한사람들 굿피플대학

② 참여인원 : 상근 직원 8명

③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번지 제2교육관 903호

④ 교육기간 및 교육생 수 : 10개월/ 50명 선발

나) 교육과정[18]

| 구분 | 단계 | 내용 |
|---|---|---|
| 남한 사회 경제전반의 이해와 적용 | 1단계 | • 사회적응교육<br>1) 자본주의 문화이해, 정보화 사회 이해<br>2) 생활규범 및 준법생활 안내교육 |
| | 2단계 | • 생활경제교육<br>1) 청약예금 등 금융 상품 이해, 각종 보험과 보상, 카드, 복권<br>2) 가계부 작성법 등 |
| | 3단계 | • 시민사회 지식함양 및 문화생활 교육<br>1) 시험 과제물, 클럽 활동을 통한 문화생활 교육<br>2) 봉사활동을 통한 시민생활교육: 장애인 봉사, 옥수수죽 시식회, 수해난민 구조활동 등 |
| 심리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 | 1단계 | • 자아정체성 확립교육<br>• 정신적 가치관 정립 및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한 인성교육 |
| | 2단계 | • 가정생활 교육<br>• 부부생활 및 자녀 교육 |
| | 3단계 | • 대인관계 능력 및 공동체 의식 개발<br>• 대인관계 능력 배양 교육<br>• 공동체에 대한 건전한 의식 교육<br>• 지도자에 대한 건전한 의식 교육 |
| 창업교육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협력) | 1단계 | • 창업기초교육 및 상권 분석 중심의 현장 탐방<br>• 창업성공사례 중심 교육<br>• 창업전문가를 통한 상권 분석 중심교육 |
| | 2단계 | • 창업실무 교육<br>•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한 창업실무교육<br>1) 창업조달방법, 점포계약법 등 시장조사서 및 사업계획서<br>2) 재무관리, 상호, 인테리어,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br>3) 업종별 현장 탐방 |

[18] 김화순, 「북한 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 3년 간의 직업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pp. 108~109.

| 구분 | 단계 | 내용 |
|---|---|---|
| 창업교육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협력) | 3단계 | • 창업인큐베이션<br>1) 창업방향지도<br>2) 창업현장 실습 및 아르바이트<br>3) 창업예비조 |
| 취업교육 (리쿠르트) | 1단계 | • 적성파악 |
| | 2단계 | • 취업조건 갖추기<br>1) 기술교육 실시<br>2) 취업기초교육 |
| | 3단계 | • 적성에 맞는 취업알선 및 사후 지도<br>1) 적성에 맞는 취업알선<br>2) 직장내 사후 지도 및 장기 근속 유도 |

* 취업반 클럽활동 (2003.10.19~11.30)[19]

| 날 짜 | 내 용 | 과 제 |
|---|---|---|
| 10. 12 | • 사장의 마음 알아보기<br>- 이력서 고르기<br>- 나의 보유능력과 그로 인한 성과 | 취업할 업종정하기 |
| 10. 19 | • 나의 능력을 보여주자<br><복습><br>업무능력 중심의 이력서 작성의 중요성<br><이번 주의 내용><br>- 취업할 업종에 대해 설명하기 (짝에게 설명하기)<br>- 내가 취업할 업종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br>- 나의 보유능력 한 문장으로 말하기(이로 인한 구체적인 성과) | 이력서 쓰기(1)<br>(핵심역량과 부차적 역량)<br>이력서 제출 |
| 10. 26 | • 남한 사람들의 마음 알아보기<br>- 도입: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통해 본 남한 사람들의 인식<br>- 두 종류의 이력서-탈북자임을 밝히지 않은 이력서 써보기<br>- 자기소개서 견본 읽고 느낌 나누기 | 이력서 쓰기(2) |
| 11. 9 | • 자기소개서 쓰기<br>- 도입: 5분간 자기 자랑 써보기<br>- 자신의 강점 알기<br>- 북한사람이라는 걸림돌 극복하기 | 자기소개서 쓰기 |
| 11. 30 | • 모의면접에 앞서 개인작업 | 이력서 완성<br>자기소개서 완성 |

[19] 위의 논문, p. 110을 재구성

### (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사업

취업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대표적 단체는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이다. 후원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단 체 명 | 사 업 명 | 소재지 | 연도 |
|---|---|---|---|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 북한이탈주민의 '새날열기' | 부산 동구 | 2003 |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지역사회 정착가이드 프로그램개발 | 서울 종로구 | |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 정착지원 및 경제자립 교육 | 부산 동구 | 2004 |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 북한이탈주민 취업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열기' | 부산 동구 | 2005 |
| 상리종합사회복지관 | 멘토링 기법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부산 영도구 | |
|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북한이탈주민 취업프로그램 | 서울 종로구 | |
|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 | 부산 사하구 | |

### (라)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현황

자활후견기관은 19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창업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7월부터 자활후견기관이 설립되게 되었다. 자활창업지원사업의 실시 배경은 '생산적 복지' 즉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참여복지'에 근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자활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1999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 초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일체 조사가 들어갔다.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 대한 차등지원제도로서 획일적인 지급이 아니라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과 자활을 유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1년이 지나면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2005년도 자활사업안내'에 따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240여개 자활후견기관 중 다음의 3곳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실시중에 있다.

| 단 체 명 | 사 업 명 | 소재지 | 연도 |
|---|---|---|---|
| 송파자활후견기관 | 천연 물들임 사업단 | 서울 송파구 | 2005 |
| 수원우만자활후견기관 | 청소사업단 | 수원 우만동 | |
| 동해자활후견기관 | 간병사업단 | 동해시 | |

위의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자활과 관련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을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솜씨자랑(천연물드림)사업단〉[20]**

**1) 목적**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특례자 등 사업참여자 개개인의 근로의지와 욕구, 능력에 따라 맞춤식형태의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진출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향후 자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가) 소양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의지를 함양한다.

나)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다) 시장발굴 및 유료판매를 통해 고수익을 발생시켜 자활공동체 설립의 기틀을 마련한다.

라) 민주적인 조합운영방식의 사업단운영으로 소속감을 향상시킨다.

마)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정서적, 사회적 자립을 도모한다.

---

[20] 송파자활후견기관의 사업내용을 재정리하였다.

### 2) 목표

가) 다양한 공예 기능의 습득으로 개인별 자활의 토대를 마련한다.
나)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이디어 상품 개발을 강화한다.
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익성 강화를 위해 개인별, 그룹별 전문가의 특별 지도 강습.
라) 제품홍보 및 다양한 판로 개척(매장, 인터넷, 벼룩시장...)
마) 공동체 창업을 위하여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해 팀웍 개발을 위한 워크샵, 협동조합교육 및 다양한 정서적, 문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함.

### 3) 개념과 필요성

가) 개념

참여자들이 자신감과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은 물론 근로의욕 고취 및 회원간 협동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초 소양교육, 기술교육, 사례관리 등 관리 업무와 더불어 자연에서 존재하는 동·식물 및 광물을 염료로 이용하는 천연염료는 환경친화, 인체유익, 아름다운 색 등의 장점이 있어, 천연염색으로 제품 만들어 사용할 경우 향균, 방충, 방습, 방부, 소취, 항알레르기 등 인체친화적인 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는 환경 친화적 사업으로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생활 속에서 실현함으로써 참여자들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

나) 필요성

첫째,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파견사업이나 용역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경우가 많아 개인별 상태에 따른 약한 노동으로 근로능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며 수공예(천연염료를

사용한 다양한 제품만들기) 사업은 건강이 취약한 조건부 수급자도 성실함과 끈기만 있으면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다.

둘째, 조건부 수급자들의 80%이상이 모자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소자본으로 창업을 위한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다.

넷째, 참여자가 직접 전문적인 제작 기술을 익히는 것과 함께 시장조사, 재료의 구입, 제품의 개발, 제작, 판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을 하여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섯째, 요즈음 천연염색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천연염색이 시도되고 있어 조만간 패션 소재 부분에서 천연 염색의 비중은 점차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운영방법과 과정

가) 사업의 개요

① 사 업 명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천연물드림'
② 참여인원 : 총 7명
③ 사업참여대상 및 자격 : 수급자 및 차상위 중 근로의욕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상담 및 면접을 통하여 선정한다.
④ 작업장소재지 :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06-5번지 지하
⑤ 근무시간 : 주5일 근무제(일일 8시간)

나) 세부사업 및 교육일정

서울 송파자활후견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의욕 및 자존감 고취를 위하여 생산적 사회복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

① 세부사업

| 구분 | 시기 | 내용 |
|---|---|---|
| 준비기 | 3~4월 | • 사업계획 및 방향에 대한 공유<br>• 홍보 모집<br>• 자활교육<br>• 유사 업종에 대한 기관방문<br>• 기술교육을 위한 시장 조사 |
| 추진기 | 3~12월 | • 소양 교육<br>– 자활근로의 이해<br>– 근로의식 고취<br>– 성공에 대한 동기 부여<br>– 자존감 향상<br>• 팀웍 강화<br>• 강사 섭외<br>• 기술교육(이론 및 실기)<br>※ 천연염색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공예<br>(천연염색, 퀼트, 홈패션, 구슬공예, 종이공예, 십자수...)<br>• 공동체 훈련<br>– 회원간 상호이해의 기회증진<br>– 사업단별 팀웍강화<br>– 대화법 훈련<br>• 심리사회지원사업<br>– 상담사업<br>– 사례관리를 통한 one-stop service 제공<br>– 개별상담을 통한 정서적인 지지강화<br>– 직업상담을 통한 진로개척 및 개발<br>• 가정기능 강화지원 사업<br>– 회원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보육<br>사업 무료 참여지원<br>– 회원의 자녀를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지원<br>– 학업지도 자원봉사자 결연<br>– 후원금(품) 제공<br>– 결연사업 |

② 교육훈련일정

| 구분 | 기간 | 내용 |
|---|---|---|
| 초기교육 | 3월 | • 공예사업단의 운영원칙<br>• 비젼에 대한 논의와 공유<br>• 사업 참여조건에 대한 공유와 계약<br>• 안정된 팀웍을 위한 인간관계 훈련<br>• 개인의 상황과 자활에 대한 욕구에 대해 공유 및 나눔 |
| 기술교육 | 상시 | • 자활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이해<br>• 신규참여자에 대한 내부 교육 시스템에 의한 기능교육 실시<br>• 아이템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수공예 협회와 문화센터의 공예강좌 등 상시 수강을 통한 위탁교육 실시<br>•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
| 소양교육 (공동체 훈련) | 월1회 정기적 교육 및 기획교육 | • 공동체 의식향상과 팀웍 개발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훈련, 회의진행 훈련, 살아온 이야기 공유 등 기본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실시<br>• 실질적인 매장 창업형 공동체 운영의 사례 알아보기 위한 소규모 매장을 탐방하기 00자활 및 00자활<br>• 협동조합 교육 실시 공동체창업을 위한 타 사업단 및 서울 지부와 연합하여 시행 주민운동정보 교육원 등에 의뢰하여 위탁 실시 |

③ 수익성 확보 방안(전망)

| 구분 | 기간 | 내용 |
|---|---|---|
| 기획판매 | 상시 | • 구청 등 공공기관 판매 섭외<br>• 각종 거리축제, 대학축제, 알뜰시장 등에 대해 기획 판매함. |
| 쇼핑몰 판매 | 개발 | • 인터넷 쇼핑몰 구축해 온라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함. |
| 매장구축 | 개발 | • 소규모 공방형태의 매장을 구축하여 판매 및 교습함. |
| 강사활동 | 상시 | • 지역의 초중고 방과후 특별활동 강사 및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섭외하고 홍보함.<br>• 아파트 단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4~5인 정도 소규모 그룹 교습이 가능하도록 함. |

### 5) 평 가

| 구 분 | 계량적 평가 | 질 적 평 가 |
|---|---|---|
| 평가지표 | - 천연물드림<br>- 월 2회 연 1,491명 | • 진행과정평가<br>• 목표평가<br>1) 소양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의지를 함양한다.<br>2)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br>3) 시장발굴 및 유료판매를 통해 고수익을 발생시켜 자활공동체 설립의 기틀을 마련한다.<br>4) 민주적인 조합운영방식의 사업단운영으로 소속감을 향상시킨다.<br>5)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정서적, 사회적 자립을 도모한다.<br>6) 특정지역을 선정 무료 배포하여 환경청결하게 한다. |
| 평가도구 | 사업실시횟수 및 인원 | • 사업진행과정의 효과성·효율성<br>• 대상자들의 만족도 |
| 평가방법 | • 프로그램일지<br>• 목표량 대비 실적 달성율 | • 과정기록서(결과 보고서)<br>• 만족도 조사 설문지 |

### 6) 기대효과

가) 소양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

나) 지속적인 일자리의 안정적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다) 시장발굴 및 유료판매를 통해 고수익을 발생시켜 자활공동체 설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라) 민주적인 조합운영방식의 사업단운영으로 소속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정서적, 사회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 7) 북한이탈주민의 참여과정의 평가

가) 참여과정에 개방적이지 않음.

- 거여동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수학선생님이었다고 들었음.(본인은 일체 말을 하지 않음.)
- 자신을 오픈하지 않음.

나)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음.

- 공동체의 다른 참여자에 비해 성실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일이 주어지면 책임감 있게 하고 있음.

다) 보이는 데서는 잘 하는데 안 보이는 데서는 안하려는 경향이 있음.

- 사무실에 나오는 것은 잘 나오는데 다른데로 교육을 갈려치면 다른데로 빠져 버림.
- 7월 15일 그러나 창업관련 교육을 근처 복지관에서 있다기에 보냈는데 12시정도에 돌아 왔음. 처음에는 교육이 끝나고 온 것처럼 하더니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차가 많이 지니까 찾느라고 힘들어 교육에 참가하지 못하고 걸어서 오느라고 늦었다고 하였음.
- 7월 20일 노인복지회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가 하도록 했는데 인솔자 없이 가도록 하였음. 그러나 연락도 없이 참여하지 않았음.
-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함.

### 8) 자활후견기관의 활용방안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사회로 나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회와 다른 점이 많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이 다른 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혀야 서

로 부작용이 덜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느끼는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이 있다면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기업이 잘 되어야 국가가 성장한다는 것까지 이해하기는 아직은 무리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신의 노동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노력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동기 유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 자활후견기관과 연계된다면 큰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일부에서 1인당 1억 원의 창업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들이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하여, 기존의 사업과 관련된 활용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즉 1억 원의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걸로 전세점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때 점포명의는 통일부에서 얻어주고(창업 자금으로 돌려주었을 경우 다시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아직 이들에게는 융자를 받아서 갚아야 한다는 개념이 약함.) 점포장소도 통일부에서 마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시작될 경우 일당의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전액이 지원되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적립을 하게 된다. 적립금은 참여자들이 자립 또는 창업을 할 때 장소임대비용이나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서울시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체로 나갈 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융자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으나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융자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이들이 더 많은 적립을 하여 자기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자신들이 일하여 얻을 수익금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쓰여 진다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적립금으로 삶터를 마련한다면 그때 융자금은 되돌려 받는 것으로 한다. 점포나 이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가능하다면 자활후견

기관에서는 사례관리와 소양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전문가를 통하여 실시가 가능하다. 그에 따른 비용은 자활근로사업비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들이 교육을 받고 물품을 생산할 경우 판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이 되어지는 물품들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물품을 만들어도 순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그래서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함께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노력과 사례들이 세부적으로 적용 및 활용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기초적 토대가 가능할 수 있다.

### (마) 직업탐색활동 및 취업알선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정착 초기 단계에서 각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 및 이해부족과 관련 기술 및 지식 부족으로 인해 취업활동에서의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착초기의 취업관련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능력과 희망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야에 대한 취업체험 방식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 단 체 명 | 사 업 명 | 소재지 | 연도 |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체험학습 | 전국 | 2005 |
| 공릉사회복지관 | 자활육성사업 | 서울 노원구 | |
| 공릉사회복지관 | 진로 가이드 프로그램<br>취업관련 용어 및 언어교육프로그램 | 서울 노원구 | |
| 가양7사회복지관 |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one-stop<br>『취업 지원센터』 | 서울 강서구 | |
| 공릉사회복지관 | 탈북여성을 위한 직업탐색 프로그램 | 서울노원구 | |

위의 프로그램중 대표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및 공릉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one-stop『취업 지원센터』>[21]

#### 1) 목적 및 목표

가) 목 적

취업 지원센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중 무직, 실직 및 사회부적응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자존감 향상과 취업의욕 향상, 취업관련 정보 제공, 취업을 목표로 전문 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응력 향상 및 자립, 자활 의지 강화와 경제적인 안정과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한다.

나) 목 표

목표 1. 북한이탈주민에게 구직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인 자립, 자활을 도모한다.

세부목표 1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one-stop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 시킨다.

세부목표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여러 유관기관, 구인업체, 개인과의 Net-Work을 형성시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한다.

목표 2. 취업관련 교육의 참여유도로 취업의욕 고취시킨다.

세부목표 1 다양한 직업훈련의 참여기회 확대와 개별상담을 통

[21]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재정리하였다.

하여 취업의지를 향상시키고 남한사회적응 및 경제적 위기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유도한다.

목표 3. 취업 사전,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심리적, 경제적 자립의지를 도모한다.

### 2) 중요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률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다. 체계적으로 이질감을 지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취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할 지역 내 취업지원센타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며,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용방법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입국 후 이질감과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자아 통제감이 미흡하고, 취업활동에 대한 좌절로 인한 의지가 부족하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생활 만족도 낮으며,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심리적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취업 후에도 남한사회생활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올바른 직업관과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 시 된다.

### 3) 운영방법과 내용

가)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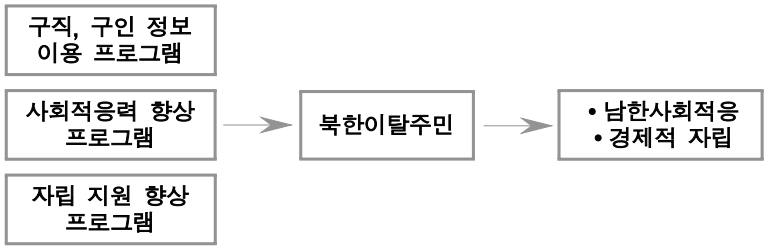
① 사업명 :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one-stop『취업 지원센터』

②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1481

③ 담당인력 :

| 이름 | 담당부서 및 직위 | 경력(년) | 신청사업담당역할 | 할당 시간 |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
|---|---|---|---|---|---|
| ○○○ | 복지관 관장 | 사회복지관 실무경력 20년 | 프로그램전체 지도, 감독 | 주 2시간 | 사회복지사 1급 |
| ○○○ | 프로그램 (경제교육) 자문교수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SUPERVISOR | 월 2시간 | 사회복지사 1급 |
| ○○○ | 프로그램 자문교수 | 한겨레심리상담센터 소장 | SUPERVISOR<br>케이스 심리상담 | 월 2시간 | 심리상담가 |
| ○○○ | 본관 재가복지 과장 | 실무경력 7년 | - 프로그램 실무운영<br>- 대상자 개발 상담 및 케이스 사후관리<br>- 인적·물적자원 개발 및 연계<br>- 지역 네트웍 구축 및 운영관리 | 주 10시간 | 사회복지사 1급 |
| ○○○ | 본관 사회복지사 | 실무경력 4년 | - 프로그램 실무운영<br>- 대상자 개발 상담 및 케이스 사후관리<br>- 인적·물적자원 개발 및 연계<br>- 지역 네트웍 구축 및 운영관리 | 주 25시간 | 사회복지사 1급 |
| 사업연계인력 (단체) | 복지관이 소속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선한사람들, 하나원 등『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소속회원 단체 및 강서구 내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공무원, 민간단체, 부녀회 등과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연계 | | | | |

나) 운영방법




### 4) 세부프로그램 내용

| 사 업 명 | 세부 사업명 | 내 용 |
|---|---|---|
| 케이스 관리 | | • 정기·비정기적인 케이스별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남한생활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처리, 이질감 등에 대한 개별·집단상담 실시<br>- 일 정 : 수시<br>- 수행인력 : 담당 사회복지사 상담 연구원<br>- 사업목표 : 연간 120명을 대상으로 초기 및 재 상담을 240회 실시<br>- 상담내용 : 의료상담, 가정상담, 자녀상담, 취업상담, 교육상담 등 |
|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 그램 |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능교육 서비스지원 |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기능교육(컴퓨터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나아가 남한사회 부적응의 세습화, 고착화를 방지<br>- 일 정 : 수시<br>- 수행인력 : 담당 사회복지사, 기능교육·학습지도 강사 (자원봉사자 또는 전문강사)<br>- 사업목표 : 연간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2,000회 제공한다.<br>-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성인 컴퓨터·한국어 교육등의 학습 및 기능교육 |
| |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 사회이해 적응교육 프로그램<br>- 일 정 : 분기 실시<br>- 수행인력 : 담당 사회복지사, 상담원<br>- 사업목표 : 신규 전입세대를 중심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br>- 사업내용 : 남한사회의 이해와 생활시설, 문화시설 이용안내 |

| 사 업 명 | 세부 사업명 | 내 용 |
|---|---|---|
| 경제적 안정 지원 프로그램 | 물품지원 서비스 |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기, 비정기적으로 가정에 필요한 후원물품은 물론 생활 필수품 제공<br>- 일 정 : 수시<br>- 수행인력 : 담당 사회복지사,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 (후원담당)<br>- 사업목표 : 연간 4회(분기별) 60가구에 물품지원을 실시한다.<br>- 지원내용 : 생필품 지원, 화장품 지원, 의류 지원, 부식 지원, 미곡 지원, 의료 장비 지원 등 |
| | 영·유아 보육 서비스 | •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가정 중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해 보육서비스(제반경비지원 포함)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부모의 경제활동을 유도<br>- 일 정 : 수시<br>- 수행인력 : 담당 사회복지사<br>- 사업목표 : 연간 5명에게 720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br>- 지원내용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입소지원 및 제반경비 지원 |
| 자립·자활 지원 프로그램 | 직업알선 서비스 | •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이 요망되는 관리대상상자에게 인적자원, 각종 취업정보자를 활용하여 취업 정보제공 및 취업처를 알선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br>- 일 정 : 수시<br>- 수행인력 : 담당 사회복지사 및 본관 취업알선 담당자<br>- 사업내용 : 구직처 개발 및 알선<br>- 사업목표 : 연간 30명 |
| | 구인, 구직자의 만남의 밤 | • 취업 희망자에게 채용기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br>- 일 정 : 10월(연1회)<br>- 수행인력 : 담당사회복지사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취업담당자<br>- 사업내용 : 구직처 개발 및 알선, 채용기회의 확대<br>- 사업목표 : 200명 |
| | 창업지원 | • 창업희망자, 고령자 및 취업능력 미약자, 재취업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소자본 창업에 관련된 장비 지원<br>- 일 정 : 수시<br>- 수행인력 : 담당사회복지사 및 취업알선 담당자<br>- 사업목표 : 연간 10명에게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취업교육 | •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교육 및 취업을 위한 제반교육을 지원<br>- 일 정 : 수시<br>- 수행인력 : 담당사회복지사<br>- 사업내용 : 한식·양식·일식·중식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제과·제빵사 자격증 취득, 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지원 등 취업 관련 전반적인 교육 지원<br>- 수행인력 : 담당사회복지사<br>- 사업목표 : 연간 10명에게 300회의 취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사회 지원 단체 연계 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 Net-work 사업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종교단체, 민간단체, 유관단체, 지역주민 단체(부녀회, 적십자) 등과 Net-work 사업실시<br>- 일 정 : 3월 / 7월 / 11월<br>- 수행인력 : 담당 사회복지사<br>-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지원을 위한 간담회, 월례회, 지원모임 구성 및 운영 등 관련자의 지원모임 구성 및 운영<br>- 사업목표 : 연간 3회 / 45명의 간담회 실시 |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위한 직업탐색 프로그램>[22]**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과정을 돕기 위해 2001년부터 2005년 9월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1) 목적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위한 직업탐색 프로그램'은 노원구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관련 욕구를 파악하고, 특히 북한이탈여성이 선호하는 취업영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이후에 구체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2) 운영방법과 과정

가) 개요

① 사 업 명 : 공릉복지관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위한 직업탐색 프로그램

② 참여인원 : 전담 사회복지사 3명, 파트타임 2명, 사회복지 전공실습생, 자원봉사자 30여명 등

③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3동 708번지 공릉3동사무소 다목적실

나) 프로그램 일정

| 시 간 | 7월 20일 (2층 다목적방) | 7월 21일 (3층 소회의실) |
|---|---|---|
| 10시~11시 | 교육일정 안내 및 자기소개 | 자기 성장의 시간 ② |
| 11시~12시 | 다양한 직업에 대한 안내 | 나의 직업흥미 탐색 ② |
| 12시~13시 | 점심식사 및 휴식 | |
| 13시~14시 | 자기 성장의 시간 ① | 전문 직업인 초청 간담회 |
| 14시~15시 | 나의 직업흥미 탐색 ① | 비전 세우기 |

[22]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재정리하였다.

다) 참석자 수 : 평균 7명 참석(20일 8명, 21일 6명)

### 3) 평 가

| 구 분 | 내용 |
|---|---|
| 프로그램 기획 (목적)의 적절성 | • 처음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는 북한이탈여성이 선호하는 2~3개의 직종에 한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교육(산모도우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각 직종으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음.<br>•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탈여성들의 취업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직종의 직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하였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최소 3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후에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파악하여 본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게 되었음. |
| 준비 단계 | (1) 프로그램 기획 및 대상자 모집<br>•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원구 내에 있는 여성취업 지원 관련 기관들의 현재 교육일정 및 취업연계 현황들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유료 직업알선업체들의 사이트를 분석하여 여성이 주로 많이 취업하는 분야의 직업과 평균 임금수준을 파악하여 자료로 정리하였음.<br>• 또한 STRONG 직업흥미검사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흥미에 대해 분석해줌으로써 본인의 욕구와 흥미, 그리고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한 취업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여 구체적인 취업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구상<br>• 본 프로그램에 참석이 가능한 대상은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북한이탈여성으로 정하였으며, 대상자 모집을 위해 우편물 발송, 전화, 동사무소 공문발송을 통한 대상자 의뢰 등의 방법 활용<br>(2) 프로그램 준비<br>① 프로그램 계획<br>•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평상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욕구에 부합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현실적인 취업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방식으로 본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제작<br>• 뿐만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실제로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초청하여 함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취업현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획<br>② 프로그램 준비<br>a. 명단 확보 및 전화<br>• 취업이 가능한 연령대의 북한이탈여성의 명단을 노원구청으로부터 확보하여 전수 우편발송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주민 중에서 취업욕구를 표현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본 프로그램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br>• 그리고 최종적으로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 전화연락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음. 이에 당일날 본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는 총 8명 |

| 구 분 | 내용 |
|---|---|
| | b. 자료집 제작<br>•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의 내용의 방향을 잡으면서 자료들을 모았고 주된 내용은 북한이탈여성이 선호하는 직업 중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순 노무직과 관련한 직종을 중심으로 그 직업에 대한 업무내용, 필요한 교육 및 자격증, 임금수준 및 업무시간 등을 정리<br>• 그 외의 자기존중 프로그램 및 직업흥미검사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료들은 기존에 복지관에서 자활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직업흥미검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필검사로 실시하여 둘째날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였음.<br>c. 프로그램실 준비 및 식사장소 물색, 만족도 평가 설문지 작성<br>• 본 복지관의 운영일정상 집단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장소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복지관 인근의 공릉3동사무소의 소회의실을 빌렸음. * 이 장소는 10~15명의 소집단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한 장소임.<br>• 그리고 식사장소는 본 복지관의 인근에 위치한 식당으로 잡아서 이동이 간편하게 하였으며 각자가 메뉴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였음.<br>•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만족도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각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프로그램 실시 결과 | • 본 프로그램은 20일날 8명, 21일날 6명으로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자신의 남한생활에서 경험한 직업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떤 직업을 잡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음.<br>• 각 프로그램별 실시결과 및 대상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br>• 자기소개 및 여성 직업관련 정보제공 – 취업프로그램의 첫날 첫 시간에 참석자가 자신의 북한/남한에서의 취업경험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취업프로그램 기간 동안 어떤 기대로 참여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음.<br>– 그리고 아울러 여성의 단순노무직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이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취업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었음.<br>• 직업흥미검사 및 해석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직업흥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관하여 현실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STRONG 직업흥미검사를 실시하였음.<br>– 북한이탈여성들은 처음에는 직업흥미검사의 문항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였으나 지필검사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각 문항에 관하여 설명해줌으로써 정확한 결과 유도<br>– 검사결과와 대상자들이 막연하게 희망하는 직업, 그리고 과거 북한에서의 직업과 현재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상자들에 대해 결과를 해석해 주었으며, 대상자들은 이 결과에 만족을 느꼈음.<br>• 전문직업인 초청 간담회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들이 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가사도우미·산모도우미 직종에 종사하는 남한 여성분을 강사로 모셔서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사전에 주의사항, 직업의 특성 및 보람 등을 나누고 솔직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시간이었음.<br>– 북한이탈여성분들은 이 직종을 생각하면서도 '남한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과연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맞추며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 |

| 구 분 | 내용 |
|---|---|
| 프로그램 실시 결과 | • 직업훈련기관 방문 – 여성 대상의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기관인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를 방문하여 직업훈련 강좌가 진행되는 강의실을 모두 둘러보고, 각 교육내용을 직접 보면서 북한이탈여성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음.<br>– 북한이탈여성들은 각 교육프로그램이 북한에서 본인들이 경험한 내용과 같고 다른 정도를 비교해보기도 하였으며, 현실적인 취업과 연관지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있는가를 따져보기도 하였음.<br>– 교육장을 둘러본 뒤에는 여성발전센터의 취업상담실에 구직등록을 하고 간단한 상담과정을 거쳐 추후에 일용직 취업처가 들어왔을 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마련하였음. |
| 문제점 |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는 단순히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취업과 연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음.<br>– 때문에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음.<br>•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이 진출하기 원하는 직종들은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요한 영역도 있었는데, 북한이탈여성들 자신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청소일이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이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연계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음.<br>•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및 제3국 체류과정에서 체득된 탈북주민들의 심리적인 왜곡과 편견, 상이한 문화적 특성들이 남한주민과 직접 부딪힐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마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취업과 관련되어 발생될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음.<br>•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며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에이~'라는 말하면서 불쾌한 심정을 바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였음.<br>–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에서 던진 질문의 내용에 응답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의견의 조율이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음.<br>–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습관화된 집체주의 사상교육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 방식의 '교육'에 수동적/순응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본 프로그램같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집단 프로그램과 같은 분위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음.<br>• 본 담당자는 이번 프로그램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을 느꼈으며, 이러한 점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현장에서 남한 주민들과 섞여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음.<br>•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인성적인 부분의 안정과 적응, 그리고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자신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이러한 측면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취업준비를 위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됨. |
| Follow-up | • 본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서울 북부여성발전센터 및 서울 북부 실업자사업단에 구직등록을 하여 가사도우미, 아기돌보기, 건물청소 등의 일이 들어올 때마다 직접 연계되어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br>•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때마다 우선적으로 이 북한이탈주민들과 공유하여 실질적인 취업을 유지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 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 (1) 필요성

인간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적응의 문제를 갖게 된다. 특히 적응의 문제는 기존 사회와 새로운 사회의 단절 수준, 단절의 자발성과 강제성, 이질성 수준, 새로운 사회의 수용성 여부 등에 따라서 그 심각성이 결정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질적인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해야할 조건을 갖고 있다. 이들의 탈북과 한국으로의 입국은 기존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은 물론이고 자신의 재산과 경험, 기술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거주시에는 물론이고 탈북과 제3국 체류과정에서 대부분이 공포와 신변불안, 체포와 강제송환, 고문과 구금 등의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한 후 신변 안전은 보장받지만 낯선 남한 땅에서 새 삶을 꾸리는 과정에서 경제적 곤란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함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사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국내 입국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회 적응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성공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해 온 심리 상담 서비스를 보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신규 심리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소,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에서 수용 생활을 경험했거나, 탈북 및 송환과정에서 중국과 북한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적·신체적 증상들을 표출하여 적정한 지원 서비스가 요구되는 인원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23] 그러나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24]로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적응 조사 자료는 매우 미비되어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또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거주시 또는 탈북 및 송환과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도 현재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심리상담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남한사회 성공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서비스 프로그램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극복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프로그램의 운영상 문제점 및 보안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 (2) 심리상담 및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가) 심리 상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독립적

---

[23] 전우택, 윤덕룡,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4). 저자에 따르면 국내 거주 북한이주민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비율이 29.5%, 우울증 16%, 수면장애와 두통 및 식용상실 등의 기타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24.5%에 달한다고 한다.

[2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란 인간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파국적·압도적 스트레스'로 인한 병리 현상으로,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주로 전쟁, 고문, 강간, 목숨위협 등으로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인 스트레스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붕괴, 대구 가스폭발 참사 등에서 부상자, 사망자, 가족, 자원봉사자 가운데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인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체계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지 못한 측면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유형화하고 대표적인 운영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상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후원회 사무소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상담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명 | 상담실 운영 |
|---|---|
| 단체명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내 종합생활상담센터 |
| 단체소개 |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1999년 5월18일 종합생활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상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개소 이후 접수된 상담은 수 천 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취업 및 창업 관련 상담이지만 점점 교육, 가족, 법률문제, 자매결연 요청 등 일상생활안정에 관련한 상담이 늘고 있다. |
| 프로그램 목적 | • 북한이탈주민의 각종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br>• 분야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적극 연대<br>• 상담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파악을 통해 지원 방향 수립 |
| 프로그램 내용 | 상담센터 개소 이후 일상생활관련 상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취업 및 창업 상담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자 해도 생활안정 및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지속성을 얻기 힘들고 계속적인 가족입국사례 증가로 가족내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r>주요 상담내용은 자매결연 희망, 교육관련 지도, 가족내 문제, 심리·정서적 불안, 법률적 문제, 건강상의 이유 등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한 상담이 40%정도를 차지하며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 프로그램명 | 상담실 운영 |
|---|---|
| 기대효과 | 주택, 교육, 의료, 기초생활 등 생활안정 지원제도에 의한 문의는 제도안내 및 처리기관을 연결하고 자매결연 및 장학부분은 지원단체 및 이북도민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거나 후원회 자문변호사를 연계하여 해결하고 있다.<br>또한 최근 가족입국사례의 증가로 가족내 문제, 즉 부부갈등 및 자녀문제 상담이 늘고 있다. 내담자의 요구가 있다면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거나 전문기관 및 민간기관들의 자원과 서비스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담 서비스는 주로 사례관리와 가족지원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 중 지방 지역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던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상담 서비스 분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명 |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
|---|---|
| 단체명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
| 단체소개 |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구조 기능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내의 저소득 시민의 가정과 사회의 제반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 검토하여 해결하는데 노력함은 물론 가정과 사회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복지관을 통한 자조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 프로그램 목적 | 북한이탈주민 중 부산 정착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 및 정서지지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체제적,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남북간 이질감을 줄임으로써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프로그램 내용 | 개별상담과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도모 및 소외감 해소.<br>* 개별상담 :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개인상담 및 가족문제 상담, 취업 상담 등.<br>* 자원봉사자 연결 : 1:1로 남한주민과 결연을 맺어 매주 1회 만나 사회적응 및 문화체험활동을 함께 한다. |
| 기대효과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 운용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별상담과 자원봉사자 연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지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기관방문 상담활동>**

북한이탈주민이 전문 상담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통신을 이용한 적극적인 상담요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사회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이들의 교육시설이나 거주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간접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인권과 난민문제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학습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직접적인 상담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거가 전문적인 상담활동은 아니지만 입국 초기단계에서 이들의 교육 및 거

주시설을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관방문형 상담사례로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명 | 국내봉사활동 |
|---|---|
| 단체명 | 북한인권시민연합 |
| 단체소개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한국에 들어온 북한동포의 사회적응 지원활동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 정기적으로 국내 탈북동포의 가정과 수용시설을 방문, 상담과 학습지도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문제·국내외 북한난민문제에 관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 프로그램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뜻을 가진 대학(원)생과 성인들에게 자원봉사정신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현황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을 전문적 자원봉사자로서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특히 청소년에게 상담과 학습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프로그램 내용 | • 가정방문 학습지도 프로그램<br>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국어·영어·수학·컴퓨터와 그 외 취약과목을 주1회 이상 지도하고 있다.<br>• 하나원 토요방문 프로그램<br>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해 교육·오락 프로그램을 실시해 아동·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이외에도 여성 프로그램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br>• 하나되는 나들이<br>가정방문 학습지도 팀과 1:1로 결연되어 학습, 생활지도를 받고 있는 탈북 아동·청소년들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두 달에 한 번씩, 고궁, 박물관, 과학관, 전시회, 놀이동산 등을 방문하여 현장 학습 및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한겨레 계절학교<br>1월과 8월 방학기간을 이용한 3주 동안 현직교사와 자원봉사자가 기초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전국의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탈북 청소년들과 합숙하며 이들의 기초과목 지도와 특별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 |
| 기대효과 |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활동은 상담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국 초기단계에서 직접 방문형식으로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담활동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상담>**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 조사를 마치면 통일부 운영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성공적인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강사, 그리고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입국 초기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불안,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하나원은 심리상담 전문직원 2인이 상설적인 생활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대한 검사와 진단, 그리고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원 생활상담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진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기관이다. 하나원 생활상담실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명 | 하나원 생활상담 |
|---|---|
| 단체명 | 하나원 내 생활상담실 |
| 단체소개 |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통일부 운영기관으로 이곳 생활 상담실에서는 관계 기관의 합동신문이 끝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충 등에 관한 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 프로그램 목적 | 하나원 생활상담실 운영은 하나원 생활기간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불안, 충격적 경험에 대한 심리적 치료, 그리고 퇴소 후 지속적인 심리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
| 프로그램 내용 | • 심리검사와 해석, 진단<br>1. 성격검사 등 전문화된 검사 실시<br>2. 전문인력에 의한 해석과 진단<br><br>• 상담형식에 따른 분류<br>1. 개인상담 : PTSD, 자살, 낙태 등의 위기개입<br>정서안정과 적응을 위한 단기/장기 상담<br>2. 집단상담 : 심성수련(전체 대상으로 지원)<br>기타 상담서비스(선택형 소그룹 활동 지원)<br>3. 가족상담 : 역기능 가족 문제해결<br>4. 부부상담 : (예비) 커플 및 이성문제<br>5. 전화 및 인터넷 상담 : 수료 후 사후 상담 |

| 프로그램명 | 하나원 생활상담 |
|---|---|
| 프로그램 효과 | 하나원 생활상담실은 교육생의 쉼터로서의 기능과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망 구축, 전문 연구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생활기간 심리적 안정은 물론이고 심리치료 서비스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아 초기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심리 강의>**

하나원은 생활상담실 운영과 함께 3개월 교육과정 중 10~20% 정도를 심리안정과 정서순화 프로그램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나원 심리 및 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은 하나원 심리 전문강사와 외부 전문인력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심리 및 정서안정 관련 강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요한 심리상담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 프로그램명 |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심리 강의 |
|---|---|
| 단체명 | 하나원 심리 교육 프로그램 |
| 단체소개 | 하나원 심리 및 정서안정 교과목은 하나원 전체 교과운영 계획과 교육 프로그램 편성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3개월 교육과정 중 40여 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원내 심리상담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다. |
| 프로그램 목적 |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중 심리안정과 정서순화 교과목을 편성하여 전문가 진행으로 운용하는 목적은 초기 입국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상태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며, 더불어 이들의 심리적 안정은 하나원 교육은 물론이고 사회적응의 기본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
| 프로그램 내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중 직접적인 심리관련 강의는 38시간이며, 7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br>1. 성격의 이해(2시간) - 심리교육 필요성 안내, 심리검사, 심리변화 안내<br>2. 마음 가꾸기1(14시간) - 자기 이해 및 수용, 자존감 향상, 가족공동체, 사회공동체 등<br>3. 마음 가꾸기2(12시간) -소그룹(4개) 집단상담<br>• 분노 다스리기<br>• 내 성격 바로 알기 |

| 프로그램명 |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심리 강의 |
|---|---|
| 프로그램 내용 | • 명상·요가<br>• 좋은 부모 되기<br>4. 마음 가꾸기3(4시간) - 스트레스, 불면증, PTSD 신체화증상 등 대처<br>5.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2시간) - 심리검사결과 해석 상담<br>6. 성교육(2시간) - 바람직한 성<br>7. 상담시설 이용 안내(2시간) - 퇴소후 상담시설 이용안내 |
| 프로그램 효과 | 하나원 심리 및 정서순화 교과목은 교육과 상담, 치료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자기 및 타인 이해를 돕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감정정화를 일으키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있다. 또한 하나원 교육은 교육과 함께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욕구에 맞춘 소집단훈련을 통해 상담 동기를 높이고 치료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용될 경우 이러한 효과가 제고될 것이다. |

### (나)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생활과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대부분이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부적응의 원인 또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상담하고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는 매우 미비된 상황이다. 현재 일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구와 분석을 겸한 초보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이주민 마음 쓰다듬기>[25]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신의학과 사회복지 전공자, 그리고 의료기관과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들이 연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의료복지 네트워크 아름다운 생명은 지역사회 북한

[25] 북한이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목표로 최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단체는 대표적인 북한이탈주민 밀집 주거지역인 서울 노원구 소재 공릉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 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프로그램명 | 북한이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br>'북한이주민 마음 쓰다듬기' |
|---|---|
| 단체명 | 의료복지 네트워크 아름다운 생명 |
| 단체소개 | 의료복지네트워크 아름다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랑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비영리 공동체로, 지역사회 보건의료 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통하여 소외발생과정을 막아 개인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외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프로그램 목적 |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원구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노원구 지역에서의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기관 주도의 전국적인 사업 확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 프로그램 내용 | • 세부 프로그램<br>1. 북한이주민을 위한 일반정신건강 프로그램<br>2. 북한이주민을 위한 전문정신건강 프로그램<br>3. 사회복지기관 및 정신보건인력 스텝을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br>*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 1명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연계하에 근무하면서 사업 진행하고 있음 |
| 기대효과 | 의료복지 네트워크 아름다운 생명이 진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인 '북한이주민 마음 쓰다듬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비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관, 그리고 정신건강 의료인력과 북한이탈주민 상담 경력자가 결합하여 지역사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사업 영역과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업성과가 제시될 경우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국경없는 의사회(MSF) 한국지부 심리 프로그램>**

국경없는 의사회는 세계적인 국제적 NGO로서 해외 탈북난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지부는 탈북난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 상담서비스, 특히 PTSD에 대한 조사와 진단,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프로그램명 |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지부 심리 프로그램 |
|---|---|
| 단체명 |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지부 |
| 단체소개 | 국경없는 의사회는 인도주의적 국제의료구호단체로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인종, 종교, 신념, 정치적 영향력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 지원을 차별 없이 제공하며,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자연재해 또는 인재, 교전, 전염병 등의 피해자, 사회적 또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고립되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등을 대상으로 의료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통해 분쟁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지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난민과 국내 거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 프로그램 목적 |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체적 고통 때문에 한국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모든 필요한 검사들을 받지만, 실제적인 통증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진단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국경없는 의사회에서는 이러한 신체적 고통이 북한과 중국 또는 제 3국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외상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이 평가를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이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
| 프로그램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경없는 의사회 내 심리 자문관(심리학자)과의 상담을 통해 통증의 원인이 심리적인지 확인하게 된다. 확인된 결과에 따라 그 북한이탈주민을 이미 알고 있거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치료해 줄 수 있는 한국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된다. 단기간의 심리적인 치료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경없는 의사회 심리학자가 치료를 하기도 한다. 한국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br>아래 제시된 증상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전문적인 심리적,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내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그리고 취업이나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자 노력하고 있다.<br><증상><br>•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br>• 식욕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먹는 것을 멈추기 어렵다<br>• 두통이나 소화장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등 신체적 통증이 있다.<br>•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무기력하고 살기 싫어진다.<br>• 잠을 자기 위해서 혹은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 술을 마신다.<br>•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br>•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주의가 산만하고 어리지 않은데도 밤에 오줌을 가리지 못하거나, 갑자기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한다. |

| 프로그램명 |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지부 심리 프로그램 |
|---|---|
| 프로그램 진행방법 | •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조사와 상담을 실시한 경험을 갖고 있다.<br>• 심리평가와 치료는 국경없는 의사회 사무실에서 진행되나, 사정에 따라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될 수 있다. 심리지원은 심리치료사가 개입하고, 의료지원은 전문 의사에게 의뢰하게 된다. |
| 기대효과 |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지부는 외국인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의 협동 형식으로 북한이탈주민 심리적 문제에 대한 조사와 부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3명의 소수인원과 외국기관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범적 사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향후 관련 사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

**<북한인권피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26]**

북한인권정보센터 내 북한인권피해자 상담지원팀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PTSD 문제에 대한 지원과 해결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사업을 위해서 구성되었으며, 심리 전문인력과 사회복지사, 북한이탈주민 연구자, 북한인권피해 연구자들이 협동으로 인권피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PTSD라는 특성화된 전문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프로그램명 | 인권피해자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극복 지원 서비스 |
|---|---|
| 단체명 | (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상담지원팀 |
| 단체소개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2년 10월에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조사, 분석, 정리하여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구축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피해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PTSD의 상담과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내 '북한인권피해자 상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6]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내 상담지원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 프로그램명 | 인권피해자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극복 지원 서비스 |
|---|---|
| 프로그램 목적 |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북한 거주시 또는 탈북 및 송환과정에서 인권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거주시 또는 탈북 및 송환과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도 현재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남한사회 성공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 프로그램 내용 | 1. 하나원 교육생에 대한 진단 및 상담 지원, 전문서비스 제공<br>2. 사회 정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단, 상담 지원 및 전문서비스 제공<br>3. 상담 내용 Database 구축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br>* 상담전문인력과 전문연구자 상근 활동 |
| 프로그램 진행 상황 | • 현재 북한인권피해자에 적합한 PTSD 진단 척도를 개발 중에 있다.<br>• 북한이탈주민 23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에서 혹은 탈북 과정 및 제3국에서의 인권피해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충격적 사건으로 인한 PTSD 증상과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았다.<br>• 조**(여. 35세)씨는 3번이나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는데, 이때 취조 과정에서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야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후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이루고, 무서운 꿈을 꿀까봐 잠을 안자려고 하다 보니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하였다. 또 대낮에 혼자 집에 있으면 누군가가 집으로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특히 화장실에서 양치를 할때면 등 뒤에 보위부 요원 같은 시커먼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자신을 덮칠 것만 같아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고 확인을 한다고 한다.<br>• 이에 반해 이**(남. 34세)씨나 박**(여. 52세)씨의 경우에는 탈북 과정에서 인권피해를 경험하였지만,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한 지금은 그러한 경험이 현재 생활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응답을 거부하였다.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극복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경험한 충격적 사건에 대해 회피하고 부인(denial)을 하는 것인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br>• 23명 심층 면접 대상자 중 15명이 같은 경험을 나눈 사람들과 함께 하는 집단상담보다는 상담자와 1:1 개인상담을 선호하였다.<br>• 초기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지속적인 상담과 전문 의료기관 알선하고 있다. |
| 기대효과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내외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Database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PTSD를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접촉하여 진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연구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업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3) 평가

#### (가) 전체적 평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 그들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상담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상담 수요 부족과 사회정착 이후 실질적인 경제적 문제와 직면하면서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각과 인식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상담은 지역 내 사회복지관이나 종교단체 혹은 민간단체에서 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내 상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단기에 교육하여 북한이탈주민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특히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실제적으로 전문화된 PTSD 검사와 진단, 그리고 상담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계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관심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제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이 요구된다. 특히 PTSD는 극심한 인권피해 경험을 한 북한이탈주민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하는 특화된 PTSD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상담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생소한 심리적 지원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한 영상홍보물 제작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 내 전문 상담센터의

설립이나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의 운영으로 상담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나) 운영 및 프로그램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PTSD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의료복지 네트워크 아름다운 생명이 진행하는 '북한이주민 마음 쓰다듬기'와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지부의 심리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피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PTSD사업 프로그램들은 모두 최근 들어 시작된 것으로 사업결과 보고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세 기관의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세부적인 운용 프로그램과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설계가 미비하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PTSD 사업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틀을 갖고서 내담자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일련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지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진단 척도도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각 단계별 연속성이 약한 상황이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한 세부 매뉴얼이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프로그램 집행의 정교함을 떨어뜨리고 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조달에 대한 안정적인 체계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외부 기관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단기간 또는 일정기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연속적인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 않다.

### (다) 인력과 시설 평가

북한이탈주민 PTSD 지원 사업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전문인력과 시설, 그리고 운용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한 비용조달의 문제와 함께 전문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기관의 PTSD 지원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전담 전문인력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기관의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PTSD 사업 설계와 진행을 위한 예비 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 인원에 대한 보조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복지 네트워크 아름다운 생명과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지부,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의 PTSD 사업은 전담인력이 1~2명에 불과하지만 기관내 또는 외부시설에 상담실을 갖추고 전문인력이 상시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력과 시설은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평가

의료복지 네트워크 아름다운 생명과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지부,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운영하는 PTSD 프로그램은 모두 1~3년 미만의 짧은 운영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현재까지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실적이 많지 않거나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현재 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으나, 국경없는 의사회 사업의 경우 외국의 사례를 원용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생명은 지역 밀착형 시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 사업은 대상자를 인권피해자로 특정화하고 조사사업과 심리적 지원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시범적 성격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입장에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3. 해외사례

### 가. 독일의 이주자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

이탈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의 정착지원은 동독과 서독사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질적인 사회발전을 거듭하여 왔기 때문에 이들이 서독사회에 실제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탈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의 지원은 서독 사회에 대한 적응력 제고와 보상이라는 포괄적인 정착지원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목표는 첫째, 재외국민 연금법에 의한 연금제공 및 의료보호, 실업보호, 재해보호,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규정을 통해 서독으로의 이주 후 생활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둘째, 서독 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사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두었다.

#### (1) 주거지원

이탈주민이 각주로 분산된 이후 주거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할 주정부가 이주자를 위해 임시수용소(Übergangswohnheim)나 호텔 또는 민간 임대주택 등 임시거처(Ausweichsunterbringung)를 마련, 일정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주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인 복지주택(Sozialwohnung)을 이탈주민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건설하여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탈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한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에 비해 제반 지출요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 영세민에게 제공하는 월세보조금 특례규정을 적용, 임대주택 월세보조금(Wohngeld)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이탈주민이 주택을 신축 또는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담

조정법(Lastenausgleichgesetz)에 의거하여 연방정부 재정에서 장기저리 융자금을 제공했다. 주택문제 이외에도 가재도구 마련을 위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독 정부는 이탈주민의 가구규모를 감안,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제공했다.

### (2) 정착금 지급

이주로 인한 소득 단절을 보상하기 위해 서독 정부는 정착금(Eingliederungsgeld)과 실업부조금(Arbeitslosenhilfe)을 지급했다. 정착금은 독일 이주 1년 전 기존 거주 지역에서 최소한 150일간 임금노동자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주민에게 제공되었다. 정치범 또는 정치적 이유로 취업활동에 지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기간을 취업기간으로 인정해 주었다. 정착금은 개별 이주민의 종전 소득을 서독 임금으로 재평가한 후 이를 5등급으로 나누어 각 해당 등급의 63%를, 최고 312일까지 지급했다.

실업부조금은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에게 제공되었는데, 정착금의 경우와 같이 독일 이주 1년 전 최소 150일간 취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을 지급요건으로 두었다. 이주민과 유사한 교육수준 및 직업능력을 가진 서독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독신자의 경우 이의 56%,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8%가 매월 지급되었으며, 지급계속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정착금 또는 실업부조금을 받는 기간은 수혜액을 기준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를 당사자와 연방노동청이 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 외에도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취업상담, 직장알선, 구직활동비 보조, 이사비용 보조, 취업장비구입비 대부가 이루어졌다.

### (3) 사회보장 혜택

이탈주민들에게는 '연방사회보장법'에 따라 서독 주민에 준하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혜택이 제공되었다. 연금보험

과 관련해서는 서독 이주전 취업기간, 전쟁 또는 정치적 사유로 인한 구속기간, 교육기간, 실업기간, 질병기간 등이 모두 연금기간으로 산입됐다. 그러나 1990년 5월 18일 동서독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주한 동독 주민의 경우에는 동서독 통합 경과규정에 따라 동독연금 규정을 적용하였다.

산재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독에서 발생했던 산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출신지역을 떠나 2개월 이내에 입국한 자로서 정식 거주허가를 받은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질병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업으로 실업부조를 받는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실업부조 수령 기간 동안 당사자의 의료보험료를 연방정부가 부담했다. 이와 함께 출신지역에서 근로활동 중 산업재해를 당한 후 장애 상태로 이주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서독 산재보험의 수혜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산재보험 당사자의 종사업종이 출신지역 재해보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급여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라도 서독제도에 상응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그 밖에도 생계애로 또는 기타 질병, 장애 등 특수상황에 처한 이탈주민에게는 일반 서독 주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생계비 및 거주비, 의료보호를 비롯한 공공부조(Sozialhilfe) 차원의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전 거주지에서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당한 이탈주민(전쟁포로, 정치범 등)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 외에도 별도의 피해보상을 해주었다.

### (4) 서독 사회에의 동화 지원

이탈주민의 서독 사회에의 동화를 위해 서독 정부는 현지주민과 이탈주민이 파트너라는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마련에 치중했다. 예를 들어 시민대학(Volkshochschule) 프로그램에 이탈주민들이 현지 주민과 만나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시민대학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저녁시간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강의실을 이용, 현지 주민들도 참석한 가운데 대화의 광장(Stammtisch)을 열어 이주 동기 및 상황, 독일 현지생활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는 먼저 주제발표를 한 후 서로 질문을 하거나 일정 주제에 대한 영화나 비디오를 함께 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대학에 참가하는 현지 주민들과 이탈주민들이 같이 야외로 소풍을 가거나, 연방의회, 박물관 등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이탈주민들이 체육 동호인 단체(Sportsverein)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접촉을 통해 자기 발전과 성취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했다.

연방 및 주정치교육센터(Bundes- und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와 동화대책 담당 단체들은 이탈주민들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주말 세미나 같은 것을 마련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할, 학교와 교육, 직장생활, 법률과 경제문제, 보건, 교회와 종교, 휴가와 여가선용을 비롯하여 교육과 문화 등 다양했다. 그러나 정치교육과 관련해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 소위 사상 전환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탈주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결정하고 직접 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동독 출신 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서독의 메스미디어와 동서독간 친지 방문, 전화, 우편교류 등을 통해 서독 체제와 사회에 대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사상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었다. 그렇지만 연방주의 정치·행정기구 및 그 기능 등에 대해서는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정치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동화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해 직접 마련·실시되지 않고,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자문, 세미나 및 기타 동화프로그램을 마련·운용하되, 국가는 이들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취했다. 동화프로그램을 운용한 민간단체로는 카리타스(Karitas Vand), 신교교회(Diakonisches Werk), 근로자 복지단체, 신교 교회청, 독일 캐돌릭 난민협의회 및 아커만협회(Ackermann-Gemeinde) 등이 있었다.

이상의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구서독 지원정책을 정리하면 위 표와 같다.

<표 Ⅱ-5> 동독 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역

| | | |
|---|---|---|
| 거주지 마련 | 임시수용소<br>주택소개<br>복지주택 우선<br>입주권 제공 | 친인척이나 기타 연고를 통한 주택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건설법 제25조에 따라 동독 출신 이주민에게 5년동안 주택입주 혜택 |
| 생활상담과 후견 | 새로운<br>생활환경 소개 | |
| 생활용품, 가구구입을 위한 저리 융자 | 독신자<br>2인 이상 가족기본금<br>기타 가족 1인당 | 3,000DM<br>4,000DM<br>1,000DM 최고액 10,000DM |
| 학력인정 | 동독 취득<br>학교졸업증명서나<br>직업교육 자격증명서<br>인정 | 연방실향민법<br>(Bundesvertriebenengesetz:BVFG) |
| 교육촉진금 지원 | 교육기간 동안의<br>생활비보조 | 연방교육촉진법<br>(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대졸자 사회진출보조 | 직업정착지원 | 학업추가 이수시 장학금 지원 |
| 자녀 수당 | 자녀 수에 따라<br>양육비 지급 | 연방자녀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
| 사회복지 지원 | 의료보호, 질병급부<br>연금보험<br>실업보험<br>실업수당<br>산재보험<br>전쟁희생자 원호<br>사회부조 | 질병보험법에 따른 질병보험 급부금 수혜<br>연금법에 다른 개별적 급부금 수혜(동독, 동베를린에서의 기여금 불입기간 포함 산정, 자영업자의 기여금 추가 납입시 연금대상에 포함)<br>동독에서의 실직기간, 정치범으로서 구류기간, 자영업기간도 취업기간에 포함 산정<br>단체협약임금의 63%<br>서독 보험법에 따른 급부제공<br>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에 의한 원호<br>생계비 지원, 주택임대료 지원, 난방비 보조금, 의복과 가구에 대한 보조금 |

## 나.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와 동독 이탈주민 취업대책

### (1)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독일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오늘날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은 장인(마이스터)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독일인에게 직업의식은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다. 그들은 직업을 신에게서 부여받은 사명으로 생각한다.[27] 16세기 종교개혁가 칼뱅을 통해 독일인들은 "직업은 신의 소명이며,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기 몫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천직의식을 갖게 되었다. 독일인들은 모든 직업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도 대단하다.

#### (가) 독일의 일반 및 직업교육제도

독일의 교육제도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과 각 주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에 입각해서 조직·운영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독일 정부는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존중하는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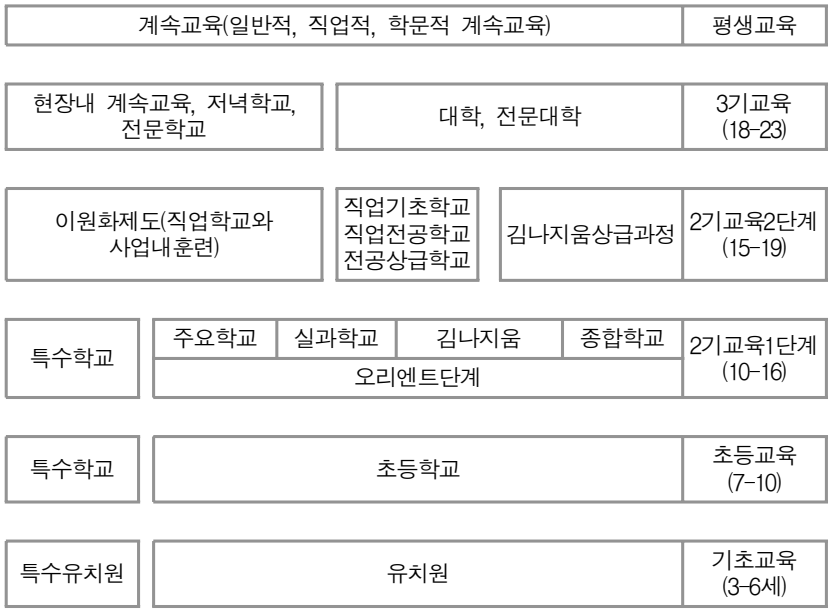
독일의 의무교육은 만6세부터 18세까지다. 어떤 종류의 학교를 택하든 9학년 졸업 후 계속해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최소한 의무직업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화 한 규정이 독일 직업교육 발전의 밑바탕이다. 연방기본법에는 누구나 직업과 기술훈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누구나 하나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직업에는 상응하는 자격증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독일 어린이는 만6세에 초등학교(Grundschule)에 입학하여 4년간 다닌다. 4학년 때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의 조언

[27] 독일어로 직업을 Beruf라고 하며 이는 영어 calling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에 따라 학생에게 알맞은 다음 단계의 학교, 즉 직업예비학교인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서비스 계통으로 진출하기 위한 실업계 학교인 레알슐레(Realschule),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에 입학한다. 이들 학교에는 2년의 선택과정(Orientierungsstufe)이 개설되어 있어 학생들은 학교의 특징에 따라 진로지도를 받게 된다. 하우프트슐레는 2년의 선택과정을 포함, 4년 내지 5년간의 교육을 받으며, 직업학교(Berufschule)와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에서 직업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초적 지식과 기능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증서(Abschlusszeugnis)를 수여하며, 이 증서를 가지고 직업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학생들은 직업활동을 하면서 시간제로 직업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림 Ⅱ-1> 독일의 교육제도




출처: Das Berufsbildungssystem in der Bundesrepublick Deutschland, CEDEFOP, 1994, p. 23; 홍선이, 『독일의 직업훈련 -출장보고서-』(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p. 5에서 재인용

레알슐레는 '선택과정'을 포함하여 6년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고도의 전문적·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교육 과제를 준비시키고, 이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학교는 농업, 상공, 공업, 장인교육(수송업) 등과 관계되는 다양한 직종의 후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며, 졸업생에게는 과정이수증(Mittel Reife)이 수여되며, 실습훈련을 거쳐 중급이나 상급의 공무원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이들 중 좀더 유능한 졸업생은 전문고등학교(Fachoberschule)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은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대학에서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이 학교에는 9년간의 과정으로 대학입학자격시험(Abitur)에 합격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입학자격을 소지한 학생은 의학·법학 또는 학생정원수가 정해진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적성에 따라 자유로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실기중심 및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하는 전문대학(Fachhochschule)은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산업 및 경영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전문직업교육의 산실이다.

### (나) 동서독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비교

동서독간의 직업훈련은 50년대 말부터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하다가 1960년대 들어와서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는 1945년 이후 독일 분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서독은 독일교육의 전통적 체제에 기반을 둔 다원적인 연방교육체제를 가지고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합헌적인 국가로 발전하였으나 동독은 사회주의적인 중앙집권화의 원칙에 따라 유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교육체제도 사회주의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였으며, 이후 40년간 유지되었다.[28]

---

[28] 유치원에서부터 고등교육기관까지를 포괄하는 교육의 전 영역에 관한 통합교육법이 실시되었으며,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통합학교체제를 국가가 엄격하게 관할했다.

동서독간 직업교육체제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분명하다.

첫째, 서독에서는 11개 주정부들이 직업교육문제에 관한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졌고, 교육 영역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입법권을 갖고 있었다. 실제 각 주정부는 자체적인 교육체제, 교육과정, 교재 그리고 교사훈련 형태, 공휴일 제정권을 갖고 있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가 모든 지역에 중앙집권적 교육구조를 배태시킴으로써 획일적인 교육과정, 교과과목, 교재, 공휴일 제정, 표준화된 교사훈련체제를 견지하였다. 구서독의 다양화된 교육 체제와는 달리, 동독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니게 되는 1학년에서 10학년에 이르는 형태의 일반지식 기술 중등학교(general Knowledge Polytechnical Secondary School)가 유일한 학교 교육의 형태였다. 다만, 대학 입학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11학년과 12학년 형태의 연장된 중등학교 과정을 수료해야 했다. 학교교육은 중앙정부나 중앙당에 의해 통제받는 지방정부가 경영하는 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서독에서는 학교경영에 있어 명확한 다원적 시스템을 견지했었으며,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 이외에도 정부가 인정하거나, 사학재단, 특수기관 및 교회 등에 운영되는 상당수의 사립학교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서독에서의 교사 양성은 원칙적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4년~6년간의 대학교육과 함께 교원 국가고사에서 합격해야 하고, 합격 이후 다시 제2차 양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중등학교에서 18개월에서 24개월간 교사로서 실습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교과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고 연수를 받아야 했다. 반면, 동독지역에서의 교사양성은 한 단계로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교사는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직업학교 교사는 일반적으로 한 교과목에 한정된 일반 대학교육을 받으면 되었다. 그러나 5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전문기술중등학교와 상급중등학교 교사들은 대학에서 5년간 2개 과목

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셋째, 동서독간에는 개별 교과목에 담긴 정치적·교육적 개념과 교육목표가 크게 달랐다. 서독에서의 교안은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정도의 사안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동독에서는 상세한 교수지침서가 존재했다. 서독에서는 외국어 교육 특히 영어교육에 큰 관심을 둔 반면, 동독에서는 러시아어를 필수 제1외국어로 가르쳤다. 또한 동독은 학교 종교교육을 철폐시키고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무신론적 분위기를 조장시켰던 반면, 서독에서는 서베를린과 브레멘을 제외한 모든 주의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정식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넷째, 서독에서는 부모, 학생, 교사들이 각종 학교 위원회나 조직체를 통해 학교의 인사정책 및 학교행사 등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데 비해, 동독에서의 부모, 학생, 교사들의 참여는 실제 중앙정부의 지침을 실천하고 협력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다섯째, 서독에서의 유치원은 정규학교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대부분 종교단체나 복지재단 등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부모들이 원할 경우, 해당 연령층의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했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훗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운영은 중앙부처의 장학담당기관이 맡았다.

### (2) 독일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특징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학습의 이원화제도(das dual system)의 정착이다. 이원화제도에서 직업교육훈련은 학습장소인 직업학교(Berufschule)와 사업장(Betrieb)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체는 직업훈련과 관련 현장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학교는 전공과 관련된 이론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29] 직업학교와 사업장내 직업훈련은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실시된다.[30] 다만, 사업장내 직업훈련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기업 자체의

결정사항이나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감독을 받는다. 상공회의소는 자격과 관련된 시험을 주관한다. 반면, 학교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은 법적인 의무교육에 의거한 사항으로 주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받는다.

독일에서 직업교육훈련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직업교육훈련을 단순히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이원화제도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직업교육에 입문하는 사람이나, 인문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나 졸업 후의 진로가 교육과정에서 얼마든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선택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가능하다.

1996년 1월 독일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법적인 유인제도로 장인장려촉진법(Meister-Bafög)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능력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훈련법이나 전통전문기술직(Handwerk) 규정에 따라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장학금)을 주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에서 이원화제도는 단순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직업교육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마지막 특징은 직업훈련제도의 전통성을 강조

---

[29] 직업학교는 사업장내 직업교육훈련의 동반자나 보완적 기능들을 수행하며, 한 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이루어진다. 직업훈련과 관련된 전공이론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거나 보완하며 일반교양과목과 심화시킨다. 이 경우에도 전공수업에 중점을 둔다. 직업학교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장내 직업교육훈련이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달리 연방기본법에서 부여한 고유권한에 따라 각 주정부의 법적용을 받는다.

[30] 이의 법적인 근거는 1969년 제정된 직업교육훈련법(Berufsbildungsgesetz)에 기초하고 있다. 사업장내 직업교육훈련은 사업장 운영자가 그 내용이나 관련 조직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연방정부가 통일적인 직업훈련규칙을 정해 놓고 있기는 하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세 수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시작된 체계적이고 엄격한 도제제도(Meister-Lehrling)는 이원화제도를 바탕으로 한 오늘날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기틀이다. 이러한 전통성의 유지는 거시적 직업훈련제도의 개혁에 주력하기보다는 미시적 개혁인 직업세계와 산업현장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려는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 (3)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실제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이원화제도에 의한 '양성훈련', 둘째는 근로자들의 능력향상과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계속훈련' 그리고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이다. 이밖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훈련과 특수그룹을 위한 다양한 특별훈련 등을 비롯해 기업차원부터 협회나 동맹차원,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대표적인 훈련종류와 성격을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Ⅱ-6>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 종류 | 성격 |
|---|---|
| 양성훈련 | - 직업에 대한 기본교육<br>- 전문기능 습득과 지식함양<br>- 직업에 대한 경험, 특성화 촉구<br>- 이원적 직업 교육훈련제도에 의하여 운영<br>- 훈련비용은 원칙적으로 이들을 양성하는 기업에서 부담 |
| 향상훈련 | - 습득한 기술의 유지 및 확대<br>- 대부분 실업자에게 지원<br>- 승진, 변화되는 직장상황에 적응, 여성의 취업이나 재취업, 직업교육훈련 이수를 위한 졸업시험, 고령실업자의 재취업의 경우에 특별히 장려 |
| 전직훈련 | - 현재의 직종이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요구되지 않거나 건강상 이유로 전직이 불가피한 경우.<br>- 전직훈련 지원은 2년, 최대한 3년 이내 |
| 재활훈련 | -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매우 강력, 다양한 직종의 훈련을 실시<br>- 장애인에 대하여는 다른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br>- 업체에 일정비율(6%)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쿼터제를 법령화, 불이행시 200DM의 부담금 납부 |

출처: 홍선이, 『독일의 직업훈련 -출장보고서-』(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p. 6.

이하에서는 실업자 훈련을 제외한 양성교육훈련과 계속교육훈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 (가) 양성교육훈련

독일 직업교육훈련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원화 교육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원화 체계는 기업이나 전문수공업자들이 도제형식으로 실시하던 전통적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훈련은 국가와 사업체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임과 동시에 훈련생이라는 이중적 관계에서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인성 개발까지도 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이원화제도는 1969년 8월 14일 제정된 직업훈련법을 통해 법·제도적 형태로 확립되었다.

직업훈련법에서는 직업훈련조건, 법령, 인정 훈련직종, 자격검정제도, 직업훈련의 규제 및 감독, 직업향상교육과 전직교육, 위원회의 규정 및 임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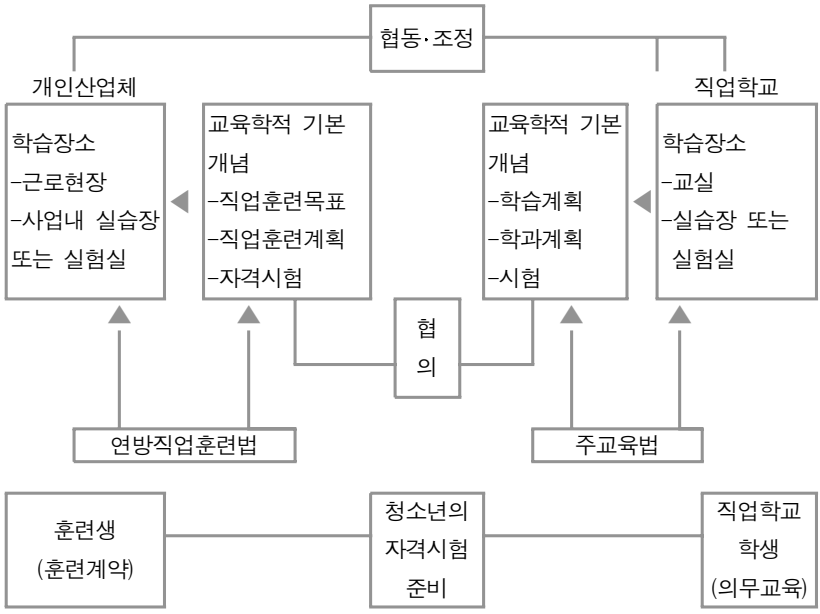
직업교육훈련의 이원화체제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Ⅱ-7> 직업교육훈련의 이원화

| | 법체계 | 체결의근거 | 내용의 결정 | 감독기관 | 경제적 지원 |
|---|---|---|---|---|---|
| 사업체 | 연방정부 | 훈련계약서 | 훈련규정 | 소속협회 | 훈련사업체 |
| 직업학교 | 주정부 | 의무교육 | 교육계획 | 장학기관 | 주정부 |

출처: 홍선이, 위의 책, p. 9. (훈련소요기간은 통상 3~3.5년)에서 재인용

<그림 Ⅱ-2> 독일 직업교육훈련 이원화 제도의 구조




출처: Münch, J., Struktur des Dualen System, 1994, p. 37; 홍선이, 위의 책, p. 9에서 재인용

사업체가 양성훈련을 어디에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훈련 직종의 성격과 사업체 크기와 조직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 (나) 계속교육훈련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제기된다.

계속교육훈련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첫 번째 직업훈련을 마치고 취업이 된 후에 다시 참가하는 직업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교육훈련은 일반, 직업, 문화, 정치 분야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학교, 첫 번째 직업훈련, 직업과 사생활 모두에서 얻은 지식과, 능력,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계속교육훈련의 범위는 국가 인정 직업훈련 이수부터 단독 세미나까지, 전일제 교육부터 저녁반 교육까지, 이수한 직업훈련의 반복교육부터 특수 분야의 전문교육까지 광범위하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계속교육은 다른 교육분야에 비해 적게 법제화 되어있다.

계속교육훈련은 성인에게 사회, 경제의 발전과 함께 인성적, 직업적 흥미와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속교육훈련은 연방정부차원에서는 고용촉진법(98년 이후에는 사회법Ⅲ), 직업훈련법, 대학법, 연방정부양성교육촉진법 그리고 통신교육보호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16개 주정부 중 13개 주정부가 법체계를 세워놓고 있으며, 여기에 별도로 학교법과 대학법이 추가되어 있다. 16개 주정부중 10개 주정부는 계속교육훈련 기간이 근로일수에 포함되도록 규정화해 놓고 있다.

계속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계속교육이다. 이는 직업교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

을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환경교육, 법률, 외국어교육, 부모교육 등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 계속교육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 견문을 넓히고 능동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그 뜻이 있다.

둘째, 직업계속교육이다. 직업계속교육은 1969년 고용촉진법에 의해 경제성장과 인력부족에 기초를 두어 시작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실업예방과 함께 발생한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에 중점을 두었다. 직업계속교육으로서 전직교육은 양성교육규정에 준하여 운영되며 연방정부와 협회가 관리하는 자격시험을 준비한다. 직업계속교육은 사업체, 학교, 협회, 종교단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된다. 아직까지는 현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직업훈련기관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계속훈련은 근로자에게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확신과 전망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직업계속교육 역시 사업체 자체예산으로 자체요구와 필요에 의해 시행되고 일반적인 직업교육에 비해 그 범위가 훨씬 방대하고 포괄적이다. 국가의 세부적인 법조항이나 규제에 의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학문적 계속교육이다. 훈련의 제공자는 대학, 연구소, 장학재단, 협회, 단체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넷째, 통신교육으로 이는 재직 근로자에게 신축성있는 직업계속교육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통신교육은 서문, 세미나, 라디오, TV,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한편, 계속훈련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고용촉진법 개정(1998년 1월 1일 사회법Ⅲ으로 개정) 이후 전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있다. 사업주는 재직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장소(현장내 또는 현장외), 시간(근무시간내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관계없이 재정 지원을 한다. 근로자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업훈련에 지원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면, 사업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원가능 여부는 훈련의 내용과 업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결정된다. 근

로자가 자비로 계속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에 필요한 지원수당(교통비, 교재비, 시험응시비)을 정부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업자와 재활교육을 위한 계속훈련에만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 (4)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편 및 발전

독일 정부는 모든 국민의 직업교육훈련을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7년 4월 '직업교육훈련 개혁 프로젝트'의 추진을 결정했다. 본 개혁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1]

① 직업과 노동 세계의 변화 추세에 상응하는 역동적·개방적 직업훈련 관련 규정의 개선
② 각자의 능력에 준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원화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방
③ 새로운 직종 개발과 전통적 직종의 미래 유망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대화 작업 추진
④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 구축
⑤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⑥ 사업장내 직업훈련 활성화
⑦ 모든 사업장내에서 단기간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 등이다.

독일 정부는 이상과 같은 직업교육훈련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원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모든 사람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안정적인 산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기업 측면에서 볼 때, 구서독 지역에서는 소규모 산업체들의 직업훈련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대기업들

---

[31] Hermann Schmidt, Reformprojekt berufliche Bildung Kontinität-Welche Zukunft hat das duale System, in: Berufsbildung in Wissenschaft und Praxis, H. 1, 김기홍,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동향," 『직업과 인력개발』 제1권 2호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에서 재인용

의 직업훈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도 사업장내 직업훈련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관련된 법이나 규칙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내 직업훈련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종 개발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32]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의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는 바, 개인의 능력차를 고려한 직업훈련방법의 도입과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단계별 학습방법의 적용 등이 그것이다. 연방 정부는 또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컨소시엄 형태인 직업훈련연합체(Ausbildungsverbund)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 서로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린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직종개발이나 전통적인 전문기술 분야의 현대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 (5)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대책 및 직업교육훈련

통일전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대책과 직업교육훈련은 서독의 일반 주민에 대한 대책과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 특별히 언급할 점이 없는 편이다. 다만, 동독 이탈주민의 대상에 벗어난 통일전 동서독간의 교류협력이 교육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1986년 5월 문화협정(Kulturabkommen)이 체결되었는데, 본 협정의 목적은 동서독 상호간 문화·사회적 인식과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문화협정 제2조에서 동서독은 중·고등학교의 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및 전문대학교육, 대학 교육을 포함한 학문과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

[32]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며, 직업훈련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위해 재정적인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구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 (가) 교육지원

서독 정부는 이주민의 학교교육, 직업훈련교육을 위해 이들이 일반학교 및 직업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종 연수교육, 직업전환교육, 언어, 직업관련 세미나, 대학입학준비 세미나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관련 지원금에는 교육비 외 생계비, 기타비용, 보험비용 등이 있었으며, 지원금 신청은 서독 도착 즉시부터 24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48개월까지 연장해 주었다. 한편, 연방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해서는 통상 30세 미만 이주민에 대해서는 대학교육비를 지급했으며, 학자들에 대해서도 학자로서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추진했다.

### (나) 각종 자격시험과 증명서의 인정

이탈주민이 취득한 각종 자격에 대해서 주정부는 서독의 자격시험과 내용면에서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인정했다. 동등성 여부는 관계 인정기관이 결정했다. 이와 같은 기존 교육내용에 대한 인정은 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균등한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며, 실업수당 및 실업보조금 수령액뿐만 아니라 연금산정기간 결정에도 도움을 주었다. 물론 학력 및 경력이 동서독간의 변화된 노동력 수요나 기술력 차이로 그대로 인정되기에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주민의 실제 직업정착에는 어려움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 (다) 실업자 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동독에서의 이탈주민이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이들은 신규(청소년) 실업자가 아닌 장기실업자[33]로 구분된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도 신규

실업자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 장기실업을 구제하기 위해 구서독 정부가 사용하는 방법은 자격획득과 능력의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실업자군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학력이거나 가정적, 사회적으로 작고,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취약계층이다.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했어도 오랫동안 활용하지 않아 이미 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많다. 구동독 이탈주민의 경우 대부분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훈련에 근로가 동반된 특별한 방식의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구서독 정부는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장기실업대책 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했다.[34]

첫째,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방적인 사회부조금의 지급 대신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일을 통해 임금형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다. 먼저 훈련기관(근로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사회법와 독일연방사회보장법에 의해 지원하고 부족한 재정을 주정부로부터 보충받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목조, 병원, 농경지건축분야에 실업자를 투입해 단순한 작업부터 시작하고 계획된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훈련생들에게 해당 직종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습득된 지식을 통해 개인의 자질을 향상시켜 보다 높은 단계로의 훈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이 배제된 근로훈련기관에 의해 순수한 훈련이 10~20%의 비율로 실시한다. 근로훈련기관의 훈련 목표는 전문지식의 전달과 함께, 오랜 실업기간으로 인해 상실된 의욕의 회복과 열등감에서의 탈피를 도와 정신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데 두고 있다. 훈련기간 종료후 이수자에게는 훈련내용과 훈

---

33 여기에는 이주민, 외국인, 주부, 저학력자, 재활대상자 등 여러 이유로 사회 경제활동에 있어 취약점을 갖고 있는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34 홍선이, 『독일의 직업훈련 -출장보고서-』(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p. 86 이하 참조.

련기간이 기록된 수료증을 배부한다.

둘째, 사업체에서의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실업자가 사업체 현장에 투입되어 일과 함께 직업훈련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으로 훈련과 일의 병행이 공공취로사업과 같이 당국이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근로훈련기관과 사업체측 전문인력의 상호협조관계에서 일과 동시에 훈련이 이루어지며, 보조근무 또는 능력이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게 된다.

셋째, 인턴쉽과 같은 형태로 훈련과 일을 병행하되, 훈련 종료 후 사업체 취업을 보장하는 형태다. 훈련생은 실습생,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 형태로 훈련을 받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회법, 정부 또는 유럽공동체 프로그램의 연방사회보장법에 의해 충당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훈련생에게 예정된 직무에 대한 사전준비와 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일이다. 여기에는 장차 일하게 될 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향후 맡을 업무 이외에도 사회적, 인성적, 방법적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이상의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과 달리 구서독 정부는 실업자에 대해 소질개발촉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는 보다 장기적인 실업대책의 하나로 실업발생의 예방차원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종을 직업탐색기간 또는 직업생활 초반에 발견하고 능력을 개발해 자발적인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연방교육연구부는 년 최고 3,000마르크까지 지원하나, 지원 대상 연령은 25세까지로 제한했다.

## 다. 독일 귀향자에 대한 정착 프로그램[35] 사례

독일 귀향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국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구소련 지역을 포함한 동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독일로 귀환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독일에는 아직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독일 국적을 찾아 귀환하고 있다. 그들은 법적으로 독일인이지만 오랜 동안 타지에 살았기 때문에 독일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독일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요

정착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가자당 45분 수업으로 6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 600시간은 언어교습, 30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교습은 기초과정 300시간, 중급과정 300시간으로 되어 있다. 언어과정 이수자는 충분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독일어 능력이 검증되는 사람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언어교습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교육정도 및 경험
- 동기
- 연령
- 타 외국어 구사능력
- 성별
- 이민경험
- 독일로의 이주 목적(가족결합, 망명, 도피, 취업 등)

---

[35]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Konzpt für einen bundesweiten Integrationskurs” (Jan. 2005)

- 생활정도(거처, 가족수 등)
- 문자습득 정도

학습정도에 따라 언어교습 과정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개인별 능력에 따른 학습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어과정이 시작되기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언어과정 이수자들이 단기간의 공통학습과정을 이수케 하여,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게 맞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언어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내용이 가미되고 있다.

참가자의 언어능력에 따라 언어과정은 기초반 또는 중급반으로 편성된다. 이 경우에는 각각 100 단위 수업 시간이 할애된다. 그러나 고급반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학습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어과정 이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언어학습 과정에서 학습 진도에 따라 상급 과정에 편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취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언어과정의 일부만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반편성 시험은 괴테 인스티튜트가 개발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2005년 이후부터는 특별한 반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와 부모가 동시에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여성들만으로 특별반을 편성하거나 27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을 편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직업분야에서 종사한 사람들을 위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밖에 문맹자에게는 특별반을 구성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 (2)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목표

독일 정부가 언어학습과 사회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바는 귀향민들이 그와 같은 교육을 통해 독일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독일 사회가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 법질서, 과거 역사적 경험, 문화 등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을 덜어주고 주위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첫째, 귀향자들이 신뢰성있는 개인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법과 학습방안을 개발·적용하며 둘째,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가자들 스스로가 동반자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학습자들의 욕구가 학습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이 지향하는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스스로 책임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섯째, 개별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자발적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3) 사회통합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30단위 학습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과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언어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이 가능할 경우, 언어시험 합격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과정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첫째, 독일 국가라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다. 귀향자들은 독일과는 상이한 그 이전 살았던 국가에 대한 인식을 안고 독일에 오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독일 국가라는 주체, 즉 연방주의, 사회적 국가성, 정당제도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국가 주체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과정의 주 목표다. 이를 통해 귀향자들이 접하게 되는 각종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외국인청, 행정관서 등에 익숙해 질 수 있으며,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판단력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독일 국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독일 사회, 정치체제,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독일이라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귀향자 스스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독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귀향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통합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한편 독일 주민으로서 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넷째, 독일 사회의 주민으로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물론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모든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한 지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섯째, 독일의 문화와 융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즉, 귀향자들이 견지해 온 문화적 배경이 독일의 문화와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문화적 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과목으로는 먼저 법질서라는 과목으로

- 독일연방공화국의 조직, 민주주의, 정치사회, 선거권,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법치국가
- 사회적 국가질서
- 기본권
- 주민의 의무 등이 있으며,

역사 과목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성립과 발전이 있으며, 문화분야에서는 독일인물, 시대상, 종교생활 등이 있다.

상급과정에서는 유럽과 사회적 시장경제, 유럽통합, 독일통일, 독일 이주민의 역사, 문화와 종교적 다양성, 사적인 생활과 직업 등이 있다.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기본적으로 성인교육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

어진다. 성인교육은 언어학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또한 강의 위주의 시간과는 별도로 토론과 주제에 대한 반응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본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고도의 추상적인 범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수업시간은 가능한 한 실제생활과 밀접한 방향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의 이해를 돕고 수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영상매체, 음향매체를 동원하거나 컴퓨터를 통한 학습에 주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참가자들 사이의 역할 분담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4) 최종시험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최종시험에 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언어능력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물론 언어시험은 언어학습과정의 이수없이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대한 시험은 반드시 그 과정 이수자만이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종시험은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시험과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대한 합격이다. 언어시험과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대한 시험은 모두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구성된다.

시험은 정부가 공인한 단체에 의해 치러진다. 언어과정은 독해, 회화, 문법, 청취, 작문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구두시험에는 특별주제에 대한 의사발표, 과제에 대한 공동해결 능력 등을 보게 된다.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대한 시험은 독일의 법질서, 역사와 문화 등의 분야에 걸쳐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독일어능력증명서와 오리엔테이션 과정의 합격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전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일부 과목에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경비로 전체 과정을 반복하거나 일부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 라. 시사점

이탈주민에 대한 서독 정부의 정책은 이탈주민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서독 주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탈주민들에게는 차별화된 이주동기, 체제의 상이성, 이탈주민의 적응력을 비롯하여 서독주민의 동독 주민 이주에 대한 차별적 반응 등에 따라 서독사회에 정착하는 데 겪는 일반적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서독 정부의 이탈주민에 대한 제반정책은 그와 같은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합법 이주민이나 탈출 이주민에 관계없이 모두 독일 국민으로 간주하여 수용했던 정책은 이들의 서독 사회적응력에 크게 기여했으며, 서독의 사회보장제도 또한 이들에게 서독주민과 다름없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줌으로써 서독 사회에의 적응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서독의 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생존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책추진은 바로 이탈주민에 적용하는 법·제도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연스러운 정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 Ⅲ

# 사안별 사회적응 프로그램 분석

## 1. 가족결연사업[36]

### 가. 목적 및 목표

#### (1) 목적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과의 결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 (2) 목표

목표 1.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자기보호능력을 강화시킨다.

세부목표 1 남한사회 이해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안내지 자체제작

세부목표 2 고용안정센타 및 기타 취·부업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취·부업 알선

세부목표 3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실 참여

목표 2.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감소시킨다.

세부목표 1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실시

세부목표 2 남한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탐방 분기별 1회 실시

세부목표 3 남한 및 북한이탈주민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가족캠프 연 1회 실시

세부목표 4 결연가정이 함께 하는 송년행사 연1회 실시

---

[36]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2005년 사업내용이다.

목표 3. 상호방문, 전화상담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1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결연가정을 분기별 6가정씩 결연

세부목표 2 결연가정 교육 분기 1회 실시

세부목표 3 생활 및 정보공유를 위한 상호가정방문 월1회 실시

세부목표 4 전화통화 주 1회 이상 하기

## 나. 내용

### (1) 대상

| 집단구분 | 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 | 단위수(명) |
|---|---|---|
| 클라이언트 수 | 본인 신청 및 본관에서 결연가정 대상으로 선정한 주민 | 24세대<br>남한가정 12세대<br>북한가정 12세대 |

### (2) 일정 :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 (3) 실시 현황

| 세 부 사 업 명 | 프로그램 기간 | 대상 | 실시현황(실적) |
|---|---|---|---|
| 결연가정조직 | 2005.1~8월 현재 |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주민 | 15가정 |
| 결연가정교육 | 2005.1~8월 현재 |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주민 | 3회/30명 |
| 상호가정방문 (가정방문및전화상담) | 2005.1~8월 현재 | 결연가정 | 월1~2회 |
| 가 족 캠 프 | 7월 22일~24일 |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주민 | 39가정 67명 |
| 사 례 관 리 | 2005.1~8월 현재 | 결연가정 15정 | 15가정 42명 |

## 다. 예시(결연가정과 캠프)

### (1)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의 이해 및 남한가정과의 만남을 통해 대인관계형성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 (2) 주제 : 가족과 함께 하나되기 – 네번째

### (3) 장소 : 충남 태안 (어은돌 해수욕장)

- 대실 : 2실 , 소실 : 1실, 쪽방 : 1실. 거실까지 숙소로 활용가능

### (4) 참여인원 : 총 88명

(북한이탈주민가정 25세대 39명, 남한가정 11세대 28명, 총 36가정 67명, 봉사자 및 직원 21명)

### (가) 참여대상자 연령분포

| | 6세 이하 | 7~12 | 13~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세이상 | 계 |
|---|---|---|---|---|---|---|---|---|---|
| 남한가정 | 4 | 12 | 0 | 0 | 4 | 5 | 3 | 0 | 28 |
| 북한가정 | 2 | 10 | 6 | 0 | 5 | 11 | 4 | 1 | 39 |
| 계 | 6 | 22 | 6 | 0 | 9 | 16 | 7 | 1 | 67 |

(나) 등록인원과 실제참여인원에 대한 비교

| 분 류 | 인 원 | 비 고 |
|---|---|---|
| 최초 모집인원 | 80명 | |
| 모집인원 중 실제참여자 | 67명 | (13명은 북한이탈주민 3명, 남한주민 10명) 84% |
| 미예상인원 | 3명 | |
| 남북한비율 | 42% 대 58% | |
| 아동 | 28명 | 12세이하 |
| 청소년 | 6명 | 13~19까지 |
| 성인 | 33명 | |
| 남 / 여 비율 | 67명 | 37(55%)명 대 30(45%)명 |

### (5) 북한이탈주민 캠프 관련 프로그램 실시 전 욕구조사 결과

(가) 욕구조사 참여세대 : 북한이탈주민 24세대 중 12세대

(나) 욕구조사 방법 :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다) 조사결과

| 성명 | 내 용 | 프로그램실시 여부 |
|---|---|---|
| 김00 | • 가족간의 함께 여유를 나눌 수 있는 자유시간이 많았으면 한다. | • 경험이 없어 힘듬 |
| 최00 | • 장소가 바닷가이니만큼 수영이나 기타 갯벌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 • 경험이 없어 힘듬 |
| 신00 | • 자기소개/상대방에 대한 좋은점 얘기하기 같은 이야기형식의 프로그램 진행<br>• 경쟁심유발프로그램 지양, 상품지양(줄려면 다주었으면 함)<br>• 자유롭게 얘기하고 자유롭게 노래부르고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 • 경험이 없어 힘듬 |
| 박00 | • 자유시간이 많았으면 함<br>• 모둠활동 등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함 | • 경험이 없어 힘듬 |
| 김00 | • 자기소개나 원하는 것 밝히는 것 등의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은 원치않음(집단활동이나 조직활동 등의 내용은 원치않음) | |
| 김00 | • 자신을 소개나 원하는 것 밝히는 것 싫어함<br>• 가족끼리(모둠별) 활동 및 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레이션이 있었으면 함 | •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해볼 의향은 있다. |

| 성명 | 내 용 | 프로그램실시 여부 |
|---|---|---|
| 김00 | • 첫경험이라 기대가 된다. | |
| 최00 | • 첫경험이라 기대가 된다.<br>• 자신의 전직을 살려 봉사를 하고 싶다.(한의사) | • 건강강좌 가능 |
| 허00 | • 복지관 프로그램에 따르겠다. | |
| 김00 | • 복지관 프로그램에 따르겠다. | |
| 한00 | • 복지관 프로그램에 따르겠다. | • 가수이니만큼 노래는 부를 수 있다. |
| 김00 | • 가족끼리 즐길 수있는 프로그램 있다. | |

### (6) 가족캠프 전체일정

<table>
<tr><th>시간<br>요일</th><th>22일(첫째날)</th><th>23일(둘째날)</th><th>24일(세째날)</th></tr>
<tr><td>07:00</td><td></td><td>기상/세면</td><td>기상/세면</td></tr>
<tr><td>08:00</td><td rowspan="2">물품정리<br>인원점검</td><td>아침식사</td><td>아침식사</td></tr>
<tr><td>09:00</td><td>아침산책</td><td rowspan="2">물놀이/자유시간</td></tr>
<tr><td rowspan="2">10:00</td><td>입소식</td><td rowspan="2">집단활동 I<br>모둠별 게임</td></tr>
<tr><td>도입프로그램</td><td>이동및샤워</td></tr>
<tr><td>11:00</td><td rowspan="3">이동<br>점심식사</td><td>휴식</td><td>나눔/평가(그룹별)<br>- 롤링페이퍼</td></tr>
<tr><td>12:00</td><td>점심식사</td><td>점심식사 및 퇴소준비</td></tr>
<tr><td>13:00</td><td>자유시간</td><td>퇴소식 (사진촬영)</td></tr>
<tr><td>14:00</td><td>도착및 방배정</td><td rowspan="3">준비운동<br>물놀이</td><td rowspan="11">집으로....</td></tr>
<tr><td>15:00</td><td>물놀이</td></tr>
<tr><td>16:00</td><td>이동및샤워</td></tr>
<tr><td rowspan="2">17:00</td><td rowspan="2">휴식</td><td>이동 및 샤워</td></tr>
<tr><td>휴식</td></tr>
<tr><td>18:00</td><td>저녁식사</td><td rowspan="2">저녁식사</td></tr>
<tr><td>19:00</td><td rowspan="3">또래별모임 I<br>아동 ‖ 청소년 ‖ 성인</td></tr>
<tr><td>20:00</td><td rowspan="2">또래별모임 II<br>아동 ‖ 청소년 ‖ 성인</td></tr>
<tr><td>21:00</td><td>취침준비</td></tr>
<tr><td>22:00</td><td rowspan="3">잠자리</td><td>자유시간</td></tr>
<tr><td>23:00</td><td>취침준비</td></tr>
<tr><td></td><td>잠자리</td></tr>
</table>

### (7) 캠프진행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 (가) 도입프로그램(전체프로그램)

| 제 목 | 도입프로그램 | 담 당 자 | | |
|---|---|---|---|---|
| 장 소 | 3층강당 | 소요시간 | 1시간 | 22일 10:20~11:20 |
| 목 표 | 가족과 하나되기 위한 도입으로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알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준비물 | 전지 각 모둠별 1장씩, 크레파스 각 모둠별 두개정도 | | | |
| 진행 과정 | • 도입<br>다함께 노래부르기(서로의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같이 노래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른다.-숫자쏭, 당근쏭, 남자는배 여자는 항구, 남행열차 등)<br>- 준비물 노래가사 PPT<br><br>• 전개<br>1. 인사나누기(같은 모둠원이 된 사람들이랑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br>1) 자신의 이름 말하기<br>2) 내 성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br>3)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br>- 준비물 : 인사나누기 순서 PPT<br>3. 공동화그리기<br>서로 말을 하지 않은채 공동으로 전지에 서로가 순서대로 이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br>준비물 - 전지(각 모둠별 1장) 크레파스(각 모둠별 2개씩), 잔잔한 음악<br>4. 이야기나누기(그림을 그리면서 자신들은 무슨 생각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렸는지 나눠 보도록 한다. 서로 생각한 것이 달라도 또 서로의 그림을 이어가고자 마음을 다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보는 시각도 다르지만 함께 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br>- 준비물 : 잔잔한 음악<br><br>• 결론<br>5. 미니메세지(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 환경, 생김새,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다름을 서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프 동안에 서로 달라서 불편한 점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름다운 캠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 | | |
| 마무리 | - 박수로 마무리하고 다시한번 캠프시 주의사항 및 숙지사항 전달 | | | |

### (나) 또래별 프로그램(아동)

| 제 목 | 집단프로그램<br>- 가족액자만들기- | 담 당 자 | | |
|---|---|---|---|---|
| 장 소 | 숙소 | 소요시간 | 2시간<br>30분 | 22일 19:00~21:30 |
| 목 표 | 가족과의 사진 또는 그림을 활용하여 액자를 만들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시함으로써 캠프일정동안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 | | |
| 준비물 | 두꺼운 종이, 본드, 폴라로이드사진기, 필름, 장식재료 | | | |
| 진행<br>과정 | • 물품준비 및 안내<br>- 미리 사진 크기에 맞추어 액자틀을 준비한다.<br>- 아동들이 액자를 꾸밀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식 재료를 준비한다.<br>• 도입<br>- 인사나누기(같은 모둠원이 된 사람들이랑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br>자신의 이름과 학년, 나이 등 자신을 소개한다.<br>- 얼음장깨기<br>간단한 레크로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한다.<br>• 전개<br>- 액자만들기<br>· 아이들에게 액자틀과 필요한 준비물들을 나누어준다.<br>·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아동들에게 나누어주어 액자틀 안에 붙일 수 있도록 한다.<br>· 주변의 조개나 조약돌 등으로 액자의 테두리를 꾸밀 수 있도록 한다.<br>• 결말<br>- 가족이야기 하기<br>· 아동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br>· 서로의 가족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동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 | |
| 마무리 | · 박수로 마무리하고 다시한번 캠프시 주의사항 및 숙지사항 전달<br>· 취침 | | | |

### (다) 또래별 프로그램(청소년)

| 제 목 | MBTI 검사 | 담 당 자 | | |
|---|---|---|---|---|
| 장 소 | 솔모루 팬션 | 소요시간 | 2시간 30분 | 22일 19:00~21:30 |
| 목 표 |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대인관계 증진을 위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른 성격유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 | |
| 준비물 | MBTI 검사지 10개(24,000원), 결과 자료 책자, 다과 | | | |
| 진행 과정 | • 도입<br>아이스 브레이크(서로의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서로의 장점 칭찬하기)<br>- 외모, 성격 등.<br><br>• 전개<br>1. MBTI 소개<br><br>1) MBTI 설명<br>MBTI는 나는 남과 다르며, 남 또한 나와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내향성-외향성,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 중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비슷한 성격을 짐작해 본다.<br><br>2) 검사(검사지 소개 및 검사하기)<br><br>3) 다과 및 게임<br>검사를 마치고 다과와 함께 간단한 게임 진행<br><br>4) 검사 결과 및 토의, 느낌 나누기<br>결과와 결과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부한다. 자신이 짐작해 본 성격과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본다. 나와 다른 친구들의 성격들을 듣고 자신의 느낌 나눈다. | | | |
| 마무리 | - 서로에 대한 다름을 다시 한 번 이해한다. | | | |

### (라) 또래별 프로그램(성인)

| 제 목 | 집단활동 | 담 당 자 | | |
|---|---|---|---|---|
| 장 소 | 솔모루 팬션 | 소요시간 | 2시간 30분 | 22일 19:00~21:30 |
| 목 표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남북한 주민의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 | |
| 준비물 | 스케치북, 두꺼운도화지, 네임팬(10개), 사진, 음료수(6pt), 종이컵 | | | |
| 진행과정 | • 도입<br>북한말 스피드퀴즈 (분위기 띄우기)<br>- 방법: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말을 설명하고 남한사람들이 설명한 단어를 맞춘다.<br>- 남한사람들이 북한말 퀴즈를 통해 북한에서 쓰는 말을 새롭게 알게 되고, 같은 의미의 말이지만 남북한의 다른 언어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서로를 아는 시간을 갖는다.<br><br>• 전개<br>1) 취업안내 프로그램<br>- 남한사회의 직업과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남북한 주민이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br><br>2) 사진말 만들기<br>방법: 7장의 사진을 나누어주고 사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각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후 사진들을 일정하게 나열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br>-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의 차이를 좁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 | | | |
| 마무리 | 취침준비를 하고, 둘째 날 일정에 대해 간단한 안내를 한다. | | | |

## 라. 평가

### (1) 참여대상자 만족도 평가

① 캠프장소는?

- 캠프장소는 “아주 좋았다”가 38.5%의 비율이 나타났으며 “좋았다”가 38.5%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좋았다”라는 항목 이상에 집중되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② 캠프기간에 대한 만족도?

- 전체 응답자 65명 중에서 캠프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적당했다” 항목 과반수가 넘는 53%의 비율이 나타났다. 반면에 13.9%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짧다”와 “너무 짧다”에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캠프기간이 “적당하였다”라는 항목으로 집중되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③ 숙소는?

- 숙소는 “좋았다” 항목에 38.5%가 나왔으며 “아주 좋았다”라는 항목에도 27.7%로 높은 비율이 나왔다. 따라서 “좋았다” 항목 이상에 66.2%의 비율이 나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반면에 “조금 불편했다” 이하 항목에도 20%의 부정적인 응답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④ 식사 및 반찬은?

- 식사 및 반찬은 “좋았다” 항목이 46.6%가 나왔으며 “아주 좋았다” 항목이 38.5%가 나왔다. 전체적으로 “좋았다”라는 항목 이상에 84.7%가 나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⑤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 (2가지 택)

-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물놀이가 48%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 활동과 또래별 모임 I 이 각각 15.7%와 14.6%로 그 다음 순위를 나타내었다.

⑥ 다음에 캠프를 가신다면 어디로?

- 다음 캠프 장소 선정을 묻는 질문에서는 바다가 15.4%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바다, 동해, 제주도, 계곡과 강가 항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물놀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높은 욕구를 알 수 있다. 또한, 캠프 장소였던 어은돌 해수욕장이 9.2%를 차지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⑦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되었나?(남한가정에 한정)

- 영/유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대답과 이들이 두려움 존재가 아닌 이웃주민으로 마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률이 80%를 상회했다.

### (2) 종합평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결연가정사업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들과의 이질감해소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겪어온 생활과 일반 지역사회주민이 겪어온 생활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북한이탈주민결연가정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결연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었던 가족캠프에서 제시되었던 평가내용 중 남북한 비율의 부조화로 인한 남한가정이 위축되었다는 내용과 남한가정의 성인남성의 참여율 미흡, 친분에 따라 어울리는 경향(북한가정) 등 이질감을 좁힐 수없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업이 단지 한 두 번의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늘어난 자유시간이 다소 미흡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자유시간 운영시 직원들의 역할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캠프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잠자리는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프로그램 운영시 좀 더 넓은 공간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지와 숙소가 동일하여 프로그램 운영자들

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가족캠프 운영시 별도의 프로그램 진행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참여인원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목표설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전반적인 결연가정사업의 초점을 남북한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함으로써 서로간의 만남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캠프이며, 이는 초기 주민교육부터 시작해 실제 캠프진행, 그리고 사후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현재는 사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전술한 바 결연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 인식의 변화 즉 북한이탈주민과 남한가정이 서로 하나라는 인식을 시켜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관 캠프에 참여했던 남북한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캠프자체가 그 역할을 다 했다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후 프로그램은 이들이 주변인들을 변화시키므로 인해 전반적인 남북한 주민의 인식변화를 통해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프로그램은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결연가정이 가진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참여대상자를 통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한다.

2002년~2004년 가족캠프를 통해 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리더의 역할을 한 케이스는 단 2사례뿐이다. 그러나 이들로 인해 남북한주민의 인식변화는 작년과 비교해 참여한 남한가정(2004년 1가정, 2005년 11가정)의 수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선험적인 경험을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과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는 대중매체의 어떠한 영향력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선험적인 경험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통해 주변사람의 변화를 유도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관에서는 금번 캠프를 통해 남북한주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결과를 이들의 입을 통해 더욱 더 파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결연가정의 공동체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결연가정의 주요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는 서로간의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및 문화공유이다.

캠프를 통해 서로간의 인식이 개선되었다면 캠프이후에는 조금 더 질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관에서는 이들간의 가정방문을 통해 서로간의 생활 및 문화공유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11가정의 남한가정과 25가정의 북한이탈주민가정 캠프 참여가정 중 본관에 지속적인 참여가정은 남한가정 4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15가정 정도이다.

이들은 초기의 어색함에서 벗어나 서로간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남한가정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대한 사고의 전환에 대한 의사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인식개선이 되었으며, 이러한 것은 이중 3명이 현재 정착도우미사업(초기전입자의 도우미역활)에도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본관에서는 매분기마다 평가를 진행하면서 금년 3/4분기까지 초점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이었으며, 이에 대한 양적인 평가를 본다면 334건으로 전체 목표 대비 80%로 실적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중 결연가정의 기초가 되는 결연가정의 결연률 62%, 가족행사의 경우는 67%의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질적인 평가에 있어서 인식개선의 예로 든 후원금품의 경우, 85%의 성과를 보여 그동안의 결연 및 가족행사를 통해 남한주민의 인식을 많이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실제 결연률이나 가족행사의 경우 3/4분기 기준 75%를 넘지 못하고 있으나 일단 첫 번째 목표인 인식개선의 차원은 많은 면에서 나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남북한주민의 결연률 확대, 남북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 2. 청소년 학습쉼터[37]

### 가. 목적 및 목표

#### (1) 목 적

지역내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서비스 개입을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며,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겪는 학교부적응 현상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이질감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이들이 건강한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목 표

목표 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세부목표 1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심리적 변화를 관찰하

[37]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이 실시한 사업내용이다.

여 전문적인 상담계획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2 북한이탈청소년들과 심리치료사와 지속적인 개별상담을 통해 남한사회적응에 어려움으로 인한 부적응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세부목표 3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학습지도로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4 기능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잠재된 개인의 능력을 개발시켜 여가선용학습으로 활용한다.

목표 2. 남한사회 체험활동의 기회를 통해 문화적, 사회적 이질감을 경감시킨다.

세부목표 1 연극, 음악회, 문화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내 화목을 도모한다.

세부목표 2 다양한 특기적성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남한청소년들의 취미, 특기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목표 3.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들간의 통합교육과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전인적 발달을 유도한다.

## 나. 내용

### (1) 대상자 : 강서구 지역 내 북한이탈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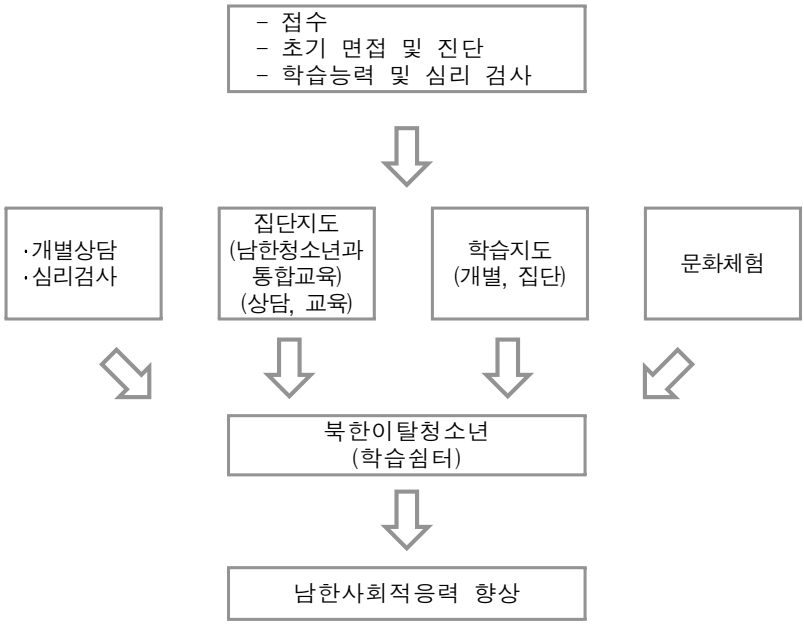
### (2) 강서구 가양3동 북한이탈청소년 현황

| 연령분포 | 남자 | 여자 | 비고 |
|---|---|---|---|
| 1세~10세 | 15명 | 14명 | |
| 11세~18세 | 15명 | 13명 | |
| 19세~25세 | 22명 | 19명 | |
| 총 계 | 52명 | 46명 | 18세미만 청소년 인원수 (57명) |

출처 : 2005년도 가양3동 자료

### (3) 실시장소 : 복지관 학습쉼터(강의실), 가정, 타 외부교육기관, 문화시설

### (4) 접근 및 실시방법



## 다. 예시

### (1) 세부추진계획

| 사업명 | | 일정 | 목표 | 사업진행내용 |
|---|---|---|---|---|
| 사업 준비 단계 | 대상자 선정 및 홍보 | 1월 ~ 2월 | -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대한 사정<br>-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해 통합의 중요성을 홍보함 | -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선정하여 사정한다.<br>- 참여대상 가정 및 참여 학교에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
| 개별 사례 관리 |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3월 ~ 12월 | - 북한이탈아동의 심리상태 사정<br>- 심리검사 : 25명 × 2회 = 50명<br>- 심리치료 : 5명 × 10회 = 50명 | - 대상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 |
| | 개별상담 | 3월 ~ 12월 | - 개별상담 및 가족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br>- 25명 × 24회 = 600회 | -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을 통해 대상 및 가족의 갈등요소 및 부적응적 요소를 해소시킨다. |
| 학습 지도 및 특기 적성 교육 | 학습진단 검사 | 3월 | - 학습방법진단검사 및 지능검사 실시<br>25명 × 2회 = 50회(지능검사1회, 학습방법진단검사1회) | - 지능검사 및 학습방법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학습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
| | 학습 클리닉 | 3월 ~ 4월 | - 학습클리닉을 통해 올바른 학습방법제시<br>10회 × 25명 = 250명 | - 학습클리닉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 | 학습지도 | 1월 ~ 12월 | - 개별화한 학습지도로 학습능력 향상(전과목 교실)<br>실인원 25명<br>- 영어, 수학교실<br>실인원 25명 | - 개별지도 월-금 14:00 ~ 20:00<br>- 영어교실 : 화, 목<br>- 수학교실 : 월, 수, 금 |
| | 대학탐방 (항공대) | 5월 | - 항공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함 | - 대학생활을 선 체험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 한다. |
| | 특기적성 교육 | 1월 ~ 12월 | - 동아리조직을 통한 다양한 특기적성개발 교육<br>실인원 25명 | - 북한이탈아동들의 잠재된 능력개발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장점을 살린다. |

| 사업명 | | 일정 | 목표 | 사업진행 내용 |
|---|---|---|---|---|
| 남한사회체험활동 | 야외문화활동체험 | 1월 ~ 12월 | -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문화행사 실시를 함<br>- 총 4회 실시 | - 남북한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함<br>- 가족과 함께하는 남한사회 체험실시 |
| 집단활동프로그램 | 사회성 개발 | 4월 | - 또래 남한아이들과의 대인관계 증진<br>- 6회 실시 | - 공동체의식의 중요성과 사회질서를 배운다. |
| | 심성개발 | 5월 | - 올바른 자아가치관 확립을 돕는다.<br>- 6회 실시 | -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 | 남한사회 이해하기 | 4월 ~ 9월 | -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실시<br>- 총 2회실시(경제교육, 정신교육) | -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정치,경제,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
| 평가회 | 중간평가 | 6월 | -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br>-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정 | - 평가보고서 작성<br>- 다과시간을 마련하여 소감을 나누고 활동내용을 돌아본다. |
| | 종결평가 | 12월 | | |

## (2) 담당인력 구성

| 이름 | 담당부서 및 직위 | 경력(년) | 담당 역할 | 할당시간 (단위:1주일) |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
|---|---|---|---|---|---|
| ○○○ | 복지관 관장 | 실무경력 21년 | 프로그램전체 지도, 감독 | 주1시간 | 사회복지사1급 |
| ○○○ | 복지관 부장 | 실무경력 10년 | 프로그램전체 지도, 감독 | 주2시간 | 사회복지사1급 |
| ○○○ | 프로그램 자문교수 |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SUPERVISOR 경제교육, 정신교육담당 | 주0.25시간 | 복지관자문위원 |
| ○○○ | 한겨레심리상담센터소장 | 상담경력 10년 |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 주0.25시간 | 상담심리사1급 |
| ○○○ | 복지관 과장 | 실무경력 6년 | SUPERVISOR 프로그램담당 | 주3시간 | 사회복지사1급 |
| ○○○ | 복지관 사회복지사 | 실무경력 4년 | 프로그램 담당 | 주5시간 | 사회복지사1급 |
| ○○○ | 복지관 사회복지사 | 실무경력 1년 | 프로그램 진행 | 주5시간 | 사회복지사1급 |
| ○○○ | 학습클리닉 전문강사 | 성신여대 심리학석사 | 학습능력 검사 및 학습클리닉 진행 | 10회기 | 임상심리사1급 |
| ○○○ | 멘터 | 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진행 보조 | 주3시간 | |
| ○○○ | 멘터 | 서울신대 보육학과 |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진행 보조 | 주3시간 | |
| ○○○ | 멘터 | 홍익대 산업시스템공학 |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진행 보조 | 주3시간 | |
| ○○○ | 멘터 | 가톨릭 의류학 |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진행 보조 | 주3시간 | |
| ○○○ | 멘터 | 홍익대 산업공학과 |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진행 보조 | 주3시간 | |
| ○○○ | 멘터 | 홍익대 산업공학과 |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진행 보조 | 주3시간 | |
| ○○○ | 멘터 | 고려대 수학교육학과 |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진행 보조 | 주3시간 | |
| ○○○ | 멘터 | 서강대 사학과 |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진행 보조 | 주3시간 | |

### (3) 지출항목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항 목 | | 예산 집행계획 | | |
|---|---|---|---|---|
| | | 산출내역 | 신청금액 | 자부담 |
| 인건비 | 상담원활동비 | 300,000 × 3개월 = 900,000 | 900,000 | |
| | 심리상담비 | 300,000 × 2회 = 600,000 | 600,000 | |
| |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 50,000 × 10개월 = 500,000 | | 500,000 |
| | 소계 | | 1,500,000 | 500,000 |
| 사업비 | 심리검사 | 심리검사지 구입비 및 운영비<br>200,000 × 2회 = 400,000 | 400,000 | |
| | 케이스관리운영비 | 케이스관리 및 가정방문 활동사업비<br>50,000 × 10개월 = 500,000 | | 500,000 |
| | 집단지도 | 집단활동 프로그램 운영비<br>200,000 × 3회 = 600,000 | 600,000 | |
| | 특기적성<br>프로그램운영비 |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비<br>200,000 × 4명 × 4개월 =<br>3,200,000 | 3,200,000 | |
| | 문화체험 | 500,000 × 3회 = 1,500,000 | 1,500,000 | |
| | 학습지도 | 교재 구입비<br>30,000 × 25명 = 750,000<br>간식 구입비<br>10,000 × 25명 = 250,000 | 1,000,000 | |
| | 명절익히기 | 300,000 × 2회 = 600,000 | 600,000 | |
| | 지역사회<br>지원망 구축비 | 간담회 운영경비<br>10,000 × 20명 × 4회 = 800,000 | | 800,000 |
| | 평가비 | 평가회의비<br>50,000 × 4회 = 200,000 | 200,000 | |
| | | 평가보고서 제작 경비<br>700,000 × 1회 = 700,000 | | 700,000 |
| | 소계 | | 7,500,000 | 2,000,000 |
| 관리비 | 자원봉사자 관리비 | 40,000 × 10개월 = 400,000 | 400,000 | |
| | 쉼터관리비 | 유지보수비<br>100,000 × 3회 = 300,000<br>환경미화비<br>100,000 × 3회 = 300,000 | 600,000 | |
| | 소계 | | 1,000,000 | |
| 총 계 | | | 10,000,000 | 2,500,000 |

## 라. 평가[38]

사업에 대한 평가는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을 목표인원과 비교하여 사례관리, 심리검사, 학습지도, 특기적성개발, 집단활동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대상자에게 비친 영향 또는 변화는 경험적 관찰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 (1) 대상자에게 미친 영향 또는 변화

| 변 화 | 경험적/관찰 자료 내용 | 설문조사 / 통계 자료 내용 |
|---|---|---|
| 긍정적인 변화 (반응) | 1) 대상자(아동)<br>① 심리적 변화<br>부정적인 가치관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며, 자아존중감도 향상됨을 볼 수 있었음.<br>② 정서적 변화<br>지속적인 상담과 관심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과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br>③ 학습태도 변화<br>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었던 아동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고 학업성적이 향상되었으며, 올바른 학습습관을 기를 수 있었음.<br>④ 사회적 변화<br>이기적인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점차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br>2) 프로그램<br>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인성 및 심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 1)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br>① 심리적 변화<br>대부분의 북한이탈아동들은 사업초기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안정성과 활동성에서 정상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br>② 정서적 변화<br>우울증과 불안증을 보이는 경우가 아직 많았으며 이는 탈북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정서적 불안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는 많이 완화되었으며 특히 가족 중심의<br>문화체험과 집단 활동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br>③ 학습태도의 변화<br>초기 학습에 흥미가 없었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학습에 흥미를 가졌으며 특히 특기적성 교육을 통한 예술분야는 남한 아동보다 우수했으나 언어 면에서는 아직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br>2) SCT, HTP 검사<br>- 부정적 요소에 대한 표현이 많이 줄어들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변화를 많이 보였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다 심층적인 검사가 되지못하고 1회 검사만을 실시하여 사전, 사후변화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임. |

[38] 2005년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사업에 대한 2004년의 사업평가를 소개한다. 2005년의 사업평가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변 화 | 경험적/관찰 자료 내용 | 설문조사 / 통계 자료 내용 |
|---|---|---|
| 부정적 변화 (반응) | ①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개별적인 학습지도 및 다양한 욕구에 대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었음.<br>② 개별적인 학습차이가 뚜렷하여 개개인에 맞는 학습을 실시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음. | ① 월별시험을 실시한 결과 개별차에 의한 학습수준차이가 발생함.<br>② 기초선수학습이 부족한 아동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개별지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

### (2) 대상자의 만족도 수준 : 설문지구성과 분석표

| 질문 1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학습 성적에 도움이 되었나요? | | | | |
|---|---|---|---|---|
| 구 분 | 빈도(N)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
| 많은 도움이 됐다. | | | | |
| 그저 그렇다. | | | | |
|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 | |
| 질문 2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 흥미 있었으며, 계속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고른다면? | | | | |
| 구 분 | 빈도(N)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
| 풍선아트 및 찰흙놀이 | | | | |
| 축구교실 | | | | |
| 종이접기 | | | | |
| 동화구연 | | | | |
| 미술교실 | | | | |
| 스포츠댄스 | | | | |
| 한문교실 | | | | |
| 요가교실 | | | | |
| 질문 3 급식 및 간식은 만족하였나요? | | | | |
| 구 분 | 빈도(N)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
| 매우 만족한다. | | | | |
| 만족한다. | | | | |
| 보통이다. | | | | |
| 만족하지 않는다. | | | | |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

| 질문 4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 | | | |
|---|---|---|---|---|
| 구 분 | 빈도(N)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
| 학습지도 | | | | |
| 특별활동 | | | | |
| 급식 및 간식 | | | | |
| 질문 5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 | | | |
| 구 분 | 빈도(N)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
| 공부방법 및 습관을 배울 수 있음 | | | | |
|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것 | | | | |
|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 | | | |
|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것 | | | | |
| 기타 | | | | |
| 질문 6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 | | | | |
| 구 분 | 빈도(N)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
| 수업내용이 어렵다. | | | | |
| 수업내용이 쉽다. | | | | |
| 공부장소가 너무 춥고 비좁다. | | | | |
| 시간 변동이 많다. | | | | |
| 강사가 성의가 부족하다. | | | | |
| 질문 7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 하였나요? | | | | |
| 구 분 | 빈도(N)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
| 매우 열심히 참여했다. | | | | |
| 열심히 참여했다. | | | | |
| 그저 그랬다. | | | | |
|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다. | | | | |
| 매우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다. | | | | |
| 질문 8 남한 사회(아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북한아동만 답하시오) | | | | |
| 구 분 | 빈도(N)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
| 도움이 되었다. | | | | |
|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 | |
| 질문 9 내년에 통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북한아동만 답하시오) | | | | |
| 구 분 | 빈도(N) | 퍼센트(%) | 유효퍼센트(%) | |
| 참여하고 싶다. | | | | |
| 참여하고 싶지 않다. | | | | |

### (3) 부정적인 변화의 해결, 긍정적 변화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 부정적인 변화 | 해결 대안 |
|---|---|
| 1)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개별적인 학습지도 및 다양한 욕구에 대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었음.<br><br>2) 개별적인 학습차이가 뚜렷하여 개개인에 맞는 학습을 실시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음. | 복지관 자부담 부분을 확충하고 복지관 자체 내에 멘토링 사업과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을 통해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함. |
| **긍정적인 변화** | **제고 방안** |
| 1) 대상자(아동)<br>① 심리적 변화<br>부정적인 가치관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며, 자아 존중감도 향상됨을 볼 수 있음.<br>② 정서적 변화<br>지속적인 상담과 관심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과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br>③ 학습태도 변화<br>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었던 아동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고 학업성적이 향상 되었으며, 올바른 학습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됨.<br>④ 사회적 변화<br>이기적인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점차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br><br>2) 프로그램<br>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인성 및 심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 1)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진행자 및 담당자의 전문성 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임.<br><br>2) 임상위주나 주입식, 강의식 프로그램보다는 참여 아동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임. |
| **만족도 수준** | **제고 방안** |
|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함. | 피상적인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보다는 실질적으로 다음 프로그램에 피드백 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4) 목표의 달성정도

| 목 표 | 계 획 서 상 | 실 제 진 행 상 |
|---|---|---|
| 목 표 1<br>북한이탈아동들의 남한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및 기능 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 북한이탈아동들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교육을 지원함<br>① 목 표(실인원/연인원) : 15/3,200<br>② 횟 수 : 주 5회<br>③ 담 당 :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 북한이탈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목표를 초과 달성 함<br>① 목 표(실인원/연인원) : 23/3,956<br>② 횟 수 : 주 5회<br>③ 진행내용 : 통합교육을 통한 학습지도 및 개별 멘토 사업 진행 |
| 세부목표 1<br>full battery를 통한 심리 검사를 실시한다. | 1) 심리검사<br>① 목 표(실인원) : 15<br>② 횟 수(연인원) : 연3회<br>③ 담 당 :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1) 심리검사<br>① 목 표(실인원) : 15<br>② 횟 수(연인원): 연 18회<br>③ 진행내용 : full battery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실시할 수 없었으며, 그 대신에 한겨레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표준화 성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심리검사 결과에 의거 개별미술치료 및 집단 활동을 실시함. |
| 세부목표 2<br>1:1 개별상담을 통해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 2) 개별상담<br>① 목 표(실인원/연인원): 15/150<br>② 횟 수 : -<br>③ 담 당 : 상담원, 담당사회복지사 | - 개별상담<br>① 목 표(실인원/연인원) : 25/381<br>② 횟 수 : -<br>③ 진행내용 : 심리상담전문가, 강숙정 소장, 담당사회복지사가 진행함.<br>- Case 관리<br>① 목 표(실인원/연인원) : 25/381<br>② 일 시 : 매일<br>③ 진행내용 : 결식아동의 개별특성을 파악하며 주의력 결핍이나 성적이 부진한 아동은 개별치료를 실시하거나 개별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세부목표 3<br>학습지도를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킨다. | 2) 학습지도<br>① 목 표(실인원/연인원): 15/2,000<br>② 횟 수 : 주5회<br>③ 담 당 : 담당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 2) 학습지도<br>① 목 표(실인원/연인원) :23/2,704<br>② 횟 수 : 주5회<br>③ 진행내용 : 통합교육을 통한 학습지도<br>개별 멘토사업 진행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함 |
| 목 표 2<br><br>남한사회체험을 통한 문화적 이질감을 경감시킨다. | 북한이탈아동들에게 야외문화 활동, 가족문화체험,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경감시킨다. | 남한사회체험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많이 발생되어 실제 계획보다는 목표를 추가 달성함 |

| 목 표 | 계 획 서 상 | 실 제 진 행 상 |
|---|---|---|
| 세부목표 1<br><br>문화체험 전 아동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 남한사회 및 남한 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통합교육을 통해 남북한 문화의 차이점을 배울 수 있었으며, 남북한 아동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
| 세부목표 2<br><br>다양한 야외 문화 행사를 실시한다. | 문화행사<br>① 목 표(실인원) : 15<br>② 횟 수 : 12<br>③ 진행내용 : 가족과 함께 하는 남한사회 체험, 영화, 연극, 운동경기 관람<br>④ 담 당 : 담당사회복지사 | 문화행사<br>① 목 표(실인원/연인원) : 23<br>② 횟 수 : 18<br>③ 진행내용 : 가족과 함께하는 남한사회 체험, 영화, 연극, 운동경기 관람, 남북한 아동 통합 켐프 등을 실시함 :<br>- 3월 11일: 농구경기 관람<br>- 5월 19일: 삼성어린이 박물관 체험<br>- 7월 26-27일: 여름캠프<br>- 9월 24일: 야외영화상영 |
| 세부목표 3<br><br>특기적성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남한아동들의 취미특기 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이질감을 감소시킨다. | 특기적성 프로그램<br>① 목 표(실인원/연인원) :12<br>② 횟 수 : 1,200<br>③ 진행내용 : 특기적성프로그램 진행<br>④ 담 당 : 담당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 특기적성 프로그램<br>요일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참여 아동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br>① 목 표(실인원/연인원) :16/1,252<br>② 횟 수 : 프로그램별 주 1회 (16:00~17:00)<br>③ 진행내용 : 아동의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일별로 진행되고 있음.<br>(찰흙 및 풍선아트, 종이접기, 동화구연, 미술, 축구, 스포츠댄스) |
| 목 표 3<br><br>통합교육을 통한 상호간의 이질감을 극복하여 전인적 발달을 유도한다. | 북한이탈아동과 본관 방과후 교실 아동들을 그룹화하여 사회성 개발과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북한이탈아동과 본관 방과후 교실 아동들에게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업초기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과 북한이탈아동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애로점이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 |
| | | 4) 부모교육 프로그램<br>① 목 표(실인원/연인원) : 15/24<br>② 일시 : 6월14일, 8월 27일<br>③ 진행내용 : 올바른 자녀양육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법을 통해 건전한 가정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 목 표 | 계 획 서 상 | 실 제 진 행 상 |
|---|---|---|
| 세부목표<br><br>북한이탈아동과 본관 방과 후 교실 아동들을 그룹화하여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3) 집단활동 프로그램<br><br>① 목 표(실인원/연인원) : 15<br>② 횟 수: 12 | 3) 집단활동 프로그램<br>집단활동 프로그램은 독서지도프로그램과 자아성장프로그램,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br>① 참여인원 (실인원/연인원) : 23<br>② 횟 수: 주5회<br>③ 진행내용 : 독서는 매일 1권의 책을 읽고 독서카드에 기록하며 표현력 향상 및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함. |
| | | 정서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아성장프로그램과 독서지도 프로그램 등 특별활동을 실시하여 아동의 건전한 자아성장과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집단미술 프로그램, 요리교실,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사회성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 | | 2) 집단미술치료<br><br>① 참여인원(실인원) : 11<br>② 횟 수 : 4회<br>③ 진행내용 :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성을 개발하도록 함. |

### (5) 목표달성에 따른 파급효과

#### (가) 학습수준의 향상

초기 주입식,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별학습지도 및 대학생 멘토사업을 통해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습지도를 진행함에 따라 아이들의 성적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 (나) 방과 후 보호가 가능함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방과후 보호 및 교육이 가능해졌

으며 또한 급간식을 제공함에 따라 아동의 결식율을 줄일 수 있었다.

### (다)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흥미유발

요일별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따라 아동들이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 (라) 남북한 아동의 통합교육

남북한 아동들 간의 통합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수 있었다.

### (마) 북한이탈아동 및 청소년의 효과적 관리

복지관에서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아동들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님과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 졌다.

## (6) 목표달성상의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 목 표 | 저해요인 | 개선방안 |
|---|---|---|
| 전체목표 : 북한이탈아동에 대한 통합교육을 통해 남한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킨다. | | |
| 목  표 1 : 북한이탈 아동들에게 학습지도 및 기능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 세부목표 1 :<br>full batter 검사를 통한 심리변화추이를 본다. | 한정된 예산으로 full battery를 실시하가는 힘들다. | 무료로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을 개발하거나 자부담을 통해 실시하며 또한 개인별에 맞는 심리검사를 실시함 |
| 세부목표 2 :<br>심리상담전문가와 1:1 개별상담을 통해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하여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나 시간 및 비용관계상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 -개별상담 뿐 아니라 가족중심의 상담을 통해 가족전체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br>-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양육기능을 강화시킨다. |
| 세부목표 3<br>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학습지도로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일회성 자원봉사자가 많아 학습지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멘토육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습지도가 되도록 함 |

| 목 표 | 저해요인 | 개선방안 |
|---|---|---|
| 목 표 2 : 남한사회 체험활동을 통해 문화적 • 사회적 이질감을 경감시킨다. | | |
| 세부목표 1 :<br>문화체험 전 아동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력을 사정한다. | 북한이탈아동의 경우 남한문화에 무분별하게 동화되어 있음 | 남한사회 올바른 문화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 함 |
| 세부목표 2 :<br>야외문화 활동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한다. | - 일회성 위주의 행사진행 | - 야외문화 활동을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많이 경험하게 함<br>- 주로 관람위주의 단편적 프로그램실시보다는 체험위주나 장기적으로 자기 특기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문화체험 및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함. |
| 세부목표 3 :<br>특기적성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미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이질감을 감소시킨다. | 특기적성 강사 관리의 어려움<br>-주5회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따라 강사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 직장체험연수생이나 유급봉사자를 채용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최소 전 후반기에는 프로그램을 교체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 목 표 3 : 통합교육과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의 이질감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유도한다. | | |
| 세부목표<br>방과후 아동과 그룹화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남한아동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되어도 가족의 협조가 없어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 - 자아성장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을 돕는다.<br>- 가족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치료를 의뢰하거나 복지관 차원에서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 | 치료 대상 아동이 발생하더라도 아동중심의 치료보다는 치료사이 시간에 아동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치료효과가 감소함. | - 집단미술교실을 실시하여 심리적인 안정감 및 사회성개발을 유발시킨다.<br>- 대상자 중심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임 치료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치료실도 확보할 예정임. |

### (7) 영향 평가

#### (가) 사업이 개인의 문제 해결에 미친 성과

① 학습능력 향상

방과 후 공부방을 통해 학습지도와 멘토링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자신에 맞는 학습방법을 알 수 있었다.

② 정서적 안정감 증진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문화적 소외감 및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에도 도움이 되었다.

③ 사회성 개발증진

축구, 스포츠 댄스, 집단 활동을 통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심 및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사회성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④ 자아존중감 및 효능감 향상

사업 초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무기력한 학습 태도를 보이던 아동들이 학습 시작 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자신감 및 자기 효능감이 많이 향상되었다.

#### (나) 사업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미친 성과

① 교육의 기능 수행

프로그램 참여한 북한이탈아동 대부분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할뿐더러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혹은 학력이 높지 않은 관계로 인해 아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다소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복지관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은 이들 아동들에게 많은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② 보호의 기능 수행

방과 후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북한이탈 아동들에게 복지관에서 보호와 영양가 있는 급, 간식을 제공함으로서 결식아동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③ 사교육비 절감

참여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예를 들면, 미술활동, 풍선아트, 스포츠댄스, 영어교실)을 실시함에 따라 부모님들이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

④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

북한이탈아동의 문제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제의식을 심어주었다.

#### (다) 사업이 정책·제도에 미치는 시사점

북한이탈아동의 문제는 단순히 북한이탈아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가족이라는 단위로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독립이 아동의 남한사회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할 할 것이다.

## 3. 자활/취업

### 가. 목적 및 목표

#### (1) 목적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특례자 등 사업참여자 개개인의 근로의지와 욕구, 능력에 따라 맞춤식형태의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진출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향후 자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① 소양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의지를 함양한다.

②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③ 시장발굴 및 유료판매를 통해 고수익을 발생시켜 자활공동체 설

립의 기틀을 마련한다.
④ 민주적인 조합운영방식의 사업단운영으로 소속감을 향상시킨다.
⑤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정서적, 사회적 자립을 도모한다.

### (2) 목표

① 다양한 공예 기능의 습득으로 개인별 자활의 토대를 마련한다.
②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이디어 상품 개발을 강화한다.
③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익성 강화를 위해 개인별, 그룹별 전문가의 특별 지도 강습
④ 제품홍보 및 다양한 판로 개척(매장, 인터넷, 벼룩시장...)
⑤ 공동체 창업을 위하여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해 팀웍 개발을 위한 워크샵, 협동조합교육 및 다양한 정서적, 문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함.

## 나. 개념과 필요성

### (1) 개념

참여자들이 자신감과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은 물론 근로의욕 고취 및 회원간 협동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초 소양교육, 기술교육, 사례관리 등 관리 업무와 더불어 자연에서 존재하는 동·식물 및 광물을 염료로 이용하는 천연염료는 환경친화, 인체유익, 아름다운 색 등의 장점이 있어, 천연염색으로 제품만들어 사용할 경우 향균, 방충, 방습, 방부, 소취, 항알레르기 등 인체친화적인 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는 환경 친화적 사업으로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생활 속에서 실현함으로써 참여자들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

### (2) 필요성

첫째,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파견사업이나 용역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경우가 많아 개인별 상태에 따른 약한 노동으로 근로능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며 수공예(천연염료를 사용한 다양한 제품만들기) 사업은 건강이 취약한 조건부 수급자도 성실함과 끈기만 있으면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다.

둘째, 조건부 수급자들의 80%이상이 모자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소자본으로 창업을 위한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다.

넷째, 참여자가 직접 전문적인 제작 기술을 익히는 것과 함께 시장조사, 재료의 구입, 제품의 개발, 제작, 판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을 하여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섯째, 요즈음 천연염색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천연염색이 시도되고 있어 조만간 패션 소재 부분에서 천연 염색의 비중은 점차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운영방법과 과정

### (1) 사업의 개요

① 사 업 명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천연물드림'
② 참여인원 : 총 7명
③ 사업참여대상 및 자격 : 수급자 및 차상위 중 근로의욕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상담 및 면접을 통하여 선정한다.
④ 작업장소재지 :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06-5번지 지하
⑤ 근무시간 : 주5일 근무제(일일 8시간)

### (2) 세부사업 및 교육일정

서울 송파자활후견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의욕 및 자존감 고취를 위하여 생산적 사회복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가) 세부사업

| 구분 | 시기 | 내용 |
|---|---|---|
| 준비기 | 3~4월 | • 사업계획 및 방향에 대한 공유<br>• 홍보 모집<br>• 자활교육<br>• 유사 업종에 대한 기관방문<br>• 기술교육을 위한 시장 조사 |
| 추진기 | 3~12월 | • 소양 교육<br>– 자활근로의 이해<br>– 근로의식 고취<br>– 성공에 대한 동기 부여<br>– 자존감 향상<br>• 팀웍 강화<br>• 강사 섭외<br>• 기술교육(이론 및 실기)<br>※ 천연염색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공예<br>(천연염색, 퀼트, 홈패션, 구슬공예, 종이공예, 십자수...)<br>• 공동체 훈련<br>– 회원간 상호이해의 기회증진<br>– 사업단별 팀웤강화<br>– 대화법 훈련<br>• 심리사회지원사업<br>– 상담사업<br>– 사례관리를 통한 one-stop service 제공<br>– 개별상담을 통한 정서적인 지지강화<br>– 직업상담을 통한 진로개척 및 개발<br>• 가정기능 강화지원 사업<br>– 회원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보육사업 무료 참여지원<br>– 회원의 자녀를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지원<br>– 학업지도 자원봉사자 결연<br>– 후원금(품) 제공<br>– 결연사업 |

### (나) 교육훈련일정

| 구분 | 기간 | 내용 |
|---|---|---|
| 초기 교육 | 3월 | • 공예사업단의 운영원칙<br>• 비젼에 대한 논의와 공유<br>• 사업 참여조건에 대한 공유와 계약<br>• 안정된 팀웍을 위한 인간관계 훈련<br>• 개인의 상황과 자활에 대한 욕구에 대해 공유 및 나눔 |
| 기술 교육 | 상시 | • 자활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이해<br>• 신규참여자에 대한 내부 교육 시스템에 의한 기능교육실시<br>• 아이템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수공예 협회와 문화센터의 공예강좌 등 상시 수강을 통한 위탁교육 실시<br>•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
| 소양 교육 (공동체 훈련) | 월1회 정기적 교육 및 기획교육 | • 공동체 의식향상과 팀웍 개발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훈련, 회의진행 훈련, 살아온 이야기 공유 등 기본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실시<br>• 실질적인 매장 창업형 공동체 운영의 사례 알아보기 위한 소규모 매장을 탐방하기 00자활 및 00자활<br>• 협동조합 교육 실시 공동체창업을 위한 타 사업단 및 서울지부와 연합하여 시행 주민운동정보 교육원 등에 의뢰하여 위탁 실시 |

### (다) 수익성 확보 방안(전망)

| 구분 | 기간 | 내용 |
|---|---|---|
| 기획 판매 | 상시 | • 구청 등 공공기관 판매 섭외<br>• 각종 거리축제, 대학축제, 알뜰시장 등에 대해 기획 판매함. |
| 쇼핑몰 판매 | 개발 | • 인터넷 쇼핑몰 구축해 온라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함. |
| 매장 구축 | 개발 | • 소규모 공방형태의 매장을 구축하여 판매 및 교습함. |
| 강사 활동 | 상시 | • 지역의 초중고 방과후 특별활동 강사 및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섭외하고 홍보함.<br>• 아파트 단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4~5인 정도 소규모 그룹 교습이 가능하도록 함. |

### 라. 평 가

| 구 분 | 계량적 평가 | 질 적 평 가 |
|---|---|---|
| 평가지표 | • 천연물드림<br>• 월 2회 연 1,491명 | • 진행과정평가<br>• 목표평가<br>1) 소양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의지를 함양한다.<br>2)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br>3) 시장발굴 및 유료판매를 통해 고수익을 발생시켜 자활공동체 설립의 기틀을 마련한다.<br>4) 민주적인 조합운영방식의 사업단운영으로 소속감을 향상시킨다.<br>5)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정서적, 사회적 자립을 도모한다.<br>6) 특정지역을 선정 무료 배포하여 환경 청결하게 한다. |
| 평가도구 | 사업실시횟수 및 인원 | • 사업진행과정의 효과성·효율성<br>• 대상자들의 만족도 |
| 평가방법 | • 프로그램일지<br>• 목표량 대비 실적 달성율 | • 과정기록서(결과 보고서)<br>• 만족도 조사 설문지 |

##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39]

### 가. 명칭

본 프로그램은 대상자를 '인권피해자'로 특정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명칭을 '인권피해자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극복 지원 서비스'로 한다.

[39] NKDB가 개발한 PTSD 극복 프로그램을 상호협의 하에 전제하였다.

## 나. 목적 및 목표

### (1) 목적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북한 거주시 또는 탈북 및 송환과정에서 인권 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소,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에서 수용자 생활을 경험했거나, 탈북 및 송환과정에서 중국과 북한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을 표출하여 적정한 지원 서비스가 요구되는 인원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적응 조사 자료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거주시 또는 탈북 및 송환과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도 현재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남한사회 성공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목표

목표 1.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PTSD 진단 척도를 개발한다.

세부목표 1 외부 전문가들과 PTSD 팀을 구성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련된 스터디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세부목표 2 일반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선행 연구 리뷰를 통해 기존 PTSD 진단 척도 특성(장단점 및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각 척도들의 적합성을 파악한다.

세부목표 3 기존 진단 척도를 보안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과 이들의 외상 빈도와 수준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여 PTSD 예비 진단 척도를 개발한다.

세부목표 4 척도 개발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세부목표 5 서울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다음, 전문가 검토를 통해 문항을 수정·보안하여 PTSD 진단 척도를 완성한다.

세부목표 6 완성된 PTSD 척도로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한다.

세부목표 7 PTSD 진단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화 과정을 거친다. (본검사 실시 2달 후 검사-재검사 실시, 다른 PTSD 진단 척도와 공준 타당도 검토)

목표 2. 북한이탈주민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목표 1 상담 전문가에 의뢰하여 상담 매뉴얼을 제작한다 → 프로그램으로 활용

세부목표 2 북한이탈주민의 성향과 이들 상담시 유의점에 관하여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세부목표 3 진행자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상담자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세부목표 4 본검사를 통해 PTSD로 진단 내려진 조사 대상자 00명 중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00명에게 상담 프로그램(상담 서비스)을 제공한다.

세부목표 5 보다 효과적이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자들은 프로그램 진행 후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자

들로부터 그들이 상담한 내용에 대한 수퍼비전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목표 3. 본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돕는다.

세부목표 1 북한이탈주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착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세부목표 2 정착한 북한이탈주민과의 원활한 만남을 위해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민간단체와 돈독한 연계망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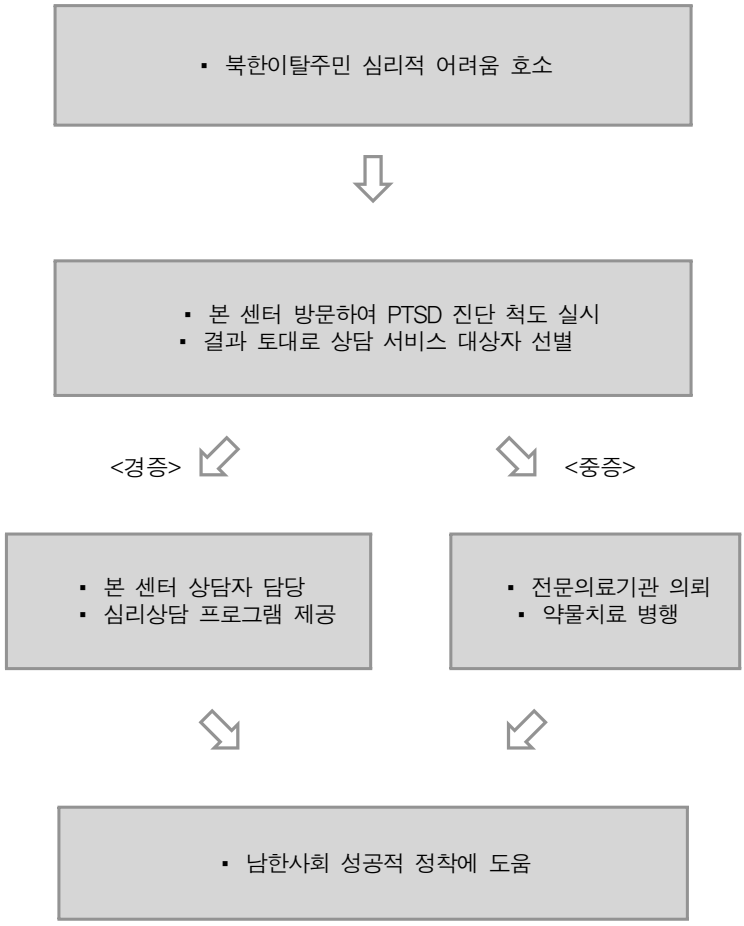
세부목표 3 북한이탈주민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다. 향후 사례관리 차원으로 지속한다.

## 다. 추진방법

### (1) 대상

| 프로그램 대상자 | 구체적 내용 | 인원 |
|---|---|---|
| · 하나원 입소 교육생 중 주요 인권피해 경험자 | -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 경험자<br>- 탈북 및 송환과정 고문 등 피해자<br>- 강간 및 성폭력 등 피해자<br>- 공개처형 목격자 등 | 매 기수별 2-3명 |
| · 사회정착 북한이탈주민 중 주요 인권피해 경험자 | -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 경험자<br>- 탈북 및 송환과정 고문 등 피해자<br>- 강간 및 성폭력 등 피해자<br>- 공개처형 목격자 등 | 20명 |

### (2) 접근 방법


▪ 북한이탈주민 심리적 어려움 호소
▪ 본 센터 방문하여 PTSD 진단 척도 실시
▪ 결과 토대로 상담 서비스 대상자 선별
<경증>
<중증>
▪ 본 센터 상담자 담당
▪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전문의료기관 의뢰
▪ 약물치료 병행
▪ 남한사회 성공적 정착에 도움

## 라.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 (1) 추진계획 모형

| 사업명 | 일정 | 목표 | 담당자 | 세부추진내용 |
|---|---|---|---|---|
| PTSD 정기 모임 | 2005.04 ~ 2005.12 | 북한이탈주민 관련 상담 공부 및 PTSD 공부 | PTSD 팀원 전원 | • PTSD 팀원은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을 가져 PTSD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과 그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돕는다.<br>• 내용 : 기존 선행연구자료 검토, 관련 단행본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심도 깊은 학습을 한다. |
| PTSD 진단 척도 개발 | 2005.04 ~ 2005.09 | 북한인권피해자에 적합한 PTSD 진단 척도 개발 | 팀장, 팀원 및 외부 전문가 | • 의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북한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간 팀을 결성하여 북한인권피해자에 적합한 PTSD 진단 척도를 개발한다.<br>• 내용 : 정기모임을 통한 정기적으로 PTSD 관련 학습을 하고 적합한 척도를 선정하여, 수정 보안 작업을 한다.<br>• Davidson Trauma 척도를 번안하여 PTSD 증상과 수준에 대한 척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북한인권피해자의 외상 경험을 반영하는 문항 내용을 선행연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삽입한다.<br>•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척도를 수정한 다음 본검사를 거쳐 북한인권피해 PTSD 진단 척도를 완성한다. |
| PTSD 극복 지원 프로그램 개발 | | 북한인권피해자에 적합한 PTSD 극복 프로그램 개발 | 팀장, 팀원 및 외부 전문가 | • 상담 기법 활용<br>• 프로그램 개발 이론 활용 |
| PTSD 극복 지원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 2006.01 ~ 2006.12 | 북한인권피해자에 적합한 PTSD 극복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 팀장, 팀원 및 외부 전문가 | • PTSD 사업 집행<br>• 사업집행 매뉴얼 작성<br>• 사업 평가 기법 개발<br>• 사업 평가 |

## (2) 추진계획 및 실행 예시

| 일정 | 주요내용 | 세부추진내용 |
|---|---|---|
| 2005년 4월 20일 | 가. 전문가 초청 간담회 | 1. 전문가 초청 간담회<br>· 일시 : 2005년 4월 20일(수) 4시~6시<br>· 강사 : 북한이탈주민 상담 전문가 섭외 (김00 하나원 심리담당)<br>·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 및 북한이탈주민 상담의 특성 |
| 2005년 4월~ 11월 | 나. 하나원 교육생에 대한 진단 및 상담 지원 | 1. 하나원 교육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상담<br>· 일시 : 하나원 입소 매기수별 1회 (4~11월, 8개 기수, 본원/분원 각 1회)<br>· 장소 : 하나원 본원 및 분원<br>· 내용<br>- 인권피해사례 조사 및 DSM-Ⅳ를 활용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br>- 인권피해경험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자와 1:1 개인 상담 실시<br><br>2. 사후 관리<br>· 면담 후 필요에 따라 사후 조치<br>· 대상자와 연계된 가족 구성원들에게 서비스 확대 제공 |
| | 다. 사회 정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단/상담 지원<br>· 일 시 : 매월 1~2회, 수시 진행.<br>· 대상자 : 이미 정착 생활중인 북한이탈주민<br>· 내 용 : 인권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상담 및 사후 조치 | 1. 사회정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단/상담지원<br>· 일 시 : 매월 1-2회, 수시 진행<br>· 대상자 : 기 정착 생활중인 북한이탈주민<br>· 내 용 : 인권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상담 및 사후 조치 |
| 2005년 12월 | 라. 상담 내용 Database 구축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 | 1. 상담 내용 Database 구축(신변 비공개)<br>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정책 대안 제시<br>- 자료집 발간 |

## 마. 내용

### (1) 세부내용

#### (가) 대상자 진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PTSD 사업은 대상자에 대한 검사와 진단으로부터 시작된다. 내담자는 하나원 교육생과 하나원 퇴소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나원 교육생은 하나원의 협조를 받아서 검사를 실시하며, 하나원 퇴소 후 사회정착자는 관련 민간단체 또는 개별적 요구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사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PTSD 진단척도를 사용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PTSD 유무를 판단한다. 또한 타당도를 위하여 불안척도와 우울 척도를 함께 실시하여 진단 신뢰도를 높인다.

#### (나) PTSD 수준 측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PTSD 척도 결과와 심층면접을 토대로 내담자의 PTSD 경중도를 판단한다. PTSD 수준에 대한 평가는 표준화된 틀을 구성하되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다.

#### (다) PTSD 수준별 상담방법 선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PTSD 수준이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담과 지원 서비스 형식, 내용을 결정한다. PTSD 수준이 경증인 경우에는 PTSD 지원서비스 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중증인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한다.

#### (라) 상담자와의 연결망 확보

PTSD 상담과 심리 지원서비스가 진행중이거나 일정 기간 서비스 제공 후 재진단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간격을 조정할 경우 이들 내담

자와의 지속적인 연결망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중증인 경우 전문 의료기관 담당의와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서비스와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진행과정

#### (가) 경증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단 결과 수준이 심하지 않은 경우 경증으로 진단되며, 이들은 심리 센터의 상담자가 담당하여 일정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재 진단하여 경과를 측정한다.

#### (나) 중증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단 결과 PTSD 수준이 심한 경우 중증으로 진단되며, 이들은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치료와 상담원과의 상담을 병행한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PTSD 사업에 대한 안내 자료집 제공과 지속적인 연결망 유지가 필요하다.

### (3) 프로그램 진행시 주의사항

**▶ 북한이탈주민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심리치료 가이드라인 ◀**

1. 북한이탈주민 내담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상담자의 진실성), 이들의 심리적 취약성보다는 강점과 자원을 먼저 보아야 한다.
2.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취조식의 폐쇄형 질문 대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
   - 폐쇄형 질문 : "그런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 두려웠나요?"(×)
   - 개방형 질문 : "그런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어땠나요?" (○)
3. 상담자-내담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적인 북한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 "일없습니다" → "괜찮다"는 의미
"시뚝하다" → "토라지다"란 뜻
"저는 백두산 날씨 같습니다." → "감정기복이 크다"는 뜻
"새쓰게" → "사이코"를 의미
"애꾸러기" → "말썽꾸러기"를 일컬음

4. 더 나아가서는 상담자는 언어 이면을 잘 읽어야 하며 비언어적 반응에 주의해야 한다. 부인이나 억압, 투사 등의 방어기제는 표면적 언어가 아니라 이중적인 메시지 등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은 비언어적인 태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첫 대면에서 특히 상담자는 시선, 몸짓, 경청자세, 이완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야한다.

<유의해야 할 내담자의 비언어적 표현들>
- 시선처리 : 아래만 바라봄, 눈알을 고정시키지 않음 등
- 입모양 : 입술을 꽉 물고 있음, 입술을 지근거림 등
- 얼굴표정 : 미간을 찌푸림, 눈물을 글썽거림 등
- 고개움직임 : 고개를 앞뒤로 끄덕임, 고개를 옆으로 저음 등
- 어깨움직임 : 움찔거림, 앞으로 숙임 등
- 팔과 손의 동작 : 팔짱을 끼고 있음, 손을 비틈, 주먹을 꽉 쥐고 있음 등
- 다리와 발의 동작 : 다리를 달달 떰, 다리를 이쪽저쪽으로 꼬았다 풀었다 함 등
- 전체 몸의 자세 : 몸을 웅크림, 몸을 앞뒤로 반복적으로 흔들거림 등
- 목소리의 높이와 빠르기 : 목소리 크기, 유창성, 빠르기 등
- 기타 : 복장, 화장, 두발상태 등

5.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와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를 의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일회성의 만남이나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봐주는 친밀한 대인관계 경험이 남한사회 정착에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이 된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화 경향은 상담자에 대한 이미지가 남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로 확대해석 되어진다.
6.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해야한다. 이들의 생각, 정서, 행동을 남한 식으로 보려고 한다면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살아온 북한문화, 체류시 제3국의 문화, 탈북과정 경로체험 등을 통한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 내담자에게 주의 집중하는 몇 가지 기술 ◀**

1. 내담자를 향해서 앉는다.
   - 앉는 각도와 관계없이 몸과 얼굴을 내담자를 향해 앉는다.
2. 개방적인 몸 자세를 취한다.
   -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지 않는다.
3. 때때로 내담자를 향해 몸을 기울여 앉는다.
   - 대화의 내용에 따라 상체를 약간씩 상대쪽으로 기울임으로써 관심을 표명한다.
4. 눈맞춤을 적절히 한다.
   - 계속 내담자를 똑바로 쳐다보기보다는 내담자의 얼굴 쪽으로 시선을 두되, 가끔씩 진지하게 시선을 접촉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 접촉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유의하여 살핀다.
5. 긴장을 푼다
   - 상담자 자신의 불안을 신체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말소리가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손동작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의자 끝에 겨우 걸터앉거나 얼굴표정이 굳어지거나 할 수 있다. 상담자가 이렇게 긴장하게 되면 내담자에게 집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 (4) 도구

#### (가) 기존 PTSD 척도 소개

##### 1) MMPI-PTSD 척도

Keane, Malloy, 그리고 Fairbank가 전투에 관련된 PTSD를 위해 개발한 소척도이다.[40] 이 척도의 적중률은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PTSD 장애군과 정서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정신병적 장애를 가진 참전용사들과 신뢰롭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Hyer 등도 이 소척도가 69% 적중률을 보인다고 하였다.[41]

MMPI의 외상 후 스트레스 소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정서적 문제 12문항, 기억문제 10문항, 대인관계 7문항, 비현실적 문제와 사고 문제 3문항, 충동적 조절과 신체적 불편감 4문항, 집중력 장애 5문항, 파괴적 충동 4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절단점수는 국내 연구에서는 17점일 때 PTSD 판별률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외국 연구에서는 이보다 높은 기준(19-20점)을  잡고 있다. 역 채점 문항은 1, 2, 3, 14, 19, 20, 22, 25, 30, 44번이며 점수 범위는 0점~45점이다. Hyer 등의 연구에서는 베트남 전 귀향자 중 50%가 F척도 T 점수 88점 이상의 허위성 PTSD를 보임으로서 이 척도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42]

##### 2) IES/IES-R

IES(Impact of Even Scale)는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상을 평가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서 외상에 대한 정보처리 모델에 근

---

[40] Keane, T. M., Malloy. P. F., & Fairbank, J. A., "Empirical development of an MMPI subscale for the assessment of combat-related PTS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2 (1984), pp. 888~891.

[41] 신응섭·채정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통합적 접근』(서울: 하나의학사, 1996)을 재인용 하였다.

[42] Hyer, L., Fallon, J. H., Harrison, W. & Boudewyns., "MMPI overreporting by Vietnam vetera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43 (1987), pp. 79~83.

거하여 Horowitz, Wilner & Alvarez가 개발한 15문항으로 된 자기보고식 도구이다.[43] 특별한 외상 사건에 관계되어 지난 7일간 경험한 주관적인 고통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져 있으며 하위척도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중 침습과 회피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침습은 외상사건에 대해 고통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감정, 심상을 평가하며 회피문항은 외상사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외상사건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둔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IES를 활용한 국내의 연구는 대구지하철 참사,[44] 교통사고 피해자,[45] 수해지역 노인[46]을 대상으로 하였다. 15개 문항은 7개의 침습 증상과 8가지 회피증상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7일동안 겪은 경험에 대하여 전혀 없다, 드물게 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로 측정하며 0, 1, 3, 5씩 점수를 매겨 0점에서 75점의 점수범위를 지닌다. 0~9점은 임상적 의미가 없고, 10~25점은 경미(mild), 26점에서 43점은 보통(moderate), 44점 이상은 중증(severe) 정도의 스트레스를 말하며 26점 이상을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보며 보다 심층적인 진단검사를 권하고 있다.[47] 권용희의 연구에서의 Cronbach α .=.95였다.[48]

IES-R(Impact of Even Scale-Revised)는 Weiss와 Marmar가 '증가

---

[43] Horowitz, M. J., Wilner, N. & Alvarez, W.,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distress," *Psychosom Med*, vol. 41, (1979), pp. 209-218.

[44] 최웅용·홍종관·김춘경·이수연, "대구지하철참사 청소년생존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인지행동적 위기상담의 효과," 『청소년상담연구』~~제12권 1호 (2004), pp. 156~168.

[45] 우현아, 「교통사고 환자의 다발성 손상정도와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선미·김정희, "버스사고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인지-행동 집단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제13권 3호 (2001), pp. 225~245.

[46] 권용희, 「수해지역 노인의 외상후 스트레스 조사 연구」(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7] Devilly, G. J., "The Successful Treatment of PTSD Through Over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in Non-Responders to EMDR,"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vol. 29 (2001), pp. 57~70.

[48] 권용희, 「수해지역 노인의 외상후 스트레스 조사 연구」

된 각성반응' 척도를 첨가하여 보완한 것이다.[49] 총 22개의 문항으로 지난 주에 나타났던 증상의 빈도를 1점에서 4점까지의 4점 리커르트 척도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국내의 정철은의 연구에서의 Cronbach α .= .98이었다.[50]

### 3) CAPS

가장 최근에 개발된 면접법인 CAPS는 Blake 등이 개발하였고[51] Weathers 등이 베트남 참전 집단의 PTSD 진단에 적용하여 좋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은 면접법이다.[52] 이 면접법은 PTSD와 관련된 17개의 증상과 8개의 관련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구조화된 임상 면접법이다. 양분법적인 평가와 연속적인 평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증상의 강도와 빈도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빈도는 많지만 덜 심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과 빈도는 적지만 심한 증상을 갖는 환자들이 모두 진단기준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 A는 외상사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기준 B에서는 외상사고의 지속적인 재 경험시 그 빈도와 강도 및 그 특징에 대한 4문항, 기준 C에서는 외상과 연관된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려 하거나 전에 없었던 반응마비 증세가 있을 때 그 빈도

---

[49] Weiss, D. S., Marmar, C. R., Schlenger, W. E., Fairbank, J. A., et al., "The prevalence of lifetime and parti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Vietnam theater veterans," *Journal of Trauma Stress*, vol. 5 (1992), pp. 365~376.

[50] 전철은,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1] Blake, D. D., Cook, J. D., & Keane, T. M.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veterans who are seeking medical trea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48 (1992), pp. 695~704.

[52] Weathers, F. W., Blake, D. D., Krinsley, K. E., Haddad, W., Huska, J. A. & Keane T. M., *The clinician administered PTSD scale(CAPS):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Paper presented at 26th annual Meeting of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Boston MA., 1992)

및 강도에 한 7문항, 기준 D에서는 증가된 각성 반응의 존재 시 그 빈도와 강도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질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증상마다 빈도와 강도를 평정하고, 증상에 해당이 없는 경우(0점)에서 가장 심한 경우(4점)까지 5단계로 나누어 빈도와 강도의 합이 4점 이상인 항목이 DSM-Ⅳ 기준에 필요한 수만큼 충족이 될 때 PTSD로 진단한다.

국내의 이병용 등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Cronbach α .= .95, 면담자간 일치도는 .89였다. 또한 IES와는 r=.80, BDI와는 r=.70, STAI와는 r=.20의 상관을 보였고 임상진단과의 일치도는 82.1%의 일치도를 보였다.[53]

### 4) 미시시피 PTSD 척도

35문항으로 구정 5점 척도로 구성되어져 있다. (1) 침입·우울, (2) 대인적응, (3) 정서적 무능력, (4) 반추하는 특징, (5) 다른 대인관계의 어려움, (6) 수면문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국내연구에서의 절단점수는 77점이며, 역 채점 문항은 2, 6, 17, 19, 22, 24, 27, 30, 34번 문항이며 점수범위는 35점-175점이다. 이 척도는 전쟁퇴역군인을 규준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국내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 성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54]

### 5) PDS(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

Foa, Cashman, Jaycox와 Perrry가 개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진단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는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PTSD의 진단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상의

---

[53] 이병용 외, "임상가를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38호 (1999), pp. 514~522.

[54] 강영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위한 미시시피 척도와 MMPI-PTSD 척도의 비교」(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심각성 수준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이다. 신뢰도 범위는 Cronbach α .83에서 .91이었다.[55]

국내의 안현의는 PDS 중에서 외상적 사건의 유형 체크리스트 12문항, 외상적 사건의 발생 시기와 증상 경험 기간에 관련된 질문 2 문항, 그리고 DSM-Ⅳ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PTSD 증상을 묻는 질문 17문항을 선택하여 총 32문항을 제작하여 PTSD 증상 질문은 DSM-Ⅳ에 수록된 진단 기준 B, C, D의 각 항목과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고, 나머지 문항들은 경험 여부를 체크하거나 본인이 겪은 경험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시기, 증상 경험 기간, 증상 발현 시기의 해당 항목에 각각 체크하게 되어 있다. 각 증상 문항은 지난 2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4점 척도에 보고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증상의 수준은 증상 문항 17개에 대한 총점을 구하여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임상장면에서는 DSM-Ⅳ의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10점 이하는 약함(mild), 11-20점은 중간정도(moderate), 21점 이상은 심함(severe)로 간주하였다. 최소한 1가지 이상의 외상경험을 한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Cronbach α. = .907이었다.[56]

### 6) PCL

최근 30일 동안 발생한 증상들을 질문하는 17개로 구성된 PTSD 진단척도이다. PCL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증상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보스턴에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국립센터에서 개발하였다. DSM-Ⅳ의 진단기준인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채점방식으로 측정하도로 되어 있고 3점 이상의 점수가 응답되었을 때 PTSD로 진단한

---

[55] Foa, E. B. & Meadows, E. A., "Psychological treatment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critical re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8 (1997), pp. 480~499.

[56] 안현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제17권 1호 (2005), pp. 217~231.

다. 이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6으로 매우 높은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내적 일관성 Cronbach α. = .97로 미시시피 척도나(.93), PK 척도(.77), IES척도(.90)보다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57]

### 7) Davidson Trauma Scale

Davidson et al.,의 DTS는 17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지난 한 주 동안의 PTSD 증상에 대해서 증상의 빈도('전혀'에서 '매일'까지), 증상의 심각성('전혀 혼란스럽지 않다'-'매우 혼란스럽다')의 정도에 따라 0-4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58] 빈도와 강도에 대한 평정은 각각의 분리되어진 하위증상(ex. 재경험, 회피/마비, 과각성)의 합계를 내기 때문에 PTSD의 심각성뿐 아니라 증상의 하위범주에 대한 심각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0-.95이다.

### 8) HTQ(Havard Trauma Questionnaire)

Mollica 등이 제작한 HTQ는 DSM-Ⅳ의 준거에 맞는 PTSD 점수를 측정할 뿐 아니라 가장 외상적 사건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켜 인도차이나 난민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능점수(fuctional score)를 제작하였다.[59]

---

[57] Edna, B. F., Terence, M. F. & Matthew, J., *Effective treatments for PTSD :practice guidelines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New York: Guilford Press, 2000)

[58] Davidson, J. R. T., Malik, M. A. & Travers, J., "Structured interview for PTSD (SIP): Psychometric validation for DSM-IV criteria," *Depression & Anxiety*, vol. 5 (1997), pp. 127~129.

[59] Mollica, R. F., Caspi-Yabin, Y., Bollini, P., Truong, T., Tor, S. & Lavelle, J., "The Harvard Trauma Questionnaire: Validating a Cross-Cultural Instrument for Measuring Torture,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Indochinese Refugee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s,* vol. 180 (1992), pp. 111~116.

**(나) PTSD 척도 개발 및 사용**

PTSD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사회와는 이질적인 북한생활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이러한 척도를 원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척도로서의 기능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PTSD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척도는 개발되지 않았으나, 일부 활용 가능한 척도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심층적인 검증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 차이와 환경적 특징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성을 갖는 고유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존 PTSD 진단 척도의 장단점과 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 제한적이지만 사용되는 척도의 유용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척도의 개발은 일반적인 척도 개발 절차에 따라야 하며,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5) 평가방법**

**(가) 상담 일지 분석**

- 매회 상담 실시 후 일지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나) 수퍼비전**

- 상담 수퍼바이저에게 주기적으로 상담 수퍼비전을 받도록 한다.

**(다) 상담 사례연구 실시**

- 상담 선생님들과 함께 개별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회를 진행한다.

(라) 내담자 상담 평가

- 상담 종결 시 내담자의 소감내용 작성 및 기록·평가를 통해 목표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

### (6) 수행인력

| 이름 | 직위 및 직장 | 경력(년) | 담당 역할 | 할당시간 (단위:주) | 자격증 (심리관련) |
|---|---|---|---|---|---|
| ○○○ | PTSD사업 팀장 | - 이화여대 심리학 석사<br>- 상담 경력 1년 | - 사업의 디렉터<br>- 척도개발<br>- 프로그램 진행 | 40시간 | 상담 심리사2급 |
| ○○○ | 팀원 | - 정치학 박사<br>- 북한관련 실무경력 10년 | - 사업 디렉터<br>- 척도 개발<br>- 프로그램 진행 | 7시간 | |
| ○○○ |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교수 | - 사회복지학 박사<br>- 사회복지관련 실무 6년 | - 자문 | 1시간 | 사회 복지사1급 |
| ○○○ | 하나원 심리상담 | - 심리학 박사<br>- 상담경력 5년 | - 상담 수퍼비젼<br>- 척도개발<br>- 프로그램 진행 | 4시간 | 상담 심리사1급 |
| ○○○ | 팀원 | - 연세대 통일협동박사과정<br>- 통일연구원근무 | - 프로그램 진행 | 4시간 | |
| ○○○ | 사회복지관 부장 | - 사회복지학석사<br>- 복지관 경력 11년 | - 민간단체 연계망 구축<br>- 자문 | 1시간 | 사회 복지사1급 |
| ○○○ | 고려대예방의학교수 | -의학박사 | - 척도개발 관련 자문 | 1시간 | |

### (7) 예산

(가) 총 사 업 비 : 5,400 천원 (100%)

(나) 보 조 금 : 3,000 천원 (55.6 %)

(다) 자 부 담 : 2,400 천원 (44.4 %)

### (라) 지출항목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지출비목 | 금 액<br>(단위: 천원) | 산 출 근 거 |
|---|---|---|
| 총 계 | 5,400 | |
| 보조금 | 3,000 | 예산 대비 55.6% |
| 강사료 | 200 | ○ [간담회] 박사 1명. 200,000원×1명 = 200,000원 |
| 진행비 | 100 | ○ [간담회] 식비. 10,000원×10명 = 100,000원 |
| 인쇄비 | 500 | ○ 자료집 : 5,000원×100권 = 500,000원 |
| 방문상담원 수당 | 1,600 | ○ 하나원 방문 상담 - 전문상담자<br>- 100,000원×1명×16회 = 1,600,000원 |
| 여 비 | 600 | ○ 하나원 및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방문 교통비<br>- 30,000원×1명×20회 = 600,000원 |
| 자 부 담 | 2,400 | 예산 대비 44.4% |
| 방문상담원 수당 | 900 | ○ 사회 정착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요원<br>- 50,000원×1명×2일×9개월 = 900,000원 |
| 상담DB 구축비 | 500 | ○ DB구축 인건비<br>- 50,000원×1명×10일 = 500,000원 |
| 여 비 | 900 | ○ 하나원 방문 및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방문 여비<br>- 30,000원×1명×30회 = 900,000원 |
| 진행비 | 100 | ○ 사무용품구입 : 100,000원 |

## 바. 개발안 운영

### (1) 시범운영

북한인권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PTSD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은 2005년 12월까지 시행된 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한계를 갖고 있

다. 따라서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북한인권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PTSD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은 연구자와 실제 프로그램 운영자와의 협동 작업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한 연구자는 시범운영과 척도개발, 중간단계 평가 작업을 프로그램 집행 상담 전문인력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PTSD 사업 프로그램은 초기 설계단계에서 인권, 심리, 북한, 사회복지, 정신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인권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의 기획회의로부터 출발하여 예비 설문지 작성, 예비 심층면접 등을 거쳐서 구조화 된 인권피해조사를 겸한 PTSD 진단 예비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진단 예비조사지를 활용하여 23인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PTSD의 증상과 수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척도개발에 활용하였다. 그 후 상대적으로 PTSD 증상이 높은 대상자와의 연계망을 확보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발되는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이 PTSD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시범운영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은 일정기간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닌 추적조사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연속성을 갖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 (2) 프로그램 운영의 전제조건

북한인권피해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PTSD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담원, 내담자, 척도, 그리고 시설, 인력, 비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척도의 경우 타당도와 신뢰도 검

증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설과 인력, 그리고 소요비용은 확보되었지만 연속적인 사업의 성격을 강조할 경우 특히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내담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하나원과 대성공사 등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 초기 거주하는 시설에 대하여 상담원과 프로그램 진행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기관과 관련 민간단체들의 사업 진행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집중적인 상담 서비스나 심지어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무관심속에 사회로 배출되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례도 나타나곤 한다.

## 사. 개발안과 운영에 대한 평가

### (1) 운영 및 평가

북한인권피해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PTSD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운용과 현재까지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PTSD 심리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전문인력이 전무하다는 것과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보유한 상담원 부재는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경험 부족을 노출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인권피해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척도를 활용한 진단지 배포와 수거과정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PTSD 수준 판단에 대한 경험부족은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이유로 제기되었다. 결국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PTSD 심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운용과 평가 방법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발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적인 조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정부 관계기관과 관련 민간단체의 협조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PTSD는 상담 심리 전문인력 만이 아니라 정신의학 의료인력, 사회복지사, 북한 전문가, 예방의학자 등 폭넓은 학제간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 (2) 인력과 시설 평가

본 프로그램은 개발과정에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인권피해전문조사자, 예방의학자 등 다양하게 참여하였으나, 실제적인 프로그램 진행은 전문 심리상담사 1명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력 1~2명 만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소수의 인원만이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심리상담원의 절대적인 부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피해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 인력의 부족은 프로그램 진행기관의 영세성과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실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상담원에게 독립적인 상담실이 제공되었으나 북한이탈주민 내담자들은 전문 기관에 방문하기 보다는 자신의 거처에 상담원이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전용 상담시설의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 (3) 결과에 대한 평가

북한인권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PTSD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집행 결과 인권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접근성 확보 애로,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내담자와의 연계망 확보의 어려움으로 프로그램 시행 초기 단계에 높은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성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전문적인 척도 개발과 적용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과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특히 인권피해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서비스는 입국 초기 시점에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원과 대성공사에서 PTSD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진행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Ⅳ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체계

## 1.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실태 분석[60]

### 가. 실태조사 의의와 목적

#### (1) 의의

현재 한국 사회는 급격한 북한이탈주민 입국 증가현상에 직면해 있다. 1999년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 이후 2002년에는 1,000명을 넘었으며, 2005년 11월 말 현재 입국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섰다. 향후 2~3년 뒤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가 1만 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활하다 탈북한 이들이 한국의 자본주의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안정은 취업을 통해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를 할 때 이루어진다. 일찍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윤여상의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영남대 대학원, 1995)가 발표된 이래 2004년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130여 편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발표되었으며,[61] 이금순의 『북한탈출주민 대책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민족통일연구원, 1995)라는 연구보고서 발표 이래로 국가 연구기관과 관련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적응 및 관련 제반문제를 중요한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로 선한승 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05) 와 이금순 외의 『북한이탈주민

[60] 본 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61] 임순희, "탈북자 문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현대북한연구와 남북관계』 (북한연구학회 2004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4), p. 56.

적응실태 연구』(통일연구원, 2004)를 들 수 있다. 또한 1990년 중반 이후 각종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엄, 학술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성과물과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성과물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취업실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조사방법과 조사항목의 일치된 부분이 적어 연구간 내용 비교가 어렵고, 일반 국민의 취업실태 및 경제활동 연구와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사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수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화연구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2) 목적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경제활동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현실 적합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2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통계청과 국제노동기구의 경제활동조사 기준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활동인구 조사표를 작성하였고 이것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경제활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분석범위와 방법

### (1) 분석범위

본 조사는 경제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 중 15세 이상의 노동 가능인구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은 조사기간과 방법을 고려하여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성을 갖도록 선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적사항(가구주와 관계, 성별, 생년, 교육정도, 혼인상태)과 경제활동 확인항목(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 구직여부, 4주간 구직여부), 취업자항목[62](취업시간, 주36시간미만 일한 이유, 전직희망여부, 전직 탐색여부, 취업시기, 고용계약 및 계속근무가능여부), 실업자항목[63](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취업제의 여부, 미취업사유), 비경제활동인구항목(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여부, 비구직 이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최근 구직시기), 기타항목(전직 유무 및 이직 시기, 이직이유, 산업분류,[64] 직업,[65] 종사자 규모, 종사상의 지위[66]) 등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항목과 본인 및 가족의 수입과 생활비 그리고 저축 및 부채에

---

[62] 본 조사에서 취업자는 통계청이 정한 취업자의 정의를 따른다. 즉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말한다.

[63] 본 조사에서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4] 산업분류란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기준으로는 2000년에 개정된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하였다.

[65] 직업이란 조사대상주간 중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기능별 종류를 말하며 2000년에 개정된 5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을 이용하였다.

[66] 종사자의 지위란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6가지로 분류한다.

관한 사항, 주거형태 및 주택과 자동차 소유여부와 종류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징(탈북시기,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본 조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67] 비경제활동인구,[68] 취업자,[69] 실업률[70]을 기본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상황을 제시한다.

### (2) 표본 추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바람직하나, 연구조건의 제약(비용, 시간, 접근성)으로 인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71] 조사의 대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거주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며, 표본은 북한이탈주민 인구사회변수 자료로 활용 가능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5,177명의 인구변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확률표본추출방법(probability sampling) 중 층화추출방법(stratified sampling)과 계통적 추출방법(sysmetic sampling)으로 연령대별, 지역별 표본수를 결정하고 대상 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단순무작위추출방법(simple random sampling)을 활용하여

---

[67]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는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68] 비경제활동인구(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된다.

[69]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70]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71] 정부는 매월 전국에 33,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을 통하여 전국의 취업률과 실업률 및 경제활동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통계청, 2005).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표본 추출은 <표 Ⅵ-1>에 나타난 모집단인 5,177명 중 해당 지역별 거주하는 주민 비율과 연령별 분포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통적, 층화적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다만 본 조사는 전국 규모의 조사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초자치단체별 계통적 추출은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대부분이 사회정착시 제공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내 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표본이 추출되었다.

<표 Ⅵ-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주거현황(1997~2004년 입국자)

| 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경북권 | 경남권 | 호남권 | 강원권 | 제주권 | 계* |
|---|---|---|---|---|---|---|---|---|
| 주거인원<br>(비율%) | 3,318<br>(64.1) | 508<br>(9.8) | 364<br>(7.0) | 549<br>(10.6) | 277<br>(5.4) | 131<br>(2.5) | 30<br>(0.6) | 5,177<br>(100.0) |

<표 Ⅵ-2> 표본의 수와 비율(연령대)

| 연령대 | 표본 수(명) | 표본비율(%) | 모집단 수(명) | 모집단 비율(%) |
|---|---|---|---|---|
| 10대 | 20 | 9.0 | 502 | 9.7 |
| 20대 | 55 | 24.9 | 916 | 17.7 |
| 30대 | 62 | 28.1 | 1,739 | 33.6 |
| 40대 | 47 | 21.3 | 1,174 | 22.7 |
| 50대 | 20 | 9.0 | 359 | 6.9 |
| 60대 이상 | 17 | 7.7 | 487 | 9.4 |
| 계 | 221 | 100.0 | 5,177 | 100.0 |

표본비율과 모집단 비율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에서 40대의 주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설계상은 74.8%였으나 실제 74.2%가 조사되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모집단 비율은 17.7%이고 표본 비율은 24.9%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20대의 경우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사회진출 초년생으로서 지

방보다 수도권에 거주하고자 의욕이 높고 실제로 수도권에 대학과 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20대 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Ⅵ-3> 표본의 성별 분포

| 성별 | 표본 수(명) | 표본비율(%) | 모집단 비율(%) |
|---|---|---|---|
| 남자 | 93 | 42.1 | 40.1 |
| 여자 | 128 | 57.9 | 59.9 |
| 계 | 221 | 100.0 | 100.0 |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남자가 40.1%이고 여자는 59.9%인데, 조사결과는 남자의 경우 93명(42.1%), 여자의 경우 128명(57.9%)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조사된 남녀간의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나 표본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조사항목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배경 항목과 기본적 항목이다. 이 항목은 일반적인 인구사회변수에 관련된 내용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이다. 내용면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 입국 년월, 하나원 퇴소 년월, 북한에서의 교육, 남한에서의 교육, 혼인상태, 가족상황 등에 관한 질문이다.

둘째, 경제활동 확인항목이다. 이 항목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 구직여부, 4주간 구직여부가 포함된다.

셋째, 취업자 항목이다. 이 항목은 취업상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세부적인 취업현황과 내용에 관련된 것이다. 조사항목은 취업시간, 주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전직희망여부, 전직 탐색여부, 취업 시기, 고용계약 및 계속근무가능여부가 포함된다.

넷째, 실업자항목이다. 이 항목은 실업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 항목으로는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미취업사유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비경제활동인구항목이다. 이 항목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조사항목이 포함된다. 그 내용은 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여부, 비구직 이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최근 구직시기 등이다.

여섯째, 기타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전직 유무 및 이직 시기, 이직이유, 산업분류, 직업, 종사자 규모, 종사상의 지위, 자격증 보유현황, 직업훈련이수 여부, 고용지원금 지원여부, 가산금(인센티브 수혜여부)등이 포함된다.

일곱째, 경제상태에 관한 항목이다. 이 항목은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수입, 정부보조금 현황, 저축, 부채, 주거형태 및 주택소유, 자동차 소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여덟째, 구직 및 취업활동의 경향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한 후 현재까지 취업에 관한 경향을 분석하는 항목이다.

<표 Ⅵ-4> 항목분류와 조사항목

| 항목분류 | 조사 항목 |
|---|---|
| 인구학적 배경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 입국 년, 북한에서의 교육, 남한에서의 교육, 혼인상태, 가족 |
| 경제활동 |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 구직여부, 4주간 구직여부 |
| 취업자 | 취업시간, 주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전직희망여부, 전직 탐색여부, 취업 시기, 고용계약 및 계속근무가능여부 |
| 실업자 |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희망고용형태, 희망근무형태, 미취업사유 |
| 비경제활동 인구 | 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여부, 비구직 이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최근 구직시기 |
| 경제상태 | 근로수입, 정부보조금 현황, 저축, 부채, 주거형태 및 주택소유, 자동차 소유, 자동차 용도 |
| 구직 및 취업활동의 경향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취업에 관한 경향을 분석하는 항목 |
| 기타항목 | 산업분류, 직업, 종사자 규모, 종사상의 지위, 자격증 보유현황, 고용지원금 지원여부, 가산금(인센티브 수혜여부) |

### (4) 조사방법

본 조사는 훈련된 전문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면접을 실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전문 조사원은 조사 참여전 조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조사원은 각 지역단위로 설정된 조사대상자(패널)들을 면담 후 조사에 대한 패널 참여여부를 확인 한 후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향후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 조사 참여자들을 고정적인 조사대상(패널)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패널조사는 직접방문을 기본 방법으로 사용하며, 차후 전화, 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1) 연령과 성별 및 입국시기

본 조사에서 연령대별 남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남자의 경우 93명으로 42.1%이며 여자의 경우 128명으로 57.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8.1%로 가장 많으며 20대 24.9%, 40대 21.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는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5>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 구분 | | | 성별 | | 계 |
|---|---|---|---|---|---|
| | | | 남자 | 여자 | |
| 연령대 | 10대 | 빈도(명) | 13 | 7 | 20 |
| | | 성별 내 % | 14.0 | 5.5 | 9.0 |
| | 20대 | 빈도(명) | 23 | 32 | 55 |
| | | 성별 내 % | 24.7 | 25.0 | 24.9 |
| | 30대 | 빈도(명) | 18 | 44 | 62 |
| | | 성별 내 % | 19.4 | 34.4 | 28.1 |
| | 40대 | 빈도(명) | 20 | 27 | 47 |
| | | 성별 내 % | 21.5 | 21.1 | 21.3 |
| | 50대 | 빈도(명) | 12 | 8 | 20 |
| | | 성별 내 % | 12.9 | 6.3 | 9.0 |
| | 60대 | 빈도(명) | 7 | 6 | 13 |
| | | 성별 내 % | 7.5 | 4.7 | 5.9 |
| | 70대 | 빈도(명) | 0 | 4 | 4 |
| | | 성별 내 % | 0.0 | 3.1 | 1.8 |
| 계 | | 빈도(명) | 93 | 128 | 221 |
| | | 성별 내 % | 100 | 100 | 100 |

<표 VI-6> 조사대상자의 입국연도

| 년도 | 빈도(명) | 비율(%) |
|---|---|---|
| 1995 | 1 | 0.5 |
| 1997 | 4 | 1.8 |
| 1999 | 7 | 3.2 |
| 2000 | 15 | 6.8 |
| 2001 | 35 | 15.8 |
| 2002 | 41 | 18.6 |
| 2003 | 35 | 15.8 |
| 2004 | 75 | 33.9 |
| 2005 | 8 | 3.6 |
| 계 | 221 | 100.0 |

조사대상자의 입국연도를 살펴보면, 2004년 입국자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002년 입국자로 18.6%이다. 2001년과 2003년은 15.8%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 (2) 혼인과 가족 구성원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를 조사한 결과 미혼이 40.5%이며 결혼이 54.1%로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37.7%로 나타났으며 별거하는 경우는 16.4%이다.

<표 Ⅵ-7> 조사대상자의 혼인 상태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미혼 | 89 | 40.3 | 40.5 |
| 기혼-별거 | 36 | 16.3 | 16.4 |
| 기혼-동거 | 83 | 37.6 | 37.7 |
| 이혼 | 12 | 5.4 | 5.5 |
| 계 | 220 | 99.5 | 100.0 |
| 결측 | 1 | 0.5 | |
| 합계 | 221 | 100.0 | |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수는 단독세대의 경우 24.4%로 나타났으며 2-3명 정도의 가족이 50.6%로 조사되었다. 단독세대의 비율이 높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Ⅵ-8> 조사대상자의 가족수

| 가족수 | 빈도(명) | 비율(%) |
|---|---|---|
| 1 | 54 | 24.4 |
| 2 | 52 | 23.5 |
| 3 | 60 | 27.1 |
| 4 | 40 | 18.1 |
| 5 | 11 | 5.0 |
| 6 | 4 | 1.8 |
| 계 | 221 | 100.0 |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본인이 가구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65.6%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가구주라는 비율은 16.7%, 미혼자녀가 가구주라고 응답한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본인이 가구주라고 응답한 145명 중 여자는 77명, 남자는 68명

이었고, 배우자가 가구주라고 응답한 37명 중 여자는 29명, 남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표 Ⅵ-9> 가구주와의 관계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가구주 | 145 | 65.6 | 65.6 |
| 배우자 | 37 | 16.7 | 16.7 |
| 미혼자녀 | 26 | 11.8 | 11.8 |
| 기혼자녀 | 1 | 0.5 | 0.5 |
| 부모 | 4 | 1.8 | 1.8 |
| 미혼 형제자매 | 5 | 2.3 | 2.3 |
| 기타 | 3 | 1.4 | 1.4 |
| 계 | 221 | 100.0 | 100.0 |

본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여성 단독 세대나 남편 없이 아이들과 생활하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Ⅵ-10>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 항목 | | 성별 | | 계 |
|---|---|---|---|---|
| | | 남자 | 여자 | |
| 가구주 | Count | 68 | 77 | 145 |
| | % within 성별 | 73.1% | 60.2% | 65.6% |
| 배우자 | Count | 8 | 29 | 37 |
| | % within 성별 | 8.6% | 22.7% | 16.7% |
| 미혼자녀 | Count | 9 | 17 | 26 |
| | % within 성별 | 9.7% | 13.3% | 11.8% |
| 기혼자녀 | Count | 0 | 1 | 1 |
| | % within 성별 | .0% | .8% | .5% |
| 부모 | Count | 4 | 0 | 4 |
| | % within 성별 | 4.3% | .0% | 1.8% |
| 미혼 형제자매 | Count | 3 | 2 | 5 |
| | % within 성별 | 3.2% | 1.6% | 2.3% |
| 기타 | Count | 1 | 2 | 3 |
| | % within 성별 | 1.1% | 1.6% | 1.4% |
| 합계 | Count | 93 | 128 | 221 |
| | % within 성별 | 100.0% | 100.0% | 100.0% |

### (3) 남북한에서의 학력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학력은 59.1%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전문학교 이상의 고학력자가 30.9%로 조사되었다.

<표 VI-11> 조사대상자의 북한에서의 학력

| 학력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인민학교 졸업 | 19 | 8.6 | 8.6 |
| 고등중학교 졸업 | 130 | 58.8 | 59.1 |
| 전문학교 졸업 | 33 | 14.9 | 15.0 |
| 대학교 이상 | 35 | 15.8 | 15.9 |
| 없음 | 3 | 1.4 | 1.4 |
| 계 | 220 | 99.5 | 100.0 |
| 결측 | 1 | .5 | |
| 합계 | 221 | 100.0 | |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인 73.1%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3.2%가 대학졸업 또는 중퇴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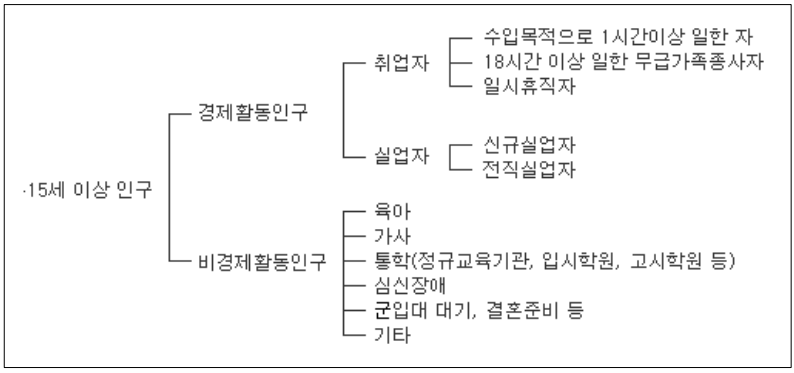
<표 VI-12> 조사대상자의 한국에서의 학력

| 학력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초등학교 졸업 | 2 | .9 | .9 |
| 중학교 재학 또는 중퇴 | 6 | 2.7 | 2.8 |
| 중학교 졸업 | 5 | 2.3 | 2.4 |
| 고등학교 재학 또는 중퇴 | 8 | 3.6 | 3.8 |
| 고등학교 졸업 | 8 | 3.6 | 3.8 |
| 대학교 재학 또는 중퇴 | 22 | 10.0 | 10.4 |
| 대학교 졸업 | 6 | 2.7 | 2.8 |
| 학교 다닌 적 없음 | 155 | 70.1 | 73.1 |
| 계 | 212 | 95.9 | 100.0 |
| 결측 | 9 | 4.1 | |
| 합계 | 221 | 100.0 | |

## 라. 고용 및 경제활동실태

정부가 발표하는 전국 3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다음의 <그림 Ⅳ-1>에 분류한 것을 기초로 조사를 하고 있다. 먼저 15세 이상의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로 분류한 다음 이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되는데, 취업자에는 수입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 휴직자가 포함되며,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육아, 가사, 통학,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그림 Ⅳ-1> 경제인구의 분류




### (1)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조사 방법을 적용한 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인원 총 221명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는 109명(49.5%)으로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11명(50.5%)으로 조사되었다.[72] 이러한 결과는 동일 시기에 조사된 통계청의 고용동향[73]에서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62.5%로 나타난 것과 비

[72] 결측값 1빈도 제외

교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약 12% 낮은 것이다.

경제활동참가 인원을 남녀비로 나타내면 총 109명 중 56명(51.4%)이 남자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53명(48.6%)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인원과 비교하면 남자 93명중 56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60.2%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전체 128명 중 53명으로 41.4%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2005년 10월 자료와 비교해 보면, 일반국민의 경우 남자는 74.6%, 여자는 51.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12.4%, 여성의 경우 9.7%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13> 조사대상자의 남녀별 경제활동 참가

| 항목 | | 성별 | | 계 |
|---|---|---|---|---|
| | | 남자 | 여자 | |
| 일하였음 | 빈도(명) | 42 | 37 | 79 |
| | 성별 내 % | 75 | 69.8 | 72.5 |
| 일시 휴직 | 빈도(명) | 6 | 8 | 14 |
| | 성별 내 % | 10.7 | 15.1 | 12.8 |
| 구직활동 | 빈도(명) | 8 | 8 | 16 |
| | 성별 내 % | 14.3 | 15.1 | 14.7 |
| 합계 | 빈도(명) | 56 | 53 | 109 |
| | 성별 내 % | 100 | 100 | 100 |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 109명중 93명이 수입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일시휴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85.3%가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실업율의 경우 14.7%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통계청 2005년 10월 고용동향과 비교한다면 일반국민은 실업율이 3.6%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3] 통계청, 『2005년 10월 고용동향』, (2005. 11)

<표 Ⅵ-14> 취업자의 업종별 현황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통신업 | 2 | 2.5 | 2.6 |
| 금융 및 보험업 | 1 | 1.3 | 1.3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 | 1.3 | 1.3 |
| 사업서비스업 | 4 | 5.1 | 5.3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 | 10.1 | 10.5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14 | 17.7 | 18.4 |
| 가사서비스업 | 3 | 3.8 | 3.9 |
| 어업 | 1 | 1.3 | 1.3 |
| 제조업 | 12 | 15.2 | 15.8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3 | 3.8 | 3.9 |
| 건설업 | 6 | 7.6 | 7.9 |
| 도매 및 소매업 | 6 | 7.6 | 7.9 |
| 숙박 및 음식업 | 9 | 11.4 | 11.8 |
| 운수업 | 6 | 7.6 | 7.9 |
| 계 | 76 | 96.2 | 100.0 |
| 결측 | 3 | 3.8 | |
| 합계 | 79 | 100.0 | |

취업자의 업종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4] 조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79명 중 18.4%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에 15.8%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10.5%가 종사한다고 나타난 점이다.

취업 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내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이루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51.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상용근로자로 20.8%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경우 16.9%로 나

[74] 본 조사에서는 79명이 일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14명이 일시휴직이라고 대답하여 93명이 사실상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시휴직이라 대답한 사람이 4주 미만의 직종이 정해지지 않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타났다. 그리고 자영업주와 고용주를 합쳐서 10.4%로 나타났다.

<표 Ⅵ-15> 종사상의 지위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일용근로자 | 40 | 50.6 | 51.9 |
| 임시근로자 | 13 | 16.5 | 16.9 |
| 상용근로자 | 16 | 20.3 | 20.8 |
| 자영업자 | 3 | 3.8 | 3.9 |
| 고용주 | 5 | 6.3 | 6.5 |
| 계 | 77 | 97.5 | 100.0 |
| 결측 | 2 | 2.5 | |
| 합계 | 79 | 100.0 | |

일반 국민은 상용근로자가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자영업주로 2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임시 근로자의 경우 22.0%, 일용근로자의 경우 9.6%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비율이 5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어떤 사정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인구이다. 여기에는 육아, 가사, 통학, 취업을 위한 교육, 입시준비, 취업준비 활동, 진학준비, 연로, 심신장애 등이 포함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본 조사결과, 비경제활동인구 총 111명 중 통학 항목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심신장애 항목이 17.1%로 나타났으며, 쉬었

다는 항목이 16.2%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여성에 해당하는 육아가 13.5%로 나타났다. 심신장애의 항목은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취업이 어려움'이라는 부가 설명을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질병이나 장애를 포함하여 취업이 어렵다 대답한 항목인데, 이 항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은 북한이탈주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Ⅵ-16>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 항목 | 성별 | | 계 |
|---|---|---|---|
| | 남자 | 여자 | |
| 육아 | 0 | 15 | 15(13.5%) |
| 가사 | 0 | 11 | 11(9.9%) |
| 통학 | 10 | 14 | 24(21.6%) |
| 취업을 위한 교육 | 5 | 6 | 11(9.9%) |
| 입시학원 | 2 | 0 | 2(1.8%) |
| 취업준비 | 1 | 2 | 3(2.7%) |
| 진학준비 | 1 | 1 | 2(1.8%) |
| 나이가 많아 근로 힘듬 | 5 | 1 | 6(5.4%) |
| 심신장애 | 5 | 14 | 19(17.1%) |
| 쉬었음 | 7 | 11 | 18(16.2%) |
| 합계 | 36 | 75 | 111 |

여성의 경우 심신장애보다 육아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가사의 항목 또한 응답빈도가 높았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심신장애에 관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취업제의를 받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타를 제외하고 심신장애의 항목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Ⅵ-17>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취업 제의가 있었지만)

| 항목 | 빈도(명) | 유효비율(%) |
|---|---|---|
| 일의 성격이 전공, 기술, 경력, 적성에 맞지 않아서 | 4 | 8.3 |
| 임금수준, 후생복지,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이 맞지 않아서 | 8 | 16.7 |
| 지리적 위치 때문에 | 6 | 12.5 |
| 그 일자리나 직장에 대해 잘 몰라서 | 2 | 4.2 |
| 심신장애 | 9 | 18.8 |
| 연령문제(나이가 많거나 작아서) | 8 | 16.7 |
| 기타 | 11 | 22.9 |
| 계 | 48 | 100.0 |

현재까지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선한승의 연구에서는 처음부터 경제활동인구로 대상자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75] 이금순 외 6인의 연구에서는 비경제활동에 관한 조사내용이 있으나,[76] 통계청이나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는 표준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조용관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부진이 직업능력이 없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77] 하지만 조용관의 연구에서는 측정지표가 단순한 직업능력의 부족(54%)이라는 포괄적 조사항목으로 설정되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직업능력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인 '일의 성격이 전공, 기술, 경력, 적성에 맞지 않아서'에 응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하다. 또한 타 연구와 비교하여 임금수준, 후생복지,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이 맞지 않아서 취업 제의를 거절하였다(16.7%)는 측면은 윤여상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육체노동을 기피하고 내근 즉 사무직

[75] 선한승 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76]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4)
[77] 조용관, "탈북자 문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공안연구』, 제14권 5호 (공안문제연구소, 2002), pp. 25~26.

직업을 원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주장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78]

직업이 없는 북한이탈주민 중(일시 휴직 포함) 60명인 42.9%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80명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구직기간은 평균 18.3주로 나타났으며, 1주 구직기간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은 7.7%, 4주 구직 기간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은 28.8%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71.2%가 1달 이상의 구직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자 중 희망 직장 형태는 일반직장을 원하는 비율이 52.7%로 높게 나타났으며, 틈틈이 하는 일을 선호하는 경우는 47.3%로 나타났다.

<표 Ⅵ-18>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직장형태

| 항목 | 빈도(명) | 유효비율(%) |
|---|---|---|
| 주로하는 일(일반직장) | 29 | 52.7 |
| 틈틈히 하는 일(아르바이트 등) | 26 | 47.3 |
| 계 | 55 | 100.0 |
| 결측 | 4 | |
| 합계 | 114 | |

북한이탈주민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학, 즉 학업문제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몸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28.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은 유의할 만하다.

[78]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서울: 세명, 2001), p. 285

<표 VI-19> 구직을 하지 않은 이유

| 항목 | 성별 | | 계(명/%) |
|---|---|---|---|
| | 남자 | 여자 | |
| 몸이 불편해서 | 5 | 16 | 21(28.8) |
| 통학 | 14 | 12 | 26(35.6) |
| 기타 | 3 | 3 | 6(8.2) |
| 워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 0 | 1 | 1(1.4) |
|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일자리가 없어서 | 1 | 0 | 1(1.4) |
|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취업이 어려움 | 1 | 4 | 5(6.8) |
| 이전에 일거리를 찾아 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 0 | 1 | 1(1.4) |
| 육아 | 0 | 8 | 8(11.0) |
| 가사 | 0 | 4 | 4(11.0) |
| 합계 | 24 | 49 | 73(100) |

* 결측값 1명(남) 미포함.

<표 VI-20>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현황

<table>
<tr><td rowspan="12">15세 이상 인구 (노동가능 인구) 220명 100% 남자: 92명 여자: 128명</td><td rowspan="4">경제활동인구 109명 49.5%</td><td rowspan="4">노동가능 인구에서 남: 60.9% 여: 41.4% 경제활동 인구에서 남: 56명(51.4%) 여: 53명(48.6%)</td><td rowspan="3">취업자 경제활동 인구에서 85.3%</td><td>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자 79명, 남: 42, 여 37</td></tr>
<tr><td>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0명</td></tr>
<tr><td>일시휴직자 : 14명 14명, 남: 6, 여: 8</td></tr>
<tr><td>실업자 경제활동 인구에서 14.7%</td><td>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16명, 남:8, 여: 8</td></tr>
<tr><td rowspan="8">비경제활동인구 111명 50.5%</td><td rowspan="8">노동가능 인구에서 남: 39.1% 여: 58.5%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남: 36명(32.4%) 여: 75명(67.6%)</td><td>육아</td><td>15명 남: 0, 여: 15</td></tr>
<tr><td>가사</td><td>11명 남: 0, 여: 11</td></tr>
<tr><td>통학</td><td>24명 남: 10, 여: 14</td></tr>
<tr><td>취업을 위한 교육</td><td>11명 남: 5, 여: 6</td></tr>
<tr><td>입시학원</td><td>2명 남: 2, 여: 0</td></tr>
<tr><td>취업준비</td><td>3명 남: 1, 여: 2</td></tr>
<tr><td>진학준비</td><td>2명 남: 1, 여: 1</td></tr>
<tr><td>연로</td><td>6명 남: 5, 여: 1</td></tr>
<tr><td>심신장애</td><td>19명 남: 5, 여: 14</td></tr>
<tr><td>쉬었음</td><td>18명 남: 7, 여: 11</td></tr>
</table>

## 마. 취업자 특성과 근로조건

### (1) 취업자 배경

본 조사결과 취업자는 7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연령대별 취업자는 40대가 가장 많고 20대와 30대가 같은 규모로 나타나며, 10대와 50대 이상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경제활동이 가능한 20대에서 60대까지 각 연령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40대는 취업의지가 가장 높고 노동시장의 환경에 적응하여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취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30대는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신의 능력과 조건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취업과 직업훈련은 30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30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용이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Ⅵ-21> 연령별 취업자

| 연령 | 빈도(명) | 비율(%) | 전체연령비율(%) |
|---|---|---|---|
| 10대 | 5 | 6.3 | 20명(9.0) |
| 20대 | 19 | 24.1 | 55명(24.9) |
| 30대 | 19 | 24.1 | 62명(28.1) |
| 40대 | 24 | 30.4 | 47명(21.3) |
| 50대 | 8 | 10.1 | 20명(9.0) |
| 60대 | 4 | 5.1 | 13명(5.9) |
| 70대 | 0 | 0.0 | 4명(1.8) |
| 계 | 79 | 100 | 221(100.0)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에 주업 외 수입이 발생하는 부업을 갖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41명이 있다고 응답하여 53.2%가 부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주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낮고 근로조건이 매우 불안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VI-22> 취업자의 부업 유무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있었음 | 41 | 51.9 | 53.2 |
| 없었음 | 36 | 45.6 | 46.8 |
| 계 | 77 | 97.5 | 100.0 |
| 결측 | 2 | 2.5 | |
| 합계 | 79 | 100.0 | |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은 취업할 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5.2%로 나타났으며, 부정의 답이 42.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들의 취업에 장애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은 남한주민들 특히 고용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의 해소 없이는 이들의 취업률 제고는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심리적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VI-23> 신분이 취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부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그렇다 | 122 | 55.2 | 56.5 |
| 아니다 | 94 | 42.5 | 43.5 |
| 계 | 216 | 97.7 | 100.0 |
| 결측 | 5 | 2.3 | |
| 합계 | 221 | 100.0 | |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19명으로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15명으로 20.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직업의 비율이 46.0%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상황의 열악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선호하는 사무종사자와 기술자,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은 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제 취업현황과는 상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4> 취업자 직업별 분포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서비스 종사자 | 15 | 19.0 | 20.3 |
| 사무 종사자 | 4 | 5.1 | 5.4 |
| 기타 | 4 | 5.1 | 5.4 |
| 판매 종사자 | 9 | 11.4 | 12.2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10 | 12.7 | 13.5 |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4 | 5.1 | 5.4 |
| 단순 노무 종사자 | 19 | 24.1 | 25.7 |
| 고위직원 혹은 관리자 | 4 | 5.1 | 5.4 |
| 해당 업무관련 전문가 | 1 | 1.3 | 1.4 |
| 기술자 및 준 전문가 | 4 | 5.1 | 5.4 |
| 계 | 74 | 93.7 | 100.0 |
| 결측 | 5 | 6.3 | |
| 합계 | 79 | 100.0 | |

### (2)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내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국제노동기구의 표준 근로시간인 주 36시간 미만 근로한 북한이탈주민은 18명으로 전체의 23.1%로 나타났으며, 36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76.9%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경우 36시간 미만 근로한 사람은 10.2%[79] 북한이탈주

[79] 통계청, 『2005년 10월 고용동향』(2005. 11), p. 13.

민의 경우 약 2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만이 아니라 근로조건도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Ⅵ-25> 취업자의 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빈도(명) | 비율(%) |
|---|---|---|
| 36시간 미만 근로 | 18 | 23.1 |
| 1～17 시간 근로 | 6 | |
| 18～35 시간 근로 | 12 | |
| 37시간 이상 근로 | 58 | 76.9 |
| 36～53시간 근로 | 22 | |
| 54시간 이상 근로 | 38 | |

주 36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35.7%는 본인 스스로 원해서로 나타났으며, 건강과 통학이 각각 21.4%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는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이 짧은 것은 대부분 직장의 사정보다는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의 희망과 개인적 사정 때문으로 나타났다.

<표 Ⅵ-26>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평소)

| 항목 | 빈도(명) | 비율(%) |
|---|---|---|
| 건강 | 3 | 21.4 |
| 통학 | 3 | 21.4 |
| 본인이 원해서 | 5 | 35.7 |
|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 2 | 14.3 |
| 기타 | 1 | 7.1 |
| 계 | 14 | 100.0 |

조사시점에서 지난 주 36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은 일시적 질병이나 사고(30.8%)로 나타났으며,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거나 조업 중단의 사유(23.1%)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근로시간이 짧았던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질병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의 건강에 대한 조건은 취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Ⅵ-27>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지난주)

| 항목 | 빈도(명) | 비율(%) |
|---|---|---|
| 일시적 질병이나 사고 | 4 | 30.8 |
| 휴가, 교육 | 3 | 23.1 |
| 가족적 이유 | 1 | 7.7 |
|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 2 | 15.4 |
| 사업부진, 조업 중단 | 1 | 7.7 |
| 기타 | 2 | 15.4 |
| 계 | 13 | 100.0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업시 근로계약 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취업시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는 20.8%로 매우 낮았으며, 계약을 한 경우도 3년 이상의 계약은 전혀 없으며, 1년 이상도 2.6%에 불과하여 직업 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28> 근로계약 상태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1개월 이하 | 3 | 3.8 | 3.9 |
| 1개월초과 - 1년 미만 | 8 | 10.1 | 10.4 |
| 1년 | 3 | 3.8 | 3.9 |
| 1년초과 - 3년 이하 | 2 | 2.5 | 2.6 |
| 정하지 않았다 | 61 | 77.2 | 79.2 |
| 계 | 77 | 97.5 | 100.0 |
| 결측 | 2 | 2.5 | |
| 합계 | 79 | 100.0 | |

직장에서 근로조건이 지속될 수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88.2%는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경우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하여 대부분은 자신의 특별한 과오가 없을 경우 근무는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9> 본인 잘못이 없을시 계속 근무 가능 여부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예 | 66 | 83.5 | 88.0 |
| 아니요 | 9 | 11.4 | 12.0 |
| 계 | 75 | 94.9 | 100.0 |
| 결측 | 4 | 5.1 | |
| 합계 | 79 | 100.0 | |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환경과 근로조건이 열악하지만 직장내에서는 자신의 성실성이 인정될 경우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직장선택과 만족도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 중 대기업은 단 5.6%에 불과하며, 5인 미만의 소규모 직장 취업자는 26.4%, 10인 이하는 전체의 48.6%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소규모 영세한 직장에 취업하고 있으며, 근로자 100인 이상의 직장 취업자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 10인 미만 직장 취업자 비율이 50%에 근접한다는 것은 이들의 상당수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장 근속기간을 단축하고 잦은 이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Ⅵ-30> 직장 규모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1~4인 | 19 | 24.1 | 26.4 |
| 5~9인 | 16 | 20.3 | 22.2 |
| 10~20인 | 22 | 27.8 | 30.6 |
| 30~99인 | 9 | 11.4 | 12.5 |
| 100~299인 | 2 | 2.5 | 2.8 |
| 500인 이상 | 4 | 5.1 | 5.6 |
| 계 | 72 | 91.1 | 100.0 |
| 결측 | 7 | 8.9 | |
| 합계 | 79 | 100.0 | |

취업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선택 기준을 조사한 결과 수입규모를 첫 번째 선택기준으로 제시한 비율은 44.2%로 가장 높고, 직업의 안정성이 16.9%로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적성과 흥미, 그리고 보람과 자아성취는 11.7%로 나타났으며, 발전성과 장래성은 9.1%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이 수입을 중요하게 여기

는 보수지향적 직업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의 적성과 자아성취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자아실현지향적 직업관을 갖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기여지향적 직업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직업 선택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응답자도 1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주관적 판단 없이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나 즉흥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관이 대부분 보수지향적이고 자아실현지향적 직업관이 매우 낮다는 것은 향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진로지도시 자신의 적성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직업선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표 Ⅵ-31> 직업선택의 기준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명성, 명예 | 1 | 1.3 | 1.3 |
| 직업의 안정성 | 13 | 16.5 | 16.9 |
| 수입규모 | 34 | 43.0 | 44.2 |
| 적성 혹은 흥미 | 3 | 3.8 | 3.9 |
| 발전성, 장래성 | 7 | 8.9 | 9.1 |
| 신분 혹은 신체의 안전 | 1 | 1.3 | 1.3 |
| 보람, 자아성취 | 6 | 7.6 | 7.8 |
| 기준 없음 | 11 | 13.9 | 14.3 |
| 기타 | 1 | 1.3 | 1.3 |
| 계 | 77 | 97.5 | 100.0 |
| 결측 | 2 | 2.5 | |
| 합계 | 79 | 100.0 |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7.9%는 만족한다, 32.1%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

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취업을 한 경우 직장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2/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취업 관문을 통과하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Ⅵ-32> 직업의 만족도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아주 만족 | 21 | 26.6 | 26.9 |
| 약간 만족 | 32 | 40.5 | 41.0 |
| 약간 불만족 | 15 | 19.0 | 19.2 |
| 매우 불만족 | 10 | 12.7 | 12.8 |
| 계 | 78 | 98.7 | 100.0 |
| 결측 | 1 | 1.3 | |
| 합계 | 79 | 100.0 | |

현재 직장에 대한 불만족 사항을 조사한 결과 79명 중 68명이 응답하여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것은 직업에 대한 만족을 표시한 응답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불만족 사항을 제시하였음을 의미한다. 주요 불만사항은 수입이 적다는 것으로 33.8%가 응답하였으며, 17.6%는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보람과 성취감이 없거나 신분안정성이 떨어지고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애로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에 대하여 갖는 중요한 의미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일 뿐 개인적인 발전이나 성취감에 대한 욕구는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VI-33> 현 직장의 불만 사항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수입이 적다 | 23 | 29.1 | 33.8 |
| 근로환경이 안좋다 | 5 | 6.3 | 7.4 |
| 근무시간이 길다 | 12 | 15.2 | 17.6 |
| 동료 등과 인간관계가 힘들다 | 3 | 3.8 | 4.4 |
| 직업안정성이 없다 | 4 | 5.1 | 5.9 |
| 신분 안정성이 없다 | 7 | 8.9 | 10.3 |
| 보람, 자아성취가 없다 | 2 | 2.5 | 2.9 |
| 기타 | 12 | 15.2 | 17.6 |
| 계 | 68 | 86.1 | 100.0 |
| 결측 | 11 | 13.9 | |
| 합계 | 79 | 100.0 | |

현재 직장에서 근무시간, 직무, 업무량을 변경하거나 직업을 변경할 의사를 질문한 결과 현재의 직장에서 현 직무를 그대로 담당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담당 일 외에 다른 일을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20.5%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조건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하였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직장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6.4%에 불과하였다.

<표 VI-34> 근무조건 및 직업변경 의지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현재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 4 | 5.1 | 5.5 |
| 현재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 15 | 19.0 | 20.5 |
|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 12 | 15.2 | 16.4 |
|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 42 | 53.2 | 57.5 |
| 계 | 73 | 92.4 | 100.0 |
| 결측 | 6 | 7.6 | |
| 합계 | 79 | 100.0 | |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 비율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직장생활 북한이탈주민은 현재의 근무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2.5%가 전직이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근무조건으로의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직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조건 개선 욕구는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근로욕구가 높다는 의미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 (4) 여성의 취업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하는 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0%였고, 여성이라고 해서 취업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9.0%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Ⅵ-35>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곤란 여부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있다. | 48 | 37.5 | 41.0 |
| 없다. | 69 | 53.9 | 59.0 |
| 계 | 117 | 91.4 | 100.0 |
| 결측 | 11 | 8.6 | |
| 합계 | 128 | 100.0 | |

여성이라서 취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8.2%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행을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고, 다음으로 육아부담이 18.7%, 기타 의견이 17.6%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육아부담이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여성에 대한 편견과 근로조건 불평등, 자신

의 직업의식 부족 등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VI-36> 여성 취업이 어려운 이유

| 항목 | 빈도(명) | 유효비율(%) |
|---|---|---|
|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행 | 3 | 3.3 |
|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 1 | 1.1 |
| 불평등한 근로여건 | 1 | 1.1 |
| 육아부담 | 17 | 18.7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행 | 53 | 58.2 |
| 기타 | 16 | 17.6 |
| 계 | 91 | 100.0 |
| 결측 | 37 | |
| 합계 | 128 | |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0대 여성은 육아부담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행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30대에서는 육아부담이 동일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0대 여성은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취업률 제고는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Ⅵ-37> 여성 취업이 어려운 이유 (연령대)

| 항목 | 여성 취업이 어려운 이유 | | | | | | 계 |
|---|---|---|---|---|---|---|---|
| |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행 |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 불평등한 근로여건 | 육아 부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행 | 기타 | |
| 10대 | 0 | 0 | 0 | 0 | 3 | 2 | 5 |
| | .0% | .0% | .0% | .0% | 5.7% | 12.5% | 5.5% |
| 20대 | 1 | 1 | 0 | 3 | 11 | 7 | 23 |
| | 33.3% | 100.0% | .0% | 17.6% | 20.8% | 43.8% | 25.3% |
| 30대 | 2 | 0 | 1 | 13 | 13 | 2 | 31 |
| | 66.7% | .0% | 100.0% | 76.5% | 24.5% | 12.5% | 34.1% |
| 40대 | 0 | 0 | 0 | 1 | 17 | 1 | 19 |
| | .0% | .0% | .0% | 5.9% | 32.1% | 6.3% | 20.9% |
| 50대 | 0 | 0 | 0 | 0 | 7 | 0 | 7 |
| | .0% | .0% | .0% | .0% | 13.2% | .0% | 7.7% |
| 60대 | 0 | 0 | 0 | 0 | 1 | 4 | 5 |
| | .0% | .0% | .0% | .0% | 1.9% | 25.0% | 5.5% |
| 70대 | 0 | 0 | 0 | 0 | 1 | 0 | 1 |
| | .0% | .0% | .0% | .0% | 1.9% | .0% | 1.1% |
| 계 | 3 | 1 | 1 | 17 | 53 | 16 | 91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바. 경제생활실태

### (1) 소득과 저축 및 부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근로소득 조사결과, 100만원 미만 소득자 비율이 65.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5.7%는 소득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수준은 하층 수준임을 보여준다.

<표 VI-38> 본인의 근로소득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50만원 미만 | 18 | 22.8 | 23.1 |
| 없다 | 2 | 2.5 | 2.6 |
| 50-100만원 미만 | 31 | 39.2 | 39.7 |
| 100-150만원 미만 | 18 | 22.8 | 23.1 |
| 150-200만원 미만 | 4 | 5.1 | 5.1 |
| 200-250만원 미만 | 2 | 2.5 | 2.6 |
| 250-300만원 미만 | 1 | 1.3 | 1.3 |
| 300-600만원 미만 | 1 | 1.3 | 1.3 |
| 600만원 보다 많음 | 1 | 1.3 | 1.3 |
| 계 | 78 | 98.7 | 100.0 |
| 결측 | 1 | 1.3 | |
| 합계 | 79 | 100.0 | |

<표 VI-39> 가족전체 총 소득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50만원 미만 | 65 | 29.4 | 31.0 |
| 50-100만원 미만 | 79 | 35.7 | 37.6 |
| 100-150만원 미만 | 35 | 15.8 | 16.7 |
| 150-200만원 미만 | 14 | 6.3 | 6.7 |
| 200-250만원 미만 | 7 | 3.2 | 3.3 |
| 250-300만원 미만 | 6 | 2.7 | 2.9 |
| 300-600만원 미만 | 2 | .9 | 1.0 |
| 600만원 보다 많음 | 1 | .5 | .5 |
| 600만원 보다 많음 | 1 | .5 | .5 |
| 계 | 210 | 95.0 | 100.0 |
| 결측 | 11 | 5.0 | |
| 합계 | 221 | 100.0 | |

본인의 소득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월 총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월 소득이 50~100만원 미만이 79명으로 응답자의 37.6%를 차지하였고, 50만원 미만이 65명으로 31.0%, 100~150만원 미만이 35명으로 1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족전체 월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2%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 전체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비율이 68.6%에 달한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가계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본인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비율이 65.4%로 나타났으나, 가족 전체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68.6%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가족내 근로소득자가 대부분 1인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저축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 221명 중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은 70명으로 31.7%였고, 저축을 하고 있지 않는 비율은 저축을 한다는 응답자의 두 배가 넘는 151명으로 68.3%의 비율을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비율 또한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68.3%가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미래에 대한 준비와 사고, 질병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과정에서 장기간의 실직, 질병, 사고, 가족해체 등의 시련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Ⅵ-40> 본인과 가족의 저축 여부

| 항목 | 빈도(명) | 비율(%) |
|---|---|---|
| 예 | 70 | 31.7 |
| 아니요 | 151 | 68.3 |
| 계 | 221 | 100.0 |

저축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70명을 대상으로 저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Ⅵ-41> 저축을 하는 이유 (2개 선택)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 29 | 20.7 | 26.9 |
| 질병, 재난 대비 | 20 | 14.3 | 18.5 |
| 주택자금 마련 | 24 | 17.2 | 22.2 |
| 내구재 구입 | 5 | 3.6 | 4.6 |
| 결혼, 장례비 | 3 | 2.2 | 2.8 |
| 가족 입국경비 마련 | 9 | 6.4 | 8.3 |
| 노후생활대비 | 15 | 10.7 | 13.9 |
| 여행 및 여가 활동 | 3 | 2.2 | 2.8 |
| 계 | 108 | 77.1 | 100.0 |
| 결측 | 32 | 22.9 | |
| 합계 | 140 | 100.0 | |

저축을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응답자 70명 중 29명(26.9%)이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때문에 저축을 하였고, 24명(22.2%)이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20명(18.5%)은 질병 및 재난에 대비해서 저축을 한다고 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저축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먼저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70명 개인의 월 저축액에 대해 알아보았다. 월 25만원 미만을 저축하고 있다는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월 저축액이 25~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0%로 나타났다. 반면 월 저축액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낮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월 평균 저축액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Ⅵ-42> 본인의 월 저축액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25만원 미만 | 34 | 48.6 | 54.8 |
| 25~50만원 미만 | 13 | 18.6 | 21.0 |
| 50~75만원 미만 | 2 | 2.9 | 3.2 |
| 75~100만원 미만 | 3 | 4.3 | 4.8 |
| 100~125만원 미만 | 2 | 2.9 | 3.2 |
| 125~150만원 미만 | 3 | 4.3 | 4.8 |
| 150~200만원 미만 | 2 | 2.9 | 3.2 |
| 200만원 보다 많음 | 3 | 4.3 | 4.8 |
| 계 | 62 | 88.6 | 100.0 |
| 결측 | 8 | 11.4 | |
| 합계 | 70 | 100.0 | |

<표 Ⅵ-43> 가족전체 월 저축액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25만원 미만 | 26 | 37.1 | 41.3 |
| 25~50만원 미만 | 11 | 15.7 | 17.5 |
| 50~75만원 미만 | 4 | 5.7 | 6.3 |
| 75~100만원 미만 | 8 | 11.4 | 12.7 |
| 100~125만원 미만 | 2 | 2.9 | 3.2 |
| 125~150만원 미만 | 4 | 5.7 | 6.3 |
| 150~200만원 미만 | 3 | 4.3 | 4.8 |
| 200만원 보다 많음 | 5 | 7.1 | 7.9 |
| 계 | 63 | 90.0 | 100.0 |
| 결측 | 7 | 10.0 | |
| 합계 | 70 | 100.0 | |

다음으로 개인의 월 저축액을 포함한 가족전체 월 저축액을 살펴보면, 25만원 미만이 26명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50만원 미만이 11명으로 17.5%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월 평균 200만원 이상 저축하는 사람은 5명으로 전체 7.9%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월

저축액 또한 개인 월 저축액과 마찬가지로 25만원 미만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저축수준에 이어 이들의 부채(빚) 수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부채(빚)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응답자의 166명(77.9%)이 부채가 없다고 답하였고, 47명(22.1%)은 부채(빚)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Ⅵ-44> 본인과 가족의 부채 여부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있다. | 47 | 21.3 | 22.1 |
| 없다. | 166 | 75.1 | 77.9 |
| 계 | 213 | 96.4 | 100.0 |
| 결측 | 8 | 3.6 | |
| 합계 | 221 | 100.0 | |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47명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본인과 가족의 부채 이유를 2개씩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본인과 가족의 입국경비 때문에 부채를 지게 되었다는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고, 사업실패로 인한 부채비율이 18.2%,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부채비율이 14.5%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부채의 가장 많은 비율이 입국경비 때문이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원 퇴소 후 사회정착 순간부터 채무자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정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실패와 생활비 부족과 달리 입국경비로 인한 부채는 사회출발시부터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착금 지급 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표 Ⅵ-45> 본인과 가족의 부채이유 (2개 선택)

| 항목 | 빈도(명) | 비율(%) |
|---|---|---|
| 본인과 가족의 입국경비 때문에 | 21 | 38.2 |
| 기타 | 1 | 1.8 |
| 질병, 재난 | 6 | 10.9 |
| 생활비 부족 | 8 | 14.5 |
| 사업(투자)자금 | 7 | 12.7 |
| 사업실패 | 10 | 18.2 |
| 주택마련 | 1 | 1.8 |
| 내구재 구입비 | 1 | 1.8 |
| 계 | 55 | 100.0 |

부채를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47명의 부채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300~500만원 미만과 500~1000만원 미만이 각 7명으로 16.3%의 비율을 보였고, 2000~3000만원 미만이 6명으로 12.8% 비율을 나타냈다. 게다가 5000만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비율도 7.0%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채액은 북한이탈주민의 소득과 저축 수준을 고려할 때, 자력에 의한 단기간 상환은 대부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나원 교육과 퇴소 후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부채의 위험성과 부채관리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표 Ⅵ-46> 본인과 가족의 부채 규모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50만원 미만 | 2 | 4.3 | 4.7 |
| 3000~4000만원 미만 | 1 | 2.1 | 2.3 |
| 4000~5000만원 미만 | 2 | 4.3 | 4.7 |
| 5000만원 보다 많음 | 3 | 6.4 | 7.0 |
| 50~100만원 미만 | 2 | 4.3 | 4.7 |
| 100~200만원 미만 | 2 | 4.3 | 4.7 |
| 200~300만원 미만 | 5 | 10.6 | 11.6 |
| 300~500만원 미만 | 7 | 14.9 | 16.3 |
| 500~1000만원 미만 | 7 | 14.9 | 16.3 |
| 1000~1500만원 미만 | 5 | 10.6 | 11.6 |
| 1500~2000만원 미만 | 1 | 2.1 | 2.3 |
| 2000-3000만원 미만 | 6 | 12.8 | 14.0 |
| 계 | 43 | 91.5 | 100.0 |
| 결측 | 4 | 8.5 | |
| 합계 | 47 | 100.0 | |

### (2) 생활수준 및 만족도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저축 수준, 부채 수준과 함께 이들의 가족전체 월 생활비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Ⅵ-47> 가족 월 생활비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50만원 미만 | 83 | 37.6 | 40.5 |
| 50-100만원 미만 | 89 | 40.3 | 43.4 |
| 100-150만원 미만 | 30 | 13.6 | 14.6 |
| 150-200만원 미만 | 2 | .9 | 1.0 |
| 200-300만원 미만 | 1 | .5 | .5 |
| 계 | 205 | 92.8 | 100.0 |
| 결측 | 16 | 7.2 | |
| 합계 | 221 | 100.0 | |

가족 월 생활비가 50~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5%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가족 월 생활비가 200~300만원 미만으로 높은 경우는 0.5%에 불과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은 저축이 아닌 소득수준과 연계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소유형태와 주거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조사 대상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전세, 월세, 임대주택 혹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 대상자 중에는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아파트 혹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17명으로 전체 98.6%를 차지하였고,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3명으로 1.4%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득과 저축수준이 주택구입을 위한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의하여 이들에게 모두 임대아파트가 제공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Ⅵ-48> 주거형태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아파트 | 217 | 98.2 | 98.6 |
| 다세대주택 | 3 | 1.4 | 1.4 |
| 계 | 220 | 99.5 | 100.0 |
| 결측 | 1 | .5 | |
| 합계 | 221 | 100.0 |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

율은 34.1%,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의 두 배에 해당하는 65.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직장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지만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Ⅵ-49> 본인 소득에 대한 만족도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아주 만족 | 19 | 8.6 | 9.0 |
| 약간 만족 | 53 | 24.0 | 25.1 |
| 약간 불만족 | 63 | 28.5 | 29.9 |
| 매우 불만족 | 76 | 34.4 | 36.0 |
| 계 | 211 | 95.5 | 100.0 |
| 결측 | 10 | 4.5 | |
| 합계 | 221 | 100.0 | |

북한이탈주민의 자동차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21명 중 199명(90.5%)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나머지 22명(9.5%)만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2명 중 RV-SUV를 보유한 사람이 8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400cc 이상인 대형차 보유자가 4명으로 19.0%, 승합-트럭 및 800cc 이하 경차 보유자가 각 3명(1.4%)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 비율은 10% 미만이지만 이들 중 중형과 대형, RV-SUV 차량 소유자가 소형차와 승합-트럭 소유자보다 많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합리적인 소비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Ⅵ-50> 자동차 보유 현황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경차(800CC 이하) | 3 | 13.6 | 14.3 |
| 소형(1300CC 이하) | 1 | 4.5 | 4.8 |
| 중형(2400CC 이하) | 2 | 9.1 | 9.5 |
| 대형(2400CC 이상) | 4 | 18.2 | 19.0 |
| RV-SUV | 8 | 36.4 | 38.1 |
| 승합-트럭 | 3 | 13.6 | 14.3 |
| 계 | 21 | 95.5 | 100.0 |
| 결측 | 1 | 4.5 | |
| 합계 | 22 | 100.0 | |

다음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2명이 자동차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60.0%(12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30.0%(6명)로 나타났다.

<표 Ⅵ-51> 자동차의 용도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출퇴근용 | 12 | 54.5 | 60.0 |
| 영업용 | 2 | 9.1 | 10.0 |
| 업무용 | 6 | 27.3 | 30.0 |
| 계 | 20 | 90.9 | 100.0 |
| 결측 | 2 | 9.1 | |
| 합계 | 22 | 100.0 | |

### (3) 자격증과 정부보조금 수혜

한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8%가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없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37.2%는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취업

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2/3의 북한이탈주민이 취득자격증이 없다는 결과는 취업수준이 낮은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표 Ⅵ-52>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여부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있다 | 81 | 36.7 | 37.2 |
| 없다 | 137 | 62.0 | 62.8 |
| 계 | 218 | 98.6 | 100.0 |
| 결측 | 3 | 1.4 | |
| 합계 | 221 | 100.0 | |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 취득한 자격증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보았다. 1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고, 2개를 취득한 비율은 8.8%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Ⅵ-53>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개수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0 | 138 | 62.4 | 63.6 |
| 1 | 49 | 22.2 | 22.6 |
| 2 | 19 | 8.6 | 8.8 |
| 3 | 7 | 3.2 | 3.2 |
| 4 | 2 | .9 | .9 |
| 5 | 2 | .9 | .9 |
| 계 | 217 | 98.2 | 100.0 |
| 결측 | 4 | 1.8 | |
| 합계 | 221 | 100.0 | |

정부가 주는 보조금(정착금)에 가산금(자격증 취득, 1년 이상 취업 등의 이유로 주는 것)을 받았는지에 대해 전체 221명 중 191명(90.5%)이 받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20명(9.5%)만이 가산금을 받았다고 응답

하였다. 가산금 수혜자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제도에 대한 홍보수준이 낮고 실제 적용 대상자가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Ⅵ-54> 정착보조금 중 가산금 수혜여부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받았다. | 20 | 9.0 | 9.5 |
| 받지 않았다. | 191 | 86.4 | 90.5 |
| 계 | 211 | 95.5 | 100.0 |
| 결측 | 10 | 4.5 | |
| 합계 | 221 | 100.0 | |

정부가 주는 가산금을 받은 경우, 그 가산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다. 100만원의 가산금을 받은 비율이 22.2%로 가장 높았고, 50만원을 받은 비율은 16.7%, 100만원 이상은 44.5%로 나타났다.

<표 Ⅵ-55> 가산금 액수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10 | 1 | 5.0 | 5.6 |
| 15 | 1 | 5.0 | 5.6 |
| 20 | 1 | 5.0 | 5.6 |
| 24 | 1 | 5.0 | 5.6 |
| 30 | 2 | 10.0 | 11.1 |
| 36 | 1 | 5.0 | 5.6 |
| 50 | 3 | 15.0 | 16.7 |
| 100 | 4 | 20.0 | 22.2 |
| 119 | 3 | 15.0 | 16.7 |
| 180 | 1 | 5.0 | 5.6 |
| 계 | 18 | 90.0 | 100 |
| 결측 | 2 | 10 | |
| 합계 | 20 | 100.0 | |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단지 11.7%만이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용지원금은 초기 2년간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한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정규 직장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지원금 제도의 효과는 현재로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규직 취업을 장려하고 고용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표 Ⅵ-56> 고용지원금 수혜여부

| 항목 | 빈도(명) | 비율(%) | 유효비율(%) |
|---|---|---|---|
| 있다 | 9 | 11.4 | 11.7 |
| 없다 | 68 | 86.1 | 88.3 |
| 계 | 77 | 97.5 | 100.0 |
| 결측 | 2 | 2.5 | |
| 합계 | 79 | 100.0 | |

## 사. 정책제언

본 조사에서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실태와 고용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기존 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일반 국민 조사결과와 비교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과 고용동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은 매우 위축되어 있으며, 고용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일반 주민들과 비교할 경우 경제활동과 고용동향은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9.5%이지만 일반 주민들은 62.5%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자 비율은 북한이탈주민 85.3%, 일반국

민 96.4%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과 취업상황이 매우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취업률만이 아니라 고용조건에서도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 일용직 비율은 50%를 넘었으며, 특히 여성들의 취업률과 고용조건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과 경제활동이 낮은 것은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와 사회적응 교육 기간의 필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심신장애와 허약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심신장애 내지 허약을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의 취업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장애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확대를 억제하는 중요 요인도 건강 문제로 조사되었다. 특히 건강문제는 여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문제는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PTSD)과 같은 심리적 질환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원과 거주지역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주민들과 고용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식전환 프로그램의 실행이 요구된다.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에 의하여 취업과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거리감을 갖게 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장애는 물론이고 이들의 소외감을 증폭시켜 사회적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방송 및 언론매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는 상호 역할분담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생산적 기여자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초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취업과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취업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그리고 정부 지원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고용안정센터와 민간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민간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과 축적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계청 월간 고용동향 보고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활동과 고용동향에 대한 보고서가 분기별 또는 반년간 형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2. 취업지원 모형

### 가.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대상별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궁극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대상별로 분류하여 취업내용을 결정지을 필요가 있으며 취업영역별 구분과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사례관리형태의 취업관리가 필요하다. 적절한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유지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자본요소들이 있

으며, 이를 토대로 한 취업적응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상황에 따른 대상별 취업유형을 적절히 배합시키고 체계적으로 적용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크게 3단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북한이탈주민 상황에 따른 대상별 취업관리

#### (가) 1단계 대상 및 주요취업종류

1단계의 대상으로는 초기 입국대상자~입국 2년 경과 대상자 중심으로 하며, 한편 2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2단계로 진입준비가 안되었거나 불가피한 하위보호계층이 중심이 되어진다. 1단계의 주요 취업종류로는 공공근로 등을 통한 취업기회 확보가 추축이 되며, 취업주관도 공공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나) 2단계 대상 및 주요취업종류

2단계의 대상으로는  입국 2년 경과 대상자~입국 4년 경과 대상자 중심으로 하며, 한편 입국기간과 상관없이 중하위계층(차상위계층 포함)에 속하는 대상이 중심이 되어진다. 2단계의 주요 취업종류로는 자활 공동체 및 업그레이드 자활 등을 통한 창업 및 파견기회확보를 통한 취업관리지도를 해나간다. 이단계의 취업주관은 공공의 지원과 함께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 (다) 3단계 대상 및 주요취업종류

3단계의 대상으로는 입국 4년 경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며, 한편 입국기간과 상관없이 중위계층 이상에 속하는 대상이 중심이 되어진다. 3단계의 주요 취업종류로는 중산층 진입을 위한 직업기술 지도 관리 및 전문 직업기술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보해나간다. 3단계의 취업주관은 민간이 주축이 되고 공공의 지원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

### (2) 북한이탈주민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공통요소

북한이탈주민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공통 요소로는 취업의지, 직업능력의 확보, 직업적응 및 사후관리 확보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가) 취업의지 확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직업을 갖으려는 직업의식과 취업의지 필요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응한 교육이 요구된다.

#### (나)직업능력 확보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능력증진 교육이 필요하다

#### (다) 직업적응 및 사후관리 확보

취업이후에 직종별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직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3) 노동시장 분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자본주의 시장 경쟁체제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권에서 생활하여 자본시장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본격적인 경쟁구도 하에 들어가기 전에 공공영역에서의 정부보호, 보호시장체계에서의 숙련 후 자본주의 시장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취업 경쟁하는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 (가) 공공영역

완전보호를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단계로 공공부조의 형태와 생계비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고 생산연령계층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업그레이드 자활 등의 형태로 취업을 위한 준비와 수습의 형태로 근로해나가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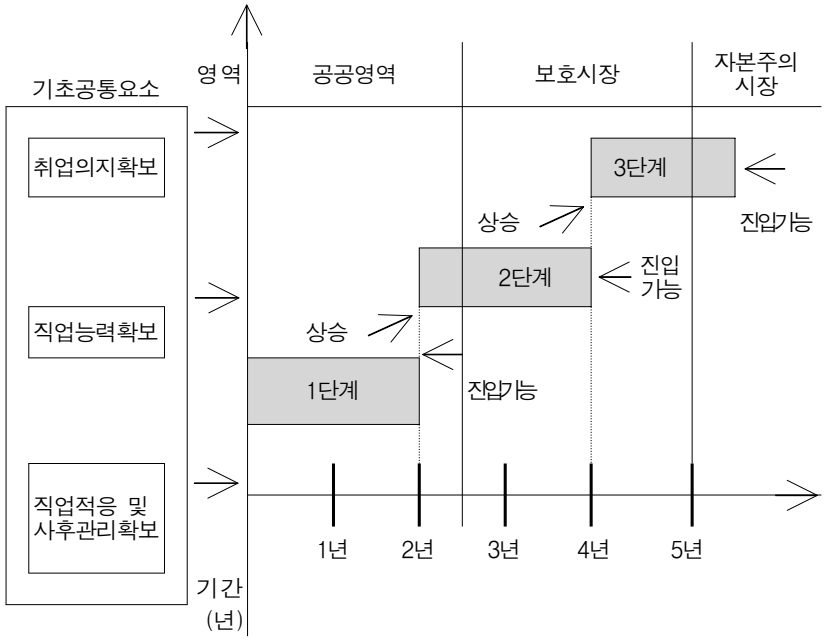
### (나) 보호시장

본격적인 자본주의 노동시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보호의 단계로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취업을 하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제도 및 지원의 그물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나가는 단계이다.

### (다) 자본주의 시장

남한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구도에 들어서는 단계로 전적으로 본인의 능력과 선택에 의해 취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도 적응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일정정도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Ⅳ-2> 북한이탈주민 대상별 취업관리 틀




대상별 취업관리를 위의 그림을 중심으로 요약설명하면 1단계에서 우선 초기 입국자~2년 경과 대상자 중심으로 혹은 입국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사회에서 하위보호계층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에서 공동작업장 및 공공근로 등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보하여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초기 입국자가 2년정도 지난후 차상위 계층이상 정도의 일정수준 생활적응이 가능하게 되면 2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주로 입국 2년차~4년 경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거나, 입국기간과 상관없이 차상위 혹은 중하위 생활을 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자활후견기관 및 선경직업학교 등을 통한 자활공동체 및 업그레이드 자활 등을 통한 창업 및 파견기회를 확보하여 취업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3단계에서는 주로 입국 4년이상 경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재교육 및 신기술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되 4년이 안되었어도 학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전문직업기술습득

을 통한 취업기회확보가 가능한 대상을 중심으로 실제적, 전문적,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이로서 일반적으로 초기입국하여 위의 3단계를 거쳐 5년 이상이 경과되면  궁극적으로 남한사회에서 중산층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요 목표가 있다.

## 나. 전달체계의 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전달체계의 구성형태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달체계의 구성은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정책 전달구조의 구성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 혹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 배열(organizational arrangements)이다. 공공영역에서의 구조는 중앙과 지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시행령을 보면 중앙정부는 행정사무중 국가의 존립과 관련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을 구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며, 지방정부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전달체계의 구심점을 지방지역에 두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장이 주로 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관계와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급자와의 관계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상층구조의 지원관계 등이 형성되어진다. 이는 취업 정책정향, 즉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자 등 빈곤과 소외계층을 위하여 수행되는 취업기능에 대한 정책적 노력 정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은 이러한 긴밀하고 밀접한 취업정책정향이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높이고, 취업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법, 즉 취업 서비스의 적절한 분배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에 관련된 권한과 통제권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둘째, 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과업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 셋째, 전달체계의 구성 즉 서비스 전달단위의 수와 조직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와 관련되어질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 권한과 관련한 상층구조의 결정은 서비스의 단편성, 비연속성, 비책임성, 비접근성 등의 문제의 정도를 결정 할 수 있다. 단편성의 경우는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할 것인가, 서비스를 분산 조화시킬 것인가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통합성의 정도를 결정 하게 되는 것이며 비접근성의 경우는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진입하는 데의 장애와 관련되는데 소득, 연령 등 관료적 선별주의가 특정한 서비스수급을 배제시킬 수 있다. 비연속성의 경우는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의 욕구에 자원을 대응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다양하거나 광범위한 욕구에 대응한 자원간의 연속적인 연결체계와 관련되어진다. 비책임성의 경우는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과 정책결정자들 간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와 관심에 반응적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에 있어서 취업서비스 전달의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체계를 재조직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으며 그전략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서비스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전달체계 구성과 관련된 전략 3가지와 관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에 관련한 권한과 통제력을 재구조화 하려는 전략과 관련된 것이다. 즉 의사결정권한을 어디에 두는가와 관련하여 권위를 재구조화하는 전략으로 민간영역의 조정(coordination)과 참여(citizen participation)가 있다. 조정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취업서비스 체계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진 전략이다. 또한 단편성을 극복하고 서비스의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개선전략[80]으로 중앙화 전략이 있는데, 중

[80] 단편성을 극복하고 서비스의 일관성을 부여하기위한 전략으로 중앙화 연방화 협력 등이 거론되어지는데 연방화(federation)의 경우는 상이한 기관들을 지역적으로는 중앙화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통합하지 않는 접근이다. 연방화된 전달체계는 그것이 갖는 공식성과 귀속력의 정도에 따라

앙화(centralization)는 행정적 통합을 통한 조정전략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서비스의 단편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정책결정 당국간의 조직적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경향으로 기존에 조직간 문제를 조직내 문제로 내부화 시켜 갈등과 서비스간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창구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하지만 단일 창구는 서비스 의뢰와 연속성에 입각하여 서비스 전달을 분배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수습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와 가장 대조되는 형태로 권위의 재구조 전략과 관련하여 정부단위나 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정책결정 권한을 재분배하려는 목적을 가진 또 하나의 전략은 민간참여 (citizen participation)이다. 민간참여 형태는 매우 다양 할 수 있어서 정부획득에서부터 자문, 공동계획, 시민에 의한 완전한 통제에 이른 연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민간참여 전략은 기존 권위구조의 변형없이 진행되는 비분배적 참여(nondistributive participation), 의사결정권위에 대한 시민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결정의 결과를 크게 바꾸지 못하는 유사참여(pseudoparticipation)혹은 명목적 참여(normal participation),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위구조가 변형되는 재분배적 참여(redistributive participation)의 형태가 있다.

둘째, 취업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과정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과업할당을 재 구조화하려는 전략으로 역할부과와 전문적 이탈이

---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방구조는 구성단체가 공동 운명의식을 갖고 자신이 가진 기술 자원 지식 인력 등을 공동출자한다. 출자비용은 연방조정에서 얻은 편익보다는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각 구성단체의 조화를 위해서는 각기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희생되어야 하며 많은 경우 연방화 전략에 있어서 협력적 측면이 결여된 연립조직화 하는 수가 많다. 또 하나의 방법은 협력(collaboration)이 있다. 사례별 협력(case-level collaboration)은 서비스 기관들이나 서비스 담당자들 간의 분권화 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있다. 역할 부과는 취업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 즉 북한이탈주민 간의 계급격차로 인해 수혜대상자들이 서비스 전달체계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혀가는 전략을 취해나가는 것이다. 서로의 문화행위 양식 등을 이해 못함에 따라 접근성 비연속성의 문제가 생기면 이는 조직적 문제보다 사회계층의 문제로 생길 수 있다. 때로는 같은 계층이어야 사회계급 중재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민간영역에서 실제적인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을 시킬 때 교육담당자가 북한이탈주민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을 혼돈없이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접근성 및 친밀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관련 비전문가라도 투입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려해야할 문제로는 비전문적인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될 가능성, 비전문적 보조요원 투입으로 인한 전문가의 반발가능성, 비전문가의 중재 역할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통합될 경우 그 이후에 효과성이 감소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 이탈(격리)은 기관내 전문가가 조직의 규제 영향의 제한 때문에 틀을 깨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관료적 획일성은 비전문 보조요원이 전문적 행위 양식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유 분방한 스타일을 억압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가의 기능 수행에 방해하여 전문가들은 행정과 북한이탈주민의 욕구간 격차로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이직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한다. 즉 조직과 취업전문가[81] 양측의 장단점을

[81] 전달체계의 2가지 중요한 요소는 취업서비스 전문가와 취업서비스 조직이다. 취업서비스 전문가는 전문주의와 관련하여 지위향상(statuse enchancement)의 관점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취업서비스 관점은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과정으로서 욕구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취업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지위향상의 관점에서 보면 전문주의란 전문가들의 특권과 지위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이익에 더 많이 노력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극대화된 전달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문가와 서비스 조직의 관점에서 전달전략을 위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 전문주의란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

고려한 전략수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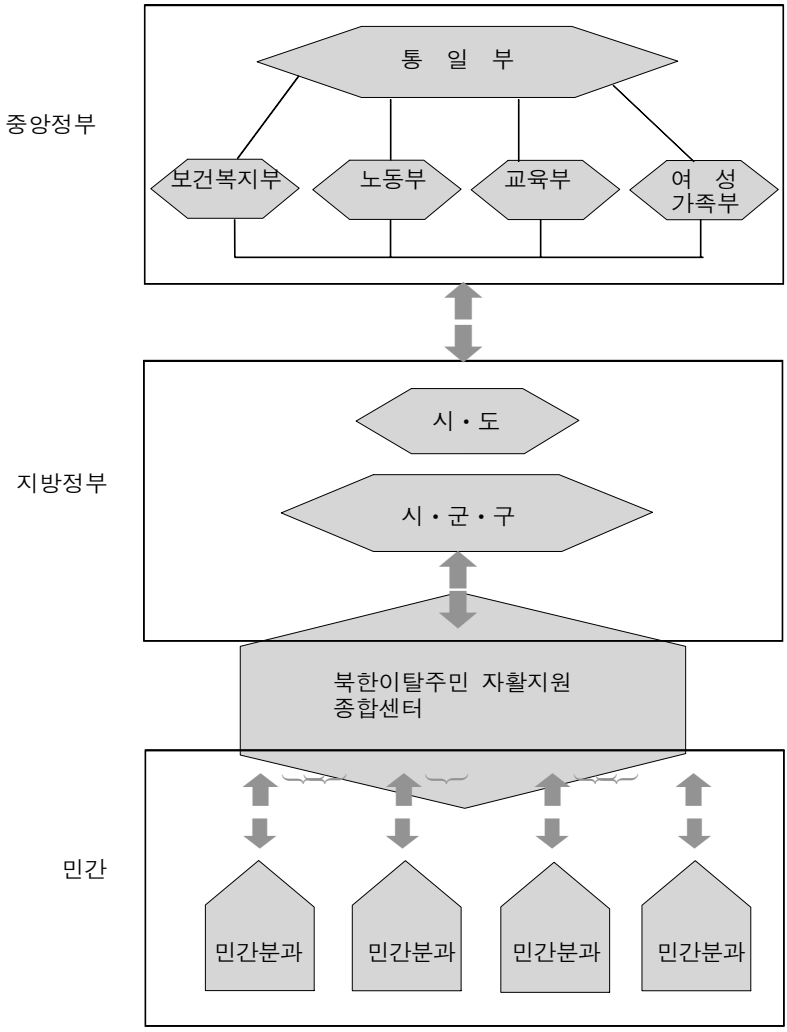
셋째, 전달체계의 구성과 관련한 전략으로 전문화된 접근구조 이다. 취업서비스에 진입하는 것을 전달체계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전달체계의 구성을 체계화시켜나가는 것이다. 즉, 취업서비스의 접근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사회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평한 전문적 접수창구(professionally unbiased doorway)를 갖고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취업서비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복잡한 전달체계의 미로찾기에 도움을 제공해 나간다. 여기서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는 접근자체를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서 관료조직내에서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을 얻기 전까지 거쳐가야 하는 또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활지원 종합센터에서 1단계 진입과 2단계 취업서비스의 제공의 역할을 같은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사정 및 진단적 접근과 실제 취업중심 서비스를 분리시키지만 연계가 수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구성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자활지원종합센터의 전달체계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쳤는가에 따라 전달전략의 선택이 달라진다. 취업담당자의 전문성도 높이고 취업서비스의 질도 높혀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선택과 조화가 요구되어진다.

<그림 Ⅳ-3> 전달체계 흐름도



위의 그림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활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단위에서 관장하여 예산 및 조직운영의 틀은 공공단위에서 지원하며 실제적인 취업프로그램 및 지원 등의 실행적 영역은 민간에서 해나가는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즉 종합센터의 운영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운영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현재 자활후견기관의 병설형태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협의체의 분과(노동분과)로 들어가 민간의 자원활용과 연계를 원활하게 하여 취업활동의 폭을 넓혀가도록 한다.

## 다. 취업지원내용

직업능력 확보를 위해 실제적인 능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취업서비스를 급여의 형태로 받는 단계로 다음과 같이 3단계의 형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각 단계별로 보면, 1단계는 직업훈련 기초단계로 적성파악 및 진로 교육과 직업기초능력의 확보, 직업수행능력확보의 내용을 갖추게 된다. 직업훈련기초단계의 적성 파악 및 진로 교육은 우선 자기분석으로 본인의 적성과 가지고 있는 능력 및 발휘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 등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지게될 직장과 관련하여 직장의 성격 방향 등의 파악과 더불어 본인이 하게될 직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적성파악 및 진로교육이후 직업기초능력확보단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언어 및 용어 사용, 구인구직 정보프로그램의 활용방안 등을 잘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1단계의 마지막으로는 직무수행능력 확보로 전 단계에서 파악된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직장, 직업적응을 위한 기초 인턴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업훈련의 기초단계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다.

2단계는 직업능력 확보 단계로서 특정 직업 취득을 위한 훈련과 실제적인 현장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직업취득을 위한 훈련은 실제 갖고자 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하는 교육 훈련을 받게

되며, 이후 취업 실습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직접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단계가 직업적응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취업 및 창업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훈련 되어질 수 있다. 취업하고자 하는 영역에서(즉 자본주의 시장구조내에서)는 파견 및 인턴의 형태로 직무습득을 위한 직업전문기술을 익히게 되는 기간이며, 창업(혹은 자유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자활공동체나 선경직업학교, 좋은사람들 단체 등에서 창업관련 현장기술교육을 습득하게 된다. 여기서는 직접 시장구조에서 취업하는 조건하에서 일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훈련받게 함으로서 실제 취업 혹은 창업했을 때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적응해 나갈 수 있게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직업적응 및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단계로 직업을 갖은 후 개인별 여건에 따른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직장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조언과 자원을 지원해나가게 된다. 여기서 멘토링 시스템 등을 도입함으로써 긴밀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환경 및 기술변화에 따라가고 선도할 수 있는 보수교육체계를 특별히 구조화하여 직업유지가 장기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지원내용을 정리하여 구조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1단계 직업훈련 기초단계
   1-1 적성파악 및 진로교육
      자기분석단계
      직장분석단계
      직무분석단계
   1-2 직업기초능력확보(언어, 구직구인 정보프로그램활용 등)
   1-3 직무수행능력확보(직장, 직업적응을 위한 기초교육)
2) 2단계 직업능력 확보단계
   2-1 직업취득을 위한 훈련(자격증 등)

2-2 현장실무교육

직업전문기술 - 파견(인턴쉽) - 취업

창업관련현장기술교육 - 자활공동체 -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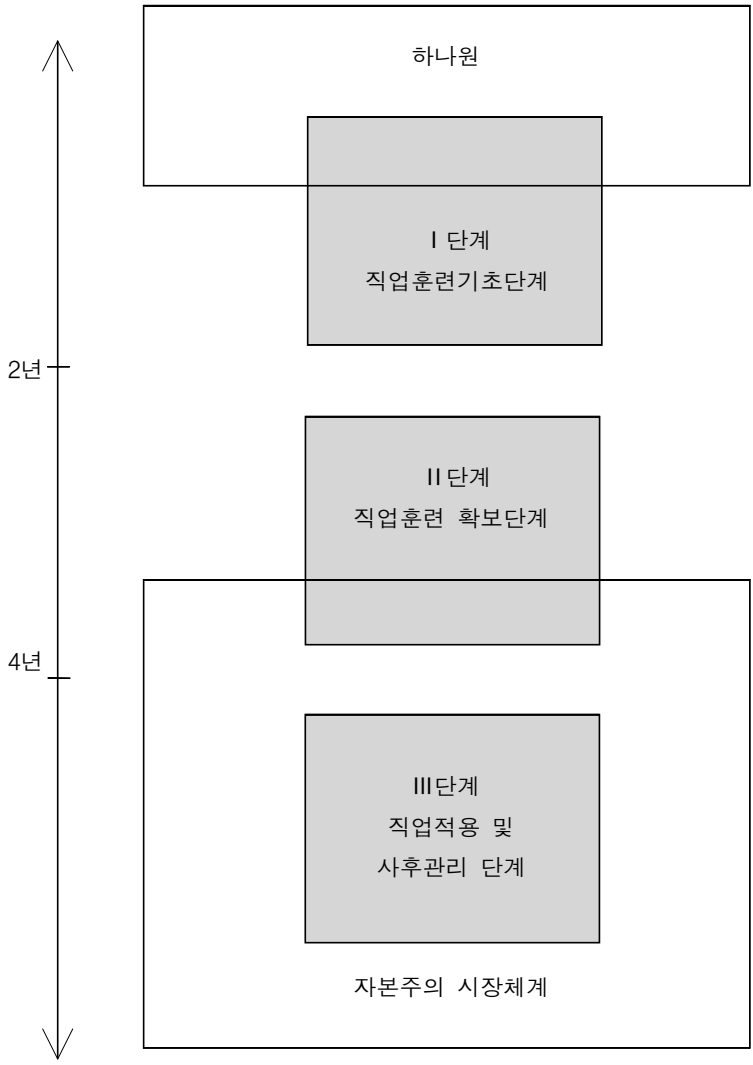
3) 3단계 직업적응 및 사후관리 단계

3-1 사례관리

3-2 보수교육

<그림 Ⅳ-4>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내용의 흐름 및 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 기초단계인 1단계는 하나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진입까지 약 2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직업능력 확보단계인 2단계는 지역사회 내에서부터 준비하여 취업시장에 진입한 이후의 기간까지 걸쳐 진행되어지고 이기간도 약 2년의 시간이 예상되어진다. 직업적응 및 사후관리 단계인 3단계에서의 사례관리 및 보수교육은 그 이후 직업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진다. 대체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진입 후 약 4~5년 이후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자활할 수 있는 취업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림 Ⅳ-4> 취업지원 내용 흐름도



### 라. 재정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의 실질적인 영역은 재정확보에 있다. 취업정책결정에 있어서 재정의 양식은 두 가지의 선택 기준이 있게 된다. 먼저 재정의 원칙, 즉 돈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나와 관련된 재원(source)과, 두 번째의 이전체계가 어떤 흐름인가(transfer system)와 관련되어진다.

재원(source)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취업정책결정의 북한이탈주민 대상선정, 취업유형(급여), 전달체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재원은 크게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수혜자기여(fee), 민간기부금, 공공재정 등 3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본인 기여(fee)는 서비스를 받는 자들의 이용료 기여로 요금과 갹출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기여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소득이나 능력 등에 따른 변수들을 고려하여 갹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소득 계층에 따른 차별적 요금 체계가 규정되어지며 재분배적 성격의 복지 요금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기여가 갖는 우수성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혜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게 되어 수혜자의 스티그마를 없앨 수 있다. 또한 수혜자도 기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 수혜자가 비용을 의식적으로 행동함으로서 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지 않게 되며 성실성, 과업완수를 위한 책임감등을 갖게 된다. 취업정책의 효과와  한편 수혜자 기여가 갖는 부정적 측면도 지적되어진다. 적은 기여라 하더라도 최저 소득 계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기여부담을 통해 스티그마를 해소시키는 것이 기여여부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적절한 비율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기여 형태의 도입을 고려해야한다.

둘째, 민간기부금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여해 나가는 것이다. 민간은 비영리 민간과 영리 민간으로 나누어지며 정부가 기업 등의 기부금

형태의 기금에 면세 혜택 등을 주면서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효과성 여부에 대한 주장들이 있는데, 민간단체의 운영필요성을 주장하는 측면은 정부로부터 자율적 재정하에서 민간기관의 기능을 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개별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원적이고 민주적 형태의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또 하나 서비스의 선도적 기능을 함으로써 새로운 시도와 실험적 활동 등이 가능하게 된다. 즉 민간의 활동은 공공서비스의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다. 한편 민간의 활동이 갖는 한계점도 있게 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재원이 민간운영기금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민간도 정부에 의존적이 되어지며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종속적, 관료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민간 기부금에서 재정이 충당 될 때는 모르지만 국가에서 재정을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열악한 재정으로 정부 서비스보다 질적인 저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면세 혜택을 주는 민간기관이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인가와 얼마만큼 기부자의 의도를 존중해 주어야 하나, 또는 자선 면책(charitable immunity)을 어느정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의 서비스 매입은 주로 재원과 전달의 주체가 구분되어 국가가 민간기관에 서비스 대금을 제공하는 재정을 담당하고 민간기관은 서비스 제공 및 전달을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정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자활지원 종합센터의 경우도 이러한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 속에서 구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장점은 정부 측면에서는 재원만 제공하면 되므로 프로그램을 쉽게 시작 할 수 있으며, 민간 측면에서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 사회다원적 역할 수용 등의 역할을 민간기관이 공공기관을 선도 할 수 있으며 국가에 구속되어 감사 등으로 인해 자율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게 되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공공재정의 경우는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의 형태로서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되어 제공된다. 조세의 소득 재분배적 성격에 따라 역진세[82]와 누진세[83]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또한 한 나라에서 간접세, 직접세의 비율에 따라 재분배 정도가 달라지며 이는 재원의 성격자체가 재분배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이다.[84] 또 다른 형태로 목적세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러한 목적세는 특별히 지정된(earmarketed)세금으로 세금 수금의 목적을 밝힌 세금유형이다. 세금과 프로그램을 연결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의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정책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걷는 세금이므로 여러가지 논쟁의 불씨를 유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세가 갖는 단점으로는 정책 입법자가 우선적 욕구에 세입을 융통성있게 사용하지 못할 때 위험이 있으며, 욕구에 대응하기보다는 돈의 액수에 의해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정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자활지원센터의 재정운영은 조직운영, 프로그램사업 운영 등의 영역별로 위의 3가지 요소를 적절히 배합한 역할분담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재정 이전체제의 주요특징은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how the money flows)와 재정이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how transfers are conditioned)등으로 재정 형태의 구성과 관련되어진다. 자금할당의 흐름은 사업수행의 정책목표, 여러 체계들과의 관계 등 프로그램을 사회복지 정책의 여러 각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리면에서는 정부의 큰 단위보다는 작은 단위가 더 적절할

---

[82] 역진세의 경우는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하는 불특정다수에게 세가 부과되어진다. 이는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형태이다.

[83] 누진세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소득 재분배적 성격을 갖게 된다.

[84] 예를 들어 간접세 중심으로 공적부조를 제공하는 것은 직접세 중심으로 운영하는 나라 보다 덜 재분배적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 방식이 보험료 방식보다 재분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 나가야 한다.

수 있는데 각 정부간에서는 이러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자활지원센터의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과 실제적 실천 단위인 지방정부간의 재정분담이 있어야 되며, 중앙정부 내에서도 통일부 주도하의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간의 재정영역별 분담 및 흐름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조직운영 지원 및 사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제와 지방의 자율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실행 관리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 급여의 성격, 할당의 기반, 전달체계에 관련된 선택에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는 프로그램에 드는 자금의 이전을 통해 급여를 분배, 직원고용, 계약체결 등의 능력이 같이 생기는 것이다.  즉 자금의 이전은 중요 정치적 자원의 교환을 의미하고 각 정부 단위들은 이 자원을 자신의 통제화에 두기 위해 경쟁한다. 사회복지기관과 프로그램들은 법, 전통, 경험이 결합되어 도입 실행되고 조직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지원되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대개 자금이전체계는 현재의 정치적 연합의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자금의 흐름은 두 당사자간에 있어 이루어지는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가 여럿일 수 있고 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상이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지방의 행정단위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드는 자원과 전문지식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가와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 하는 점 등도 고려되어 진다. 즉 한 단위에 프로그램을 맡길 경우 효율성 등의 논리적 이유가 있으면 또 다른 중요한 이유(정책목표 등)로 다른 단위에 프로그램을 맡길 수도 있다. 자금을 동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단위들이 자금지출에 얼마나 책임을 지어야하는가와 이 작은 단위들(지방정부 등)이 자금을 공급하는 쪽의 재정적 이해 관계에 따라 행위해 나갈 것인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쪽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의 지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

즉, 자금흐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질

수 있다. 지방의 행정단위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드는 자원과 전문 지식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나,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측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측의 지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어떤 것인가, 자금을 동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단위들이 자금 지출에 얼마나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또한 지방정부 등 작은 단위들이 자금을 공급하는 쪽의 재정적 이해 관계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와 관련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의 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자금이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how transfers are conditioned?)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보조금 지급의 경우는 보통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적 이전을 하게 되며 자금 제공자가 지원프로그램 목적에 동의를 구하는 수단으로 지급 조건들을 달게 된다. 지급 조건들의 수준은 다양하며 특정 프로그램에만 써야 하는 경우 조건없이 지원하는 경우 등 수준은 다양하며 지급조건을 상세히 규정하는 수준부터 대부분의 재량을 지급받는 단위(북한이탈주민자활지원센터 등)에 맡기는 수준까지 다양하게 된다.[85]

조건선택의 배합방식(matching)은 대체로 북한이탈주민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려는 노력에 대해 정부가 협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재정을 제공받는 단위에서 일정한 재정적 기여를 하도록 하는 방

[85] 보조금 지급의 형태는 크게 건당 요금부과제(fee-for-service)와 일반세입부담(general revenue sharing)의 형태로 나뉠 수 있다. 건당요금부과세는 건당 구체적 용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사용용도 등을 가장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자금 수령 지자체의 합의된 목적에 따라 지급해 나간다. 일반세입부담의 경우는 용도에 규정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반적 목적으로 지자체에 자금이전을 해준다. 특히 보조금 수령자의 재량을 주고 선택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한다. 보조금의 자금형태는 이러한 건당요금부과제에서 일반세입부담까지 수령자의 재량권 및 정부의 통제력 정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즉, 건당요금부과제, 범주적(사업별)보조금, 일괄보조금, 특별세입부담, 일반세입부담의 형태로 분류되어진다.

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 달성에 책임감을 부여하여 센터가 자기 부담으로 인해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나갈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간의 자원 할당을 재조정하기 위해 배합을 유동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데 대체로 처음에는 지원규모가 크다가 점차 삭감시켜 나감으로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배합방식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자체가 돈이 있고 의욕이 있을수록 중앙으로부터 협조를 많이 받게 되며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는 자기부담금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써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지자체간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유도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진다. 이러한 단위일수록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크고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활지원센터 내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정한 프로그램에만 자원이 편중되어 편협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특정프로그램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이 필요로 하거나 욕구가 있는 프로그램 영역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정부의 자원을 많이 받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만 자원을 투자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합방식에 의한 보조금 지급제도의 문제점은 센터 단위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크기, 실업자수, 주민일인당 소득 등의 추가적인 변수를 재정공식에 도입함으로서 가난한 지방정부 혹은 북한이탈주민 자활지원센터는 가능한 자기 부담금에 대한 몫을 상대적으로 낮춰줌으로서 정부의 지원이 보다 많이 갈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

#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

# 1.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

## 가.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념

프로그램(program)은 일상적 용어이지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의 활동을 안내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사전의 활동 계획표 즉 앞으로 진행시킬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활동 계획표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은 하나의 활동이다. 둘째, 프로그램은 일정한 순서와 계속성을 갖는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은 한 개 이상의 아이템이나 사건으로 구성된다. 넷째, 프로그램의 모든 아이템과 사건들은 일정한 목표를 갖는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86]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념은 체제(system), 기획(planning), 계획(plan), 문서(document), 수행(performance)이나 활동(activity)의 다섯 가지 형태를 갖는다.[87] 즉 프로그램은 일정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환경과 대상을 분석하고 자원을 동원하여 실행 가능한 실천계획과 실행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 지원 시스템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주된 적용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이며, 프로그램의 목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주체는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 특히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단체들이다. 또한 사회적응 프

---

[86] 김진화·정지웅,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의 이론과 실제』(서울: 교육과학사, 1998), p. 36.

[87] H. B. Long, *New Perspectives on the Education of Adult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Nichols Publishing Company, 1987), p. 185.

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램 개발의 일반적 단계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표 설정, 문제분석, 욕구사정, 전략선택 및 목표수준 조절, 프로그램 설계,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수립 및 확보,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평가, 평가결과 피드백 시스템 구축의 순서로 진행된다.

## 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특징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사업의 목적, 속성, 변화의 영역, 활동수준, 소요 기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정책적 환경, 그리고 이들의 욕구분석을 통해서 정책 대상자의 욕구와 사회정책적 욕구를 충족 또는 조절시켜줄 수 있는 적실성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어야 할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프로그램이다. 개방형 프로그램은 사업의 운영주체와 시설, 사업 대상자가 폐쇄된 형태가 아닌 개방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프로그램의 운영은 정부 담당기관만이 아니라 관련 민간단체가 함께 담당하며, 프로그램 사용 시설 역시 정부와 민간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함께 사용하게 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폐쇄된 전용시설에서 합숙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남한주민들과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희망에 따라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둘째, 혼합적 프로그램이다.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적 대책의 성격과 함께 전문적 영역에 대한 적용 프로그램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통합적인 종합 정책 하에서 세부적인 하위 프로그램을 갖는 혼합형 프로그램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병렬적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실행기관의 목적에 합당한 실행체계를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적용 대상자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받는 진행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종합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특정 대상과 영역을 한정하여 제시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현재 한국 지역사회는 이질적 체제에서 사회화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사회교육기관의 목적에 합당한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학습자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수 과정을 의미한다.

넷째, 활동 중심의 지역사회 수준 프로그램이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이들이 정착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의 성격과 정착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수준 프로그램의 성격을 함께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개별 프로그램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소요비용과 활동시간표 작성 등 세부적인 실시계획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과 고려사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구체성은 차이가 있다.

## 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한국사회의 이들에 대한 성격규정과 규모,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 단계에 의하여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일관된 정책 집행의 미비로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목표 설정과 구체적 계획 수립 그리고 집행을 위한 근본적 방향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으로 통일대비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인권존중,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통일대비 위한 사회통합 능력 제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목표설정과 욕구사정, 전략선택과 프로그램 설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집행과 평가, 그리고 피드백 단계까지 전체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첫째, 민관 및 중앙과 지방 협동의 원칙, 둘째, 실행가능성 제고의 원칙, 셋째, 실용성과 전문성 제고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관 및 중앙과 지방 협동의 원칙이다. 2002년 입국자 규모가 년 1,000명을 넘어 선 이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체계에 대한 재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조정과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집행기능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형태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일부 시행되고 있는 개선책은 중앙지방정부협동형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입국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전체 규모가 대규모화 되어 전국적 분포도를 보일 경우 중앙정부는 총괄적인 기획과 예산지원, 정책평가와 감독업무를 맡고 전반적인 정책집행과 북한이탈주민 교육과 사후관리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와 같이 지방정부주도형으로 전환될 경우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훈련 기

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형 또는 지방정부와 민간협동형 모델로 전환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주도 지방정부보조형 모델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대부분 행정사무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적응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확대추세에 있으나, 이를 제도화의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는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보다는 남북 이질화의 극복과 사회통합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는 재정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역정부차원의 지원체계와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 등 각종 관련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민간차원의 관련 사업기금의 조성을 통해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시도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과 설계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들과 전문연구자들의 협동작업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동을 전제로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행가능성 제고의 원칙이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자원동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근간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인도주의 원칙은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박애주의 사상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유입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과 인도주의는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설계와 집행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인력, 그리고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민관협동의 수준과 담당부서의 선정, 그리고 실제적인 시행기관 및 단체 선정과정에서 효율성과 합리성 그리고 비용의 경제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은 사업의 수립과 집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에 대한 규모와 조달방법이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남한 주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지원을 받는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 수립과 시행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여 정책이 시행될 경우 남한주민들의 반발과 시행착오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진행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국가의 관련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장애자, 저소득층 그리고 사할린 영주 귀국자와 같은 해외교포 귀국자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계층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계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정 보호수준은 계속

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내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단위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내 저소득계층과의 형평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실용성과 전문성 제고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정부와 연구자, 그리고 관련 전문인력의 공동작업으로 설계되고,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주로 집행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실용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설계와 집행과정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실용성과 전문성 제고는 결국 프로그램의 내용과 집행기관, 설계 및 진행과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주변 환경의 확보 등이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분석, 기존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검토, 주변환경분석을 통하여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변환경에도 긍정적 결과를 산출하도록 기획되었다. 이를 위하여 남한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공생의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선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지역주민들간의 통합의 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풀뿌리 자치의 경험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행동양식 중에는 남한주민들이 공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사회는 다원적 가치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하므로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이 인정되고 또한 공존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88]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사회와 문화에 일방적으로 수용되길 바란다면 이는 그 효과성 뿐

[88] 송자·이영선, "서장: 통일사회로 가는 길의 모색," 『통일사회로 가는 길』 (서울: 오름, 1996), pp. 18~19.

만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적응 프로그램은 다양성이 요구된다.

## 2.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고려사항

### 가.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전제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들이 남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하여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한사회의 환경, 지원방법, 대상별 특성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1) 주변 환경 요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은 일정한 시간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남한 주민들의 태도와 같은 환경 요인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의 적응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남한 주민들의 우호적 태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사고와 의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수준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적응을 분리나 문화해체의 형태로 인식할 경우 적응과정에서의 갈등은 심각해 질 것이며, 동화나 통합의 형태로 인식할 경우 갈등의 수준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남한사회의 환경이 그들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주민의 적응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라고 한다.[89] 그러므로 그들을 수용

[89] P. Regina and J. Brook, "Relationship of Migrant Status to Mental Health,"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Vol. 40, No. 3

하는 사회가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경우 적응이 용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의 적극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지원내용과 방법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서 지원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구체적 지원내용은 이들의 물질적 욕구의 충족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주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심리적 불안, 죄의식과 외로움, 경쟁력 부족, 정보부족 등으로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신변보장, 심리적 서비스, 제반 생활서비스 제공 그리고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제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 수단 등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경제적, 물질적 도움과 함께 남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적응 프로그램은 이주 초기 남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반드시 적응을 제고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방적인 지원은 오히려 적응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혜자는 원조자와는 다른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90] 원조자는 자신의 기여도와 그 효과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수혜자는 자신이 받았던 수혜의 양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수혜자라는 의미에는 약자와 열등한 자라는 부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혜자는 이타적 관계를 상호교환의 차원에

---

(1994), p. 180; Carolyn L. Williams & J. W. Berry,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Vol. 46. No.6 (1991), p. 633.

[90] J. D. Fisher, A. Nadler and S. Whitcher-Alagna, "Recipient Reactions to Aid", *Psychological Bulletin* Vol. 91 (1982), pp. 27~54.

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이 자존심이 특히 강한 수혜자에게 원조를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수혜자가 타인으로부터의 원조를 자기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일 경우 긍정적인 반응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되갚을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일방적인 도움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교환성이 요구되는 관계가 효과적일 것이다.

### (3) 대상별 특성 고려

북한이탈주민 적응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상별 욕구의 내용과 수준을 분석하고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접근과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희망사항, 직업별로 대상을 분류하여 특성에 맞는 지원수준과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질적인 특성과 목적의식을 가진 일정 규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은 북한에서의 직업이나 전공을 고려하여 세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특성화는 욕구분석의 애로, 입국 규모, 시설, 인력, 비용 등 현실적 조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량탈북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성, 연령, 학력과 직업에 따라 특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북한이탈주민 적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적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해소와 북한이탈주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세대별 분류는 취학전 세대, 취학세대, 경제활동세대, 비경제활동세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주부)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의 사회화 정도와 남한의 사회구조,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집단들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단위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서독 바이에른 주는

이주민들을 가족단위로 언어, 학교 그리고 직업교육을 총괄적으로 실시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족단위의 적응 프로그램은 이주 초기 이주민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어 이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91] 특히 가족주의 성향이 강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가족단위 적응 교육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조적이고 집합적인 적응양식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 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실행 유형

북한이탈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체계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실천 가능성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실행기관 결정과 그 유형의 결정은 실행의 효율성 보장, 전문인력의 확보, 비용확보 문제의 해결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적정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행 유형이 필요하다.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유형은 정부와 민간의 참여수준에 따라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그리고 그 혼합형인 민관협동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유형의 장단점과 남한사회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 (1) 정부주도형

정부주도형은 지방정부의 역할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독립된 전담기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정부주도형이다. 정부주도형은 정부가 기획과 집행 그리고 비용을 전액 담당하는 형태로써 민간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참여한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왜곡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

---

[91] 이정우·김형수, 『탈북 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p. 82.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주도의 적응 프로그램 수행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관계기관의 요원들에 의해 실시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적응교육은 비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92] 따라서 정부주도형 모델은 비용부담과 전문인력의 부족, 남한주민들과의 접촉기회 차단 등으로 일체감 형성이 지연되어, 결국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 (2) 민간주도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 실행 유형으로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민간주도형은 정부의 공식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로서 각종 민간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주도형은 국가의 정치적 부담, 재정부담, 전문인력 부족, 시설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지의 반영이 곤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의 고유한 목적이 우선적으로 개입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통일적인 집행의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조정과 관리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종교단체들의 경쟁적인 참여는 종교적 목적을 의식한 주최측의 무리한 요구들로 인해 마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지원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고 이는 부적응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민간의 참여범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정부유관 부처의 협력과 통일대비 차원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함축된 것으로서 민간의 주도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

[92] 이금순·송정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방안,"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80.

### (3) 민관협동형

민관협동형은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혼합형으로서 두 유형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참여는 심리적 안정 확보, 인력지원, 재정지원, 시설지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이해 증진이라는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상호간의 접촉증대를 통해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관협동형은 민간과 정부의 협동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정부는 전체적인 기획과 비용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민간단체가 주로 담당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의지, 심리적 안정, 실질적 지원효과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도,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이는 곧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고 더구나 정부주도로 인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동형은 정부와 민간의 협동과 역할 분담의 정도에 따라 정부주도 민간보조형과 민간주도 정부보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93] 그러나 그 구체적 역할분담의 내용은 정부의 재정상태, 시설확보,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현황과 민간의 참여의지 그리고 국민정서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기획의 영역은 정부가 담당하고, 지원의 영역은 민간이 맡아 상호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추

[93] 김동배, "탈북자들의 지원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서울: 오름, 1996.), pp. 84~86. 북한이탈주민 지원 모델과 관련하여 정부주도형을 최선으로 밝혔으며, 차선으로 반관반민의 형태를 주장하였다.

진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남한정부는 정부주도형 모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향후의 정책적 기조는 민관협동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적응 프로그램은 민관협동형에 의해 실시될 전망이다. 즉 향후 기획의 영역은 정부가 담당하고 지원의 영역은 민간이 담당하는 상호 역할 분담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정책의 기본 구조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민간 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주된 역할을 법정단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정부주도의 민관협동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기획과 프로그램의 조정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민간은 비용분담, 시설제공, 전문인력 제공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수용 단계에서 사회통합 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형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핵심적 사항인 전체적인 기획과 프로그램의 조정역할을 정부가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주도 민간보조형 모델'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이탈주민 관련문제는 그 특성상 정부를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의 영역에 따라 협동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각 프로그램의 단계에 따라 초기체제 적응단계에서는 정부주도 민간보조형, 정착지 진출 이후는 민간주도 정부보조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수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집행과 지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VI

#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연구를 지역사회복지관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복지관이 위치한 임대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 접근성이 높고, 자체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즉각적·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개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정착과정을 관찰하고,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를 가진 개별 사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주요관심 분야인 '취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관련 서비스를 집중지원 하면서 기타 보완되어야 하는 서비스 '정서지원/가족·대인관계성'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전문적 소요파악 및 적합한 자원연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세대의 경우 욕구수렴과정에서 재북·재중가족 및 남한입국 전의 생활상 등을 충분히 다루면서, 이러한 부분이 남한사회정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입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 지역 내 자원발굴 및 관리능력, 보호담당관 등의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상이나 여러 고민들을 가장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저항 없이 친근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각 사례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 집행자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련 실무자간에 정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실태, 즉 정착과정에서의 소요산정(Needs Assessment)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로 이주하여 왔을 초기에, 이들을 지역주민으로 환영하면서 이들의 정착기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거주지 안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기 거주 지역 가이드 역할은 현재 대한적십자봉사단 등을 중심으로 한 정착도우미들이 맡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별 사례관리자로서 역할은 지역 사회복지관의 담당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착지 배정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가 정착도우미와 함께 가정방문을 통해 지역정보 자료와 지역 내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세대(노인 단독세대, 모자가정, 자녀교육, 부부문제, 세대갈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세대 등)인지에 대한 가족 개인 및 가족단위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적당한 기관에 의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내용과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기록화 하여, 지역 내 관련실무자간에 사례관리 서비스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서비스의 실행과정에서 적절성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실무자들간의 평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형성과 관심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 지역복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행정기관 관계자, 교육기관, 종교기관, 각 직능단체장 등 지역유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 적응과정에서 갖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단위 문화행사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반지역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행사들을 기획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적절히 마련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학생 및 교사들에게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이 정착지에서 생활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지자들은 보호담당관 등 업무상 연계된 실무자들보다는 이웃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개별 대상에 대한 정착지원은 각 개별 자원봉사자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각기 영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들이 참여하는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제 지원에 참여할 역량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의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94]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내 관련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들에게 협조공람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지역별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방식과 전국단위 자원봉사조직의 지방자치단체지부 인력들이 북한이탈주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동시에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원봉사자의 교육은 일반 사회복지사업 등의 봉사자 교육과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세부영역별 활동사안들이 조금씩

---

94 홍순혜·박윤숙,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서울: 서울여자대학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착연구팀, 2004), p. 56.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전반에 대한 소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의 배경 및 이들의 적응실태, 적응상 어려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체험담, 통일부 등 관련부처 실무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소개, 북한주민들의 가치관 및 문화,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의 실무체험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에는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 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단위 자원봉사자의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반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 사전교육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보완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원봉사자교육과 전문실무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실무자, 보호담당관,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은 실제 지원과정에서 매우 포괄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습지도를 돕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가족단위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예를 들어 가족갈등과 같이 포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들을 접하게 된다. 또한 개별적인 상황이나 욕구가 자원봉사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긴밀한 인간관계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나 북한이탈주민 모두 심리적인 부담과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인적 지원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민간단체들이 직접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운용해 나가면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고경빈 외.『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 서울: 우양, 2005.

김진화·정지웅.『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98.

북한인권시민연합.『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 실천보고서⑧』. 서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5.

선한승 외.『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신응섭·채정민.『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통합적 접근』. 서울: 하나의학사, 1996.

윤여상.『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세명, 2001.

이금순 외.『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_____.『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이영선·전우택 편.『탈북자의 삶』. 서울: 오름, 1996.

이정우·김형수.『탈북 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홍선이.『독일의 직업훈련 -출장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홍순혜·박윤숙.『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착연구팀, 2004.

통계청.『2005년 10월 고용동향』. 2005. 11.

Edna, B. F., Terence, M. F., & Matthew, J. *Effective treatments for PTSD :practice guidelines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New York: Guilford Press, 2000.
H. B. Long. *New Perspectives on the Education of Adult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Nichols Publishing Company, 1987.

## 2. 논문

강영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위한 미시시피 척도와 MMPI-PTSD 척도의 비교」.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권용희.「수해지역 노인의 외상후 스트레스 조사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기홍.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동향."『직업과 인력개발』. 제1권 2호,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김화순.「북한 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 3년간의 직업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_____.「북한이탈주민 도배훈련과정 학습자 분석」. 미간행논문, 2005.
송경곤. "2003년 정착지원분과 활동의 회고와 전망."『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별 회고와 전망』. 서울: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협의회, 2003.
송자·이영선. "서장: 통일사회로 가는 길의 모색."『통일사회로 가는 길』. 서울: 오름, 1996.
안현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1호, 2005.
우현아.「교통사고 환자의 다발성 손상정도와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선미·김정희. "버스사고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인지-행동 집단치료의 효과."『한국심리학회지』. 제13권 3호, 2001.
이금순·송정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방안."『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병용 외. “임상가를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신경정신의학』. 38호, 1999.
임순희. “탈북자 문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현대북한연구와 남북관계』. 북한연구학회 2004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4.
전우택·윤덕룡.「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4.
전철은.「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조용관. “탈북자 문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공안연구』. 제14권 5호. 공안문제연구소, 2002.
최응용·홍종관·김춘경·이수연. “대구지하철참사 청소년생존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인지행동적 위기상담의 효과.”『청소년상담연구』. 제12권 1호, 2004.
Blake, D. D., Cook, J. D. & Keane, T. 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veterans who are seeking medical trea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48, 1992.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Konzpt für einen bundesweiten Integrationskurs.” Jan. 2005.
Davidson, J. R. T., Malik, M. A. & Travers, J. “Structured interview for PTSD (SIP): Psychometric validation for DSM-IV criteria.” *Depression & Anxiety.* vol. 5, 1997.
Devilly, G. J. “The Successful Treatment of PTSD Through Over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in Non-Responders to EMDR..”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vol. 29, 2001.

Foa, E. B. & Meadows, E. A. “Psychological treatment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critical re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8, 1997.

Horowitz, M. J., Wilner, N., & Alvarez, W.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distress.” *Psychosom Med*, vol. 41, 1979.

Hyer, L., Fallon, J. H., Harrison, W. & Boudewyns. “MMPI overreporting by Vietnam vetera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43, 1987.

J. D. Fisher, A. Nadler and S. Whitcher-Alagna. “Recipient Reactions to Aid.” *Psychological Bulletin* vol. 91, 1982.

Keane, T. M., Malloy. P. F. & Fairbank. J. A. “Empirical development of an MMPI subscale for the assessment of combat-related PTS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2, 1984.

Mollica, R. F., Caspi-Yabin, Y., Bollini, P., Truong, T., Tor, S. & Lavelle, J. “The Harvard Trauma Questionnaire: Validating a Cross-Cultural Instrument for Measuring Torture,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Indochinese Refugee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s.* vol. 180, 1992.

P. Regina and J. Brook. “Relationship of Migrant Status to Mental Health”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Vol. 40, No. 3, 1994.

Carolyn L. Williams & J. W. Berry.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Vol. 46. No. 6, 1991.

Weathers, F. W., Blake, D. D., Krinsley, K. E., Haddad, W., Huska, J. A. & Keane T. M. *The clinician administered PTSD*

*scale(CAPS):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Paper presented at 26th annual Meeting of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Boston MA., 1992.

Weiss, D. S., Marmar, C. R., Schlenger, W. E., Fairbank, J. A., et al. "The prevalence of lifetime and parti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Vietnam theater veterans." *Journal of Trauma Stress*. vol. 5, 1992.

## 3. 기타자료

http://www.goodpeople.or.kr/good2/good2_d.htm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 | | | |
|---|---|---|---|
| 2003-01 |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 최의철 저 | 6,000원 |
| 2003-02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 이우영 저 | 5,000원 |
| 2003-03 | 「조선녀성」 분석 | 임순희 저 | 6,000원 |
| 2003-04 |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 서재진 저 | 6,500원 |
| 2003-05 |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 여인곤 외 공저 | 8,500원 |
| 2003-06 |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 이헌경 저 | 5,000원 |
| 2003-07 |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 김영춘 저 | 4,000원 |
| 2003-08 |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최춘흠 저 | 3,500원 |
| 2003-09 |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 박영호 외 공저 | 8,500원 |
| 2003-10 |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 박형중 저 | 7,000원 |
| 2003-11 |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 최진욱 저 | 5,000원 |
| 2003-12 | 북한의 후계자론 | 이교덕 저 | 4,500원 |
| 2003-13 |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 박영규 저 | 5,500원 |
| 2003-14 |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 전현준 저 | 4,000원 |
| 2003-15 |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 박형중 외 공저 | 10,000원 |
| 2003-16 | 통일예측모형 연구 | 박영호 외 공저 | 8,000원 |
| 2003-17 |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 박종철 외 공저 | 10,000원 |
| 2003-18 |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 황병덕 외 공저 | 10,000원 |
| 2003-19 |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 임강택 외 공저 | 5,000원 |
| 2003-20 |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 최수영 저 | 3,500원 |
| 2003-21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 이금순 저 | 5,500원 |
| 2004-01 |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최의철 저 | 6,000원 |
| 2004-02 | A CRITICAL JUNCTURE | 최진욱 저 | 4,000원 |
| 2004-03 |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 임순희 저 | 5,000원 |
| 2004-04 |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 박종철 외 공저 | 10,000원 |
| 2004-05 |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 황병덕 외 공저 | 9,500원 |
| 2004-06 |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 김영춘 저 | 4,000원 |
| 2004-07 |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 홍관희 저 | 4,500원 |
| 2004-08 |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 김영윤 저 | 7,500원 |
| 2004-09 |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 정영태 저 | 5,000원 |
| 2004-10 |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 김수암 저 | 6,000원 |
| 2004-11 |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 박형중 외 공저 | 10,000원 |
| 2004-12 |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 박영호 저 | 5,500원 |
| 2004-13 |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 임강택 외 공저 | 6,000원 |
| 2004-14 |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 서재진 저 | 7,500원 |
| 2004-15 |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 손기웅 저 | 5,000원 |

| | | | |
|---|---|---|---|
| 2004-16 |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 조한범 저 | 4,500원 |
| 2004-17 |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 여인곤 외 공저 | 9,000원 |
| 2004-18 |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 이금순 저 | 5,000원 |
| 2004-19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 최수영 저 | 4,000원 |
| 2004-20 |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 이 석 저 | 9,000원 |
| 2005-01 |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 전성훈 저 | 7,000원 |
| 2005-02 |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 최의철 저 | 8,000원 |
| 2005-03 |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 조정아 저 | 7,000원 |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2003 | 서재진 외 공저 | 9,5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 서재진 외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4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5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2003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 6,000원 |
| 2004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 6,000원 |

## 학술회의총서

| | | |
|---|---|---|
| 2003-01 |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 5,000원 |
| 2003-02 |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 5,500원 |
| 2004-01 |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 10,000원 |
| 2004-02 |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 10,000원 |
| 2004-03 |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 8,000원 |
| 2004-04 |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 7,500원 |
| 2004-05 |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 5,500원 |
| 2004-06 |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 6,500원 |
| 2004-07 |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 10,000원 |
| 2004-08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 9,000원 |
| 2005-01 |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 8,000원 |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9,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협동연구총서

| | | | | |
|---|---|---|---|---|
| 2003-01 |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 | | 10,000원 |
| 2003-02 |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 허문영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3 |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 최진욱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4 |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 제성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5 |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한만길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6 |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 이상만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7 |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 이금순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8 |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 박영규 외 | 공저 | 9,000원 |
| 2004-01 |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 | | 10,000원 |
| 2004-02 |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 여인곤 외 | 공저 | 7,000원 |
| 2004-03 |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4 |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 제성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5 |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 고정식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6 |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 양문수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7 |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 이금순 외 | 공저 | 8,500원 |
| 2004-08 |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 김영춘 외 | 공저 | 5,500원 |
| 2004-09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 | | 10,000원 |
| 2004-10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 오명석 외 | 공저 | 5,500원 |

| | | | | |
|---|---|---|---|---|
| 2004-11 |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 김명섭 외 | 공저 | 5,000원 |
| 2004-1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 양영균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3 |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 박경하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4 |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 서중석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5 |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 조한범 외 | 공저 | 9,500원 |
| 2004-16 |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 최진욱 외 | 공저 | 6,500원 |
| 2004-17 |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윤종설 외 | 공저 | 5,000원 |
| 2004-18 |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 강일규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9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 전재경 외 | 공저 | 8,000원 |
| 2004-20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 이진국 외 | 공저 | 6,000원 |
| 2004-21 |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 김이선 외 | 공저 | 8,500원 |
| 2004-2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 윤철경 외 | 공저 | 10,000원 |
| 2004-23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 한만길 외 | 공저 | 10,000원 |
| 2004-24 |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 박기홍 외 | 공저 | 6,000원 |
| 2004-25 |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 김광억 외 | 공저 | 4,000원 |
| 2004-26 |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 김광억 | 저 | 4,500원 |
| 2005-08-01 |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 | | 10,000원 |
| 2005-08-02 |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 김국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3 |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4 |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 이철수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5 |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 박광기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6 |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 양문수 외 | 공저 | 10,000원 |
| 2005-08-07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 이금순 외 | 공저 | 10,000원 |

◈ 비매품 ◈

## 통일정세분석

| | | |
|---|---|---|
| 2003-01 |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 신상진 |
| 2003-02 |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 임강택 |
| 2003-03 |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 최의철, 임순희 |
| 2003-04 |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 이헌경, 박영호 |
| 2003-05 |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 배정호 |

| | | |
|---|---|---|
| 2003-06 |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 박형중, 정영태 |
| 2003-07 |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 박형중 |
| 2004-01 |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
| 2004-02 |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 북한연구실 |
| 2004-03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 조한범 |
| 2004-04 |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 박형중 |
| 2004-05 |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 최의철 |
| 2004-06 |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 전성훈 |
| 2004-07 |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 여인곤 |
| 2004-08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 이석, 최진욱 |
| 2004-09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 최의철, 임순희 |
| 2004-10 |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 이교덕, 신상진 |
| 2004-11 |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영춘 |
| 2004-12 |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 전성훈 |
| 2004-13 |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
| 2004-14 |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 김영춘 |
| 2004-15 |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 김영윤, 박정란 |
| 2004-16 |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 김수암, 이금순 |
| 2004-17 |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br>: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 박영호, 김국신 |
| 2004-18 |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br>: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 김국신, 박영호 |
| 2004-19 |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 전병곤 |
| 2004-20 |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4-21 |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 전병곤 |
| 2005-01 |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
| 2005-02 |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 김영윤, 최수영 |
| 2005-03 |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 정영태 |
| 2005-04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
| 2005-05 |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 최의철, 김수암 |
| 2005-06 |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 전병곤 |
| 2005-07 |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 김영춘 |
| 2005-08 |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 김영윤, 최수영 |
| 2005-09 |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 이금순, 임순희 |
| 2005-10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 박형중, 최진욱 |
| 2005-11 |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br>: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 최의철, 임순희 |
| 2005-12 |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 배정호 |
| 2005-13 |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 김수암 |
| 2005-14 |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 황병덕 |
| 2005-15 |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 손기웅 |
| 2005-16 | 일본 총선 결과 분석 | 김영춘 |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성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단, 비영리에 한함)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써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절

취

선

# 회원가입신청서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근 무 처 | | | | |
| | 직 위 | | | |
| 간 행 물 받을 주소 | (우편번호 : ) | | | |
| 연 락 처 | 전 화 | | FAX | |
| | 전자메일 | | | |
| | ID | | PW | |
| 전 공 및 관심분야 | | | | |
| 회원구분 |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 |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